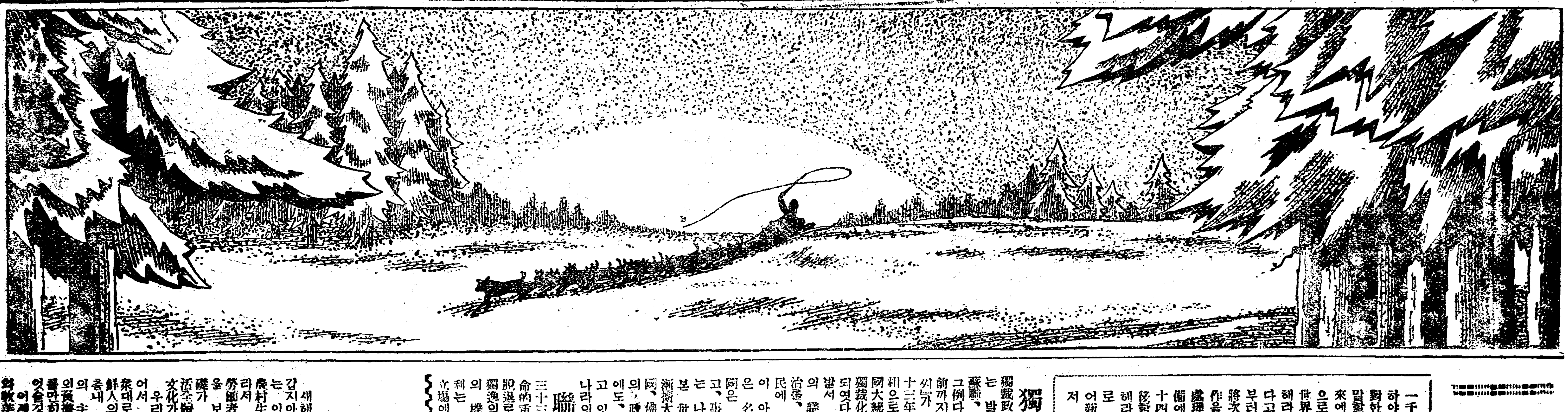
夕刊
朝鮮日報
本紙特刊並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徐？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番地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代表電話光化門 ②二八〇〇番
振替京城五八七八



贊 朝鮮日報

翠梧山人

蠏尺喩蛇足引興、乃知寒後一陽升、春回國三千里、(社運之隆昌) 月上瑤臺十二層、(文藝之權輿) 毎使時人聳耳目、漸看世界開天眼、晨昏相對如良友、開發文明最上乘

社說

새해의말

一

새해에 하여야할 첫재일은 農村의振興이다。朝鮮은반갑지아니하지마는 아직도 農業國이어서 農을業으로하는 이가 全人口의十分之八을 占하고 잇다。그런데 이農村生活은 資本主義의 影響으로 大資本의土地兼倂、따라서 나오는 自作農의 小作農에의轉落、小作農의 農業勞働者乃至 無職者에의 轉落이 加速度的으로 行하는것을 보고잇다。이것은 朝鮮의二千三百萬民衆의 生活의基礎가 崩壞됨을 意味함이니農村의 崩壞는 곳朝鮮의生活全體의 崩壞를意味한다。웨 그런고 하면 朝鮮의 經濟와文化가 다 이農村이라는基礎의 우에 依存한 까닭이다。

우리는 十數年來로 農村의 崩壞라는 무서운 現象을들어서 民衆과 當局에 對하야警告하여왓거니와 民衆은民衆대로 이에對한自覺이 不足하엿고 當局은 朝鮮과朝鮮人의 特殊事情에 對한 認識과誠意가 不足하얏기때문에마츰내 今日의 悲境을 誘致하엿다。만일 일즉부터 우리의 主張대로 一面으로는 都市中心政策을 緩和하야 農村의負擔을 輕減하는 同時에 農村을 爲한 施設에 國費를만히 썻던들今日과 가튼 窮境에 빠짐이업고 [illegible]되엿슬것이다。

이제 와서 이른바 自力更生、堆肥와 副業獎勵、棉花와養蠶等을 獎勵로 삼고 또 自作農創定、小作令의 制定、各種組合의 獎勵를 말하게 되니 늣다하더라도업서서는 아니될 일이지마는 그것으로 足히 將傾하는 大廈를 버티라는 一木의 힘 以上이 되게될수잇슬까。甚히저퍼하는바이다。

진실로 農村을 振興케하려할진댄 土地를 斷然國有로하거나 그러치아니하면 法令으로 土地兼倂을 制限하는同時에 殖銀、金組等을 改組하거나 또는 農村金融機關을 國營으로하야 年四五分以下의 低利로 農村에融通하야 大規模的自作農創定의 大計를 이르키는同時에 部落單位의 協同組合을 組織하야 生産과 販賣、購買의 合理化를 圖하야 貨幣價値 적은 農産物生産者로 商工業者의 暴利의 犧牲이 아니되도록 하는 徹底的이오 根本的인 對策을세우는 一路가 잇슬뿐이다。

그리고 民衆自身은 첫재로 農土를사라、팔지말라하는 愛土思想을 鼓吹하고 둘재로는 部落마다 組合을組織하야 販賣와 購買와 生産方法과를 合理化하야 部落經濟의 確立을 期할것이다。

二

새해로부터 둘재로 朝鮮이 하지아니하면 아니될일은 商工業에의 自覺、組織、躍進이다。

朝鮮은 農業國이란 말은 現在를 說明하는 말이오 將來의 當然을 가르치는 말은아니다。朝鮮自身으로도 自作自給하던 넷날 鎖國時代에는 몰라도 現世紀와 가티 商工業이 發達되어 自由로 競爭하는 오늘에는 農業國民은 오직 商工業國民의 搾取의 對象밧게 되지못하는것이니 그의 前途에는 오직 無限한 貧窮의 墮落이잇슬뿐이다。朝鮮의 貧窮의 原因이 여긔 잇섯다。이제 朝鮮이貧窮의 深底에서 脫出하는오직 一條인 生路는 朝鮮을 商工化하는것이다。

朝鮮에는 無盡藏의 電力이잇고 石炭이 잇고 그리하고 또 生産費의 低廉으로 世界工業國中에 옷듬가는 日本內地보다도헐신 低廉한 勞働力이잇고 그리하고 朝鮮의周圍에는 日本內地、滿洲、中國等의大市場이 잇다。우리는 紡織業도 할수잇고 製紙業도 할수잇다。우리는 中國人、印度人의 日用品을 製造할수잇는同時에 日本人、米國人의 日用品도 製造할수잇지아니하냐。朝鮮人만을 目標로하는 朝鮮人商工業者는 時急히 그 蒙昧한 偏見을 破棄할것이다。

이리하기爲하여서는 民衆自身의 自覺과 組織과 決死的인 勇往邁進이 必要하거니와 當局으로서도 日本內地本位의 産業政策을 버리고 朝鮮自身을 爲한 朝鮮本位의 産業政策을 確立할 誠意와 勇氣를 가저야할것이다。短見한 植民地政策에 얽매이어 朝鮮의工業化는 日本工業의 敵으로 알아 朝鮮을永久한 大阪商品의 市場을 삼으려하는것이 普通日本人의 通念이엇다。이는 不當할뿐더러 長久한 將來로 보아서는 日本의利益도 아닌것을알아야한다。朝鮮을絕對自立的인 經濟單位를 삼는데는 問題도잇겟지마는 朝鮮을一種의 獨立經濟單位를 삼는것은必要하고 또當然한일이다。

近年에 와서 朝鮮에 大工場의 施設이 頻頻함을 본다 興南의 窒素、京城의 紡織、永登浦의 麥酒、平壤의 製粉工業等은 다 有數한것이다。그러나 그것은 朝鮮人의 資本과는 아모 關係가 업는것이어서 僅少한 勞賃을 除한 外에 [illegible]것이니 이들 工業은 朝鮮人自體로볼때에는 富에의 보람은 極히 적은것이다。朝鮮의工業化는 設或 朝鮮以外에서 資金의 融通을 밧는일은 잇더라도 그 利益이 朝鮮內에 沈澱되고 循環되는 性質의것이 아니어서는 아니된다。大資本의 朝鮮內各種 産業新制에 對한 反對의 要點도여긔잇는것이다。當局된者 이點을 分明히 認識하지못하면 結局朝鮮의 繁榮이 무엇인지를 認識하지못함과다름이 업다。

三

셋재로 새해에 잇고십흔것은 義務教育의 實施에 對한準備다。人道的、政治的인모든 理由를 且置하고라도 農業과 農村의 改良을 爲해서라도、더구나 朝鮮의工業化를 爲하여서는 義務教育의 實施는 緊急한 基本的大問題다。

아직도 朝鮮에서 義務教育이 時機尙早라고 하는가。그러한 말은 敢히 할者가 업슬것이다。財源이 업다고하는가、다른 모든 事業을 延期하고라도 義務教育費는 計上함이 올흘것이다。普通學校兒童에게 月謝金을밧고 入學試驗을 課하면서 다른 무슨 事業이 더緊急하다하느냐。

義務教育實施와 同時에 普通教育의 敎授用語를 朝鮮語로 하고 上級學校의 入學試驗에는 國語科를 日本人과 同一히 競爭을 시키는 無理를 廢한다 하면 朝鮮人의 文化는 急速度로 向上될것이다。

우리는 새해가 조흔것을 가저고 오기를 熱望한다。우리는 이에 二千三百萬民衆의 正當하고도 緊切한 最少限度의 要求三을 말하야 새해의 말을 삼는다。

一九三四年의 世界政局展望

徐椿

一千九百三十四年의 世界政局은 어떠한 方向을 取하야 趨移할까? 豫想이 許하는 限度內에서、이에 對한 概念을 敍述하자는것이 短文의 目的이다。두말할것도업이 新年은 過去의 繼續이오、未來에의 連鎖다。問題의三十四年은 그것이 國際的으로 多事多難을 極한 三十三年의 다음해요、또한 世界的으로 危機를 胚胎한 三十五年의 바로 前해라는데、그本色이 잇고、特徵이 잇고、意義가 잇다고 볼것이다。따라서 三十四年은 三十三年으로부터 넘어 온 諸種事件의 뒷 處理를 할해요、將次 오려는 三十五年의 重大問題에 對한 準備工作을 試할 해다。그런데 事件은 그發端보다도 뒷處理가 더 肝要하고、問題는 그 始作보다도 準備에 生命이 잇는것이다。이런 意味로 보아 三十四年은 이에 前한 三十三年보다도 또한 이에 後할 三十五年 보다도、더、重大한 役割을 가진 해라고 할것이다。이러한見地에 잇어서 新年으로 넘어온 問題와、또한 將次 올 問題를 붓잡어 新年의 世界史的 任務가 어데잇는가를 推察하고저 한다。

獨裁政治

獨裁政治로의 逆轉의 開始는 발서 十餘年前부터다。蘇聯、伊太利、土耳其等은 그例다。다만 三十三年 以前까지는 아직도 『데모크라씨』가 優勢이엿다。그러나 三十三年이 히틀러를 獨逸首相으로、하고、루스벨트를米國大統領으로 하자、世界의獨裁化氣運은 急激히 强化되엿다。獨逸의 나치쓰는 발서 政黨이 아니요、米國의 議會는 발서 『國民의政治를、國民을 爲하야、國民에 依하야』하라는 機關이 아니다。그리하야 獨逸은 名實이 다 獨裁요、米國은 데모크라씨의꺼질을쓰고、事實、獨裁政治를 行하는 나라가 되엿다。이것을 본 世界에는 獨裁熱이 漸漸擴大되어 간다。발서 英國、佛國에도 一國一黨主義의、政黨이 擡頭하고、日本에도、政黨解消派가 이러나고 잇다。三十四年은 또멧나라의 獨裁化를 볼는지?

聯盟改造

三十三年은 國際聯盟에 致命的重傷을 주엇다。日本의 脫退로 歐洲聯盟이 되고、獨逸의 脫退로、英佛伊三國의 機關이 되엇는데、伊太利는 伊太利대로 自國의、立場에 서서 僅히 그殘命을 保存하고 잇는 聯盟의 목에다 다시 칼을견우니、그것은 다른것이 아니라、聯盟改造案이라는것이다 伊國案에 依하야 米露를새로 너코、日獨을 다시 너으면 改造된 聯盟은 발서 英佛의 마음대로 될 聯盟이 아닐것이다。또한그案대로 一國一票主義를 廢棄하고、大國本位로 改造한다면、佛國의不利는 勿論、小協商國따위들은、容啄할배가 못될것이다。이러케보면 聯盟改造는 그實 改造가 아니요、聯盟打殺이다。그러면 三十三年以前의 原狀을 恢復시킬수가 잇느냐하면、日獨蘇伊가 倂存한 限까지는 不可能의 일이다。따라서三十四年은 聯盟打殺에 向하야 다시 一步를 進할려인데 그結果와 그意味하는바는 다른것이 아니라、英佛特히 佛의 現狀維持機構의 破壞요、獨伊特히獨逸의現狀打破主義(벨사유條約改訂이 主眼)의 勝利다。

合從連衡

三十三年은 日獨의 聯盟脫退와、倫敦經濟會議의 破裂과 軍縮의失敗를 通하야國際協調主義의 뿌리를 끈어노앗다。이것이 世界各國으로하여금 經濟에 잇서서는一國單獨繁榮主義로、軍事에 잇서서는 國防第一主義로、外交에 잇서서는 合從連衡式의 同盟主義로 轉向케하엿다。三十三年에잇서서의 日不侵略條約의締結、日佛軍事同盟說、佛의前首相及 現航空相의 訪露、米國의 對露承認等等은 다 이러한式外交의片鱗인데、그뒤를니은三十四年에는軍備擴張과아울러서이런式의外交戰이 猛烈을 極할것이다 이리하야 世界는마치 저 聯合對同盟의 對峙를 보던 一九一四年以前의 狀態로 도라가고잇다

國防第一

三十三年의 軍縮會議가 完全失敗의 形態에 빠진데다가 三十五年은 華府及倫敦條約의 改訂期이다 따라서 三十四年은 列强의 海陸空三方面의 軍備擴張工作이 가장 猛烈을極할려다 이러케 擴張해가지고도 오히려 不足한 弱國은 合從連衡式의 外交에 依하야 强國을 제便으로 휘여넣는것으로 채우는것이다 이런 意味로보아 이런式外交는 無形한 軍備擴張인것을 알수가잇다

市場爭奪

日印會商 日對中借款 日汎米會議 日對蘇國交回復 日對滿承認等等 三十三年에이러난 모든 일은 列國의旣得市場確保策이 아니면 新市場의爭奪戰이다 그러고 이市場爭奪戰이 軍需品原料生産의獲得을 通하야 軍備擴張과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通商上의 緊密한 關係를 通하야 合從連衡式의 同盟外交와도 聯關됨은 勿論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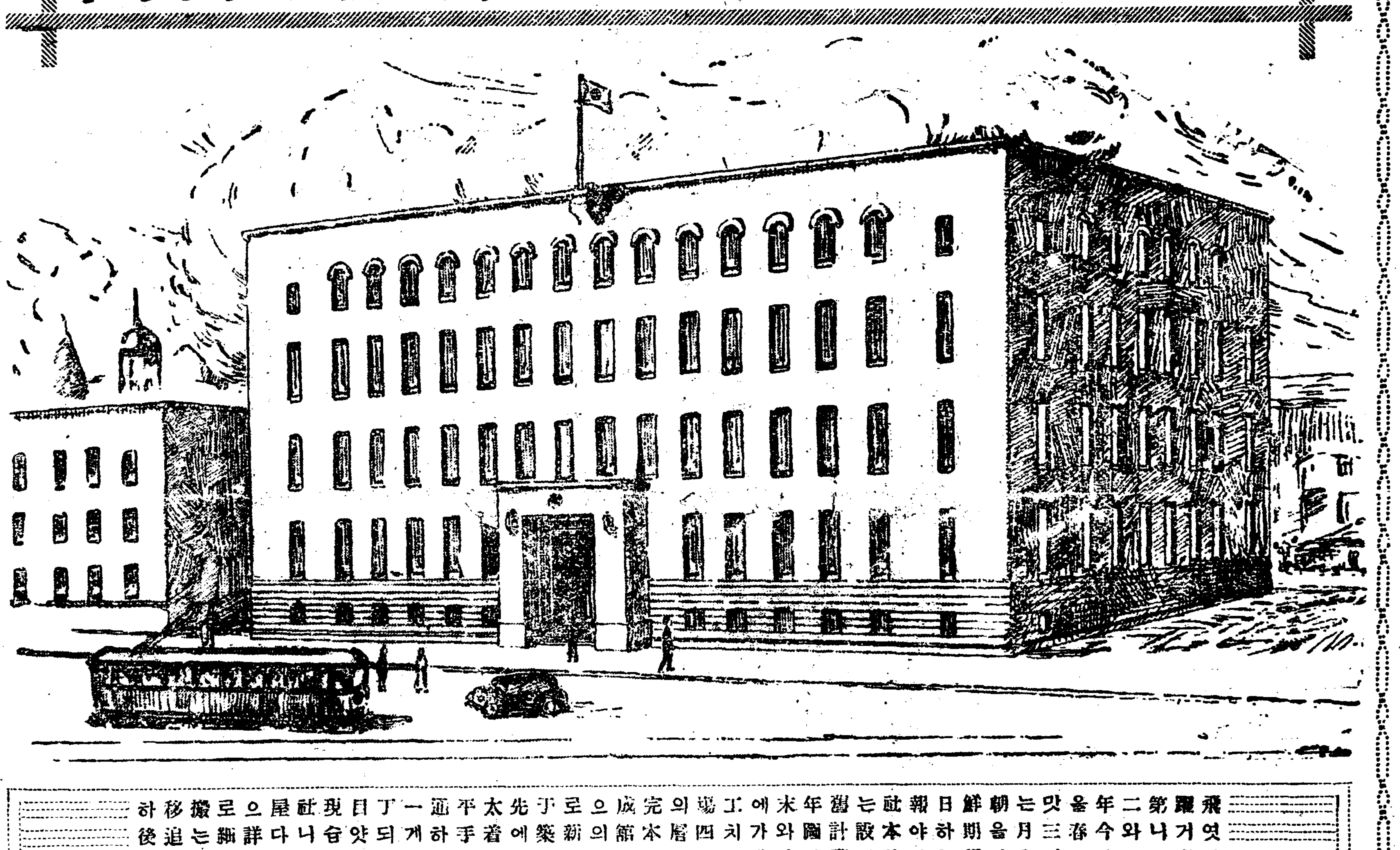
產業統制

自由貿易主義의 崩壞와 國際協調主義의 衰退와 同伴한 軍備擴張의必要等等은 必然的으로 列國을 驅하야 產業의 國家管理와 國家統制를 行할수밧게 업시만들엇다 따라서 何國을 勿論하고 個人의 營業自由는 漸漸縮少되는傾向에 잇는데 三十四年에는 이 傾向이 더욱强化될것이다

中國分裂

우리가 알까모를까하는동안에中國은 어느덧한나라가아니요 세나라가 되어버렷다。曰中華民國、曰中華共和國、曰中華소비에트共和國 等이 情勢대로가면三十四年에도 또 멧개이러나지 안을가?

躍進하는 朝鮮日報社屋設計圖



飛躍第二年을맛는朝鮮日報社는昨年末에工場의完成으로于先太平通一丁目現社屋으로撤移하엿거니와今春三月을期하야本設計圖와가치四層本館의新築에着手하게되얏습니다詳細는追後發表하겟거니와新年元旦에際하야滿天下讀者諸氏의압헤우리의計劃一端을披露합니다。

昨年中本社의主催後援事業

△表는 本社主催
▲表는 本社後援

◇五月

▲朝鮮籠球協會主催第三回中等校俱樂部籠球選手權大會(五月六日)
▲中央基督敎青年會主催 全朝鮮力技選手權大會(五月十三日)
▲延禧專門學校主催 全朝鮮中等籠球大會(五月十九日)
▲朝鮮基督青年勉勵會 朝鮮聯合會主催 第五回全朝鮮禁酒宣傳運動(五月二十七、八日)
△本社主催 全京城幼稚園 園遊會(五月十一日)

◇六月

▲延禧專門學校主催 第四回全朝鮮武道大會(六月三日)
▲職業女性俱樂部主催 職業女性慰安音樂會(六月十七日)
▲普專學生劇研究會 第二回普專學生劇公演會(六月十七日)
▲普專辯論部主催 第一回全朝鮮男女專門學校雄辯大會(六月二十三日)
▲延專文友會研究部主催 第三回延專野外劇公演會(六月二十九日)
▲梨花女學校學友會主催 梨花納涼音樂會(六月三十日)

◇七月

▲崇實專門學校 主催 巡廻演劇音樂大會(七月一日부터)
△本社主催 南鮮大水災에 救護班을派送하고 또한水害의慘況을映畫化하야 市內四個所에서 無料로上映하다(七月二日)
△本社主催 夏期保健體操班員講習會를開催하다(七月三日부터)
▲京城保育學校主催 夏期巡廻演奏團(七月十三日부터)
△本社主催漢江水泳日光浴大會(七月八日부터八月末日까지)
▲三俱樂部聯盟主催 太陽、白熊、金剛庭球聯盟戰
△本社主催 保健體操班全朝鮮巡廻講習會(七月廿五日부터)
△本社主催 第一回男女水泳講習會(七月二十六日부터)

—(續)—

◇本日本紙重要記事

◇本紙	第一面	世界政局展望	徐椿
◇新年號其一	第一面	歐洲平和의脅威	洪陽明
◇同上	同	岐路에선南京政權	朱耀翰
◇同上	第二面	非常時日本의展望	咸尙勳
◇同上	同	日本外交의轉機	金明植
◇同上	第三面	蘇聯邦外交의收穫	韓晳容
◇同上	同	蘇聯經濟의實績	金世鎔
◇同上其二	第一面	世界經濟趨勢	徐椿
◇同上	同	朝鮮産業政策	一記者
◇同上	第二面	日本景氣展望	申泰翊
◇同上	同	低物價政策과金本位制	月山
◇同上	第三面	戰爭經濟와非常生活	金洸鎬
◇同上	同	朝鮮農村과自作農	朴用來
◇同上其三	第一面	甲年의極東風雲	文一平
◇同上	第二三面	小作令檢討	一記者
◇同上其四	第一面	各國軍備現勢	W記者
◇同上	第三四面	戰爭	E記者
◇同上其五	第三四面	朝鮮八大名物年頭辭	一記者
◇同上其六	第一面	黑人文學	韓雪野
◇同上	同	非常時世界文壇	李軒求
◇同上	同	朝鮮文學諸傾向	林和
◇同上	第三四面	幼稚園保育座談會	
◇同上其八		今日의朝鮮	一記者
◇同上其九		體育朝鮮의억센勇姿	

◇今一日本紙四十面◇

◇附錄世界全圖添付◇

謹賀新年

昭和九年一月一日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朝鮮日報社社員一同

朝鮮日報社支分局員一同

謹賀新年
京城府竹添町二丁目十八番地
太平蓄音器株式會社朝鮮總配給所
麒麟朝鮮レコード朝鮮總賣捌元
テーオ商會
電話光化門㊂四八番
振替京城壹貳壹五八番

시에론蓄音器商會
大橋次郎
今井赴夫
李瑞求

京城長谷川町一二
日本콜럼비아蓄音器株式會社
株式會社日本蓄音器商會京城支店

活命水
本方靈神丸 等有名賣藥品七拾餘種類製造本舖
藥種貿易
株式會社同和藥房
京城府和泉町二五八番地
電話光化門一八番
振替口座京城一二三五番
私書函西大門局一五番

各種時計貴金屬類蓄音機レコード
標準時計
京城府本町二丁目
村本時計店
電話本局（四一七一、四一七二）

朝鮮京城府苑南洞六六ノ十一號
醫學界新發明專賣特許三成治療器總發賣所
三成研究所
販賣部 京城府苑南洞六十六ノ十一號 振替京城二〇七二番
第一工場 京城府舟橋町
第二工場 京城府苑南洞
木ユ工場 京城府櫻井町

오케-레코-드總配給元
日本오케-蓄音器商會
京城支店
支店長 李哲
支配人 金星欽
文藝部 金陵人
音樂部 康虎鼎 崔錫永 文湖月 玄龍澤
販賣部 金輪卿 朴鍾緒
[illegible] 申不出 徐祥錫 李[illegible]影 朴[illegible]春 林[illegible]

『日本의挑戰態度로 日蘇關係는惡化 外部의攻擊에排擊準備充分』

모로토프氏排日演說

【莫斯科二十八日發】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의 中央執行委員會議(議會에該當)는廿八日 莫斯科新크레물린劇場에서 共産黨書記長스탈린氏 中央執行委員會議長카릴린氏 人民委員會議長 모로토프氏等巨頭를비롯하야 各地方代表四百餘名이 出席하야 開會하얏다 當日會議에는 在莫斯科各國外交團 內外各新聞記者代表等이 傍聽席에 列席한바 카릴린氏의開會辭에뒤니여 모로토프氏는·一般內政과外交問題에對하야 詳細한演說을한後 再次左와如한反日演說을行하얏다

『쏘베-트는平和政策은不侵略締結條約과 北滿鐵道讓渡를 申請한것으로實證되엿다 그러나日本軍部는 積極的으로挑戰的態度로나와 日蘇關係를惡化케하고잇다 따라我等은外部의攻擊을바들危險이除去되줄로생각하면안되다 日本과獨逸은聯盟을脫退하고 各國은모도 입으로는軍縮을唱導하면서事實에잇서는 實行할意思가업다 쏘베-트政府는 虎視眈眈한資本主義國에圍繞되여 자못危險한地位에處하여잇다 그러나우리는外部로攻擊에對하여는 모도이것을排擊할準備가잇다 우리를攻擊하는者는 그들自身의목을버이는것이다』

胡氏를主席으로 汪派排擊을劃策

注目되는孫科氏行動

【電通上海三十日發】 馬尼剌에서 歸途 二十九日朝 香港에到着한 孫科氏는 同日午前九時胡漢民氏를 訪問하고時局問題를懇談하얏다 胡漢民氏의要求하는 蔣介石氏의 下野實現은 困難하나 汪精衛氏의行政院長을免하고 蔣介石氏의 軍事委員會委員長의權限을 縮少한다는意圖를暗示하야 胡漢民氏의 入京國民政府主席就任을 要請한것이라한다 孫科氏는 汪派를排擊하고自身行政院長에 就任하야 國民政府大改造를 策하여 그行動은 益益注目되게되엿다

人民政府를取消 西南大同團結?

【電通上海三十日發】 中國側香港 來電에依하면蔣光鼐蔡廷楷는 十八日代表를廣東에派하야 西南派와協議한結果胡漢民의趣旨에從하야 兩氏의名으로獨立政府取消通電을發하야陳銘樞 李濟琛에게下野를勸하자고傳한다 右實僞는全然判明치안으나漸次不利하야가는 西南의狀態를考慮하야西南派의大同團結을圖하기爲하야一障碍인人民政府의取消를 決意하게된것이아닌가推測된다

福州爆擊禁止 南京中央黨部에 西南執行部通電

【電通廣東三十日發】 西南執行部政務委員會는 二十八日執行委員蕭佛成 唐紹儀 陳濟棠氏等 十五名連名으로 中央軍의福建爆擊에對하야 南京中央黨部及 國民黨部에 如左한通電을發하얏다
中央은 何等 正式으로福建討伐의聲明을發치안코 漳州福州를 空襲하야 無辜한人民에게危害를 及하게된것은驚愕에不堪한다 福建과共産軍과結成하야 中央에務確한것은李濟琛等의罪로 人民의周知하는바이다 國家의生存으로보아中央은 速히福州爆擊을禁하기를切望함

福州一週內占領 中央側에서豪語

【電通上海三十日發】 中國側消息에 依하면 三路에 分하야 浙江省에 進擊한 福建軍은東路의 戰況이 뜻과갓지안음으로 主力을 中西路에 吸集하야 中路는泰順、慶元의線에서決寧으로向하야 行進을開始하고 또 東路는 復鼎에서平陽으로 向하야 進擊中이다 이때문에 球川、常山의 共産軍에 對하고잇든 衢州의中央軍의 一部를갈라麗水方面에增援하고 戰況進展과 同時海軍의協力을 急務로함으로國民政府는 第一艦隊司令陳季良에出發命令을하야 陳은部下艦隊를引率하고 三十一日午前六時福建方面에出動하기로되엿는비데 中央側에서는一週間內에福州占領의可能性이잇다고豪語하고잇다

世界綿收穫豫想 二百五十五萬俵

【電通워싱톤二十九日發】 米國農業經濟局의 發表에依하면本年度 世界綿收穫豫想高는二百五十五萬俵다 그러고前年度보다增收가豫想되는것은 全然米國을除한諸外國의增收에依한다

政友勝田主計氏 脫黨屆를提出

【電通東京電話】 政友會의長老勝田主計氏는 黨의現狀에嫌厭하야 드듸여脫黨을決意하고三十日郵便으로 鈴木總裁에게脫黨屆를提出하엿다

福州廈門居住의 外人避難을通告

國府에서各國領事에

【電通南京卅日發】 國民政府外交部는 三十日 南京駐在各國領事에對하야 福州及廈門에서의 軍事行動의 形便上 兩地에 居住하는 外人은各各南台並 鼓浪에 되도록速히避難하도록하야달라고 通告하얏다 右는米國領事의 抗議에對한反撥的回答과 同時에 三十日에 發하얏다

中央軍空爆은 英國이操縱?

【電通上海二十九日發】 福州來電에依하면 福建人民政府外交部長陳友仁氏는 二十八日中央軍飛行機의 爆擊에關聯하야 英國을非議하는如左한스테이트멘트를發表하야 센세이슌을惹起하얏다
蔣介石이行한福州爆擊은福州民衆에게對하야英國이 印度에한것과 同樣의政策을갑프라지하기위하야 英國이蔣介石에게勸하야 行케한것이다

第二次五個年「計劃案內容」

共黨政治部서決定

【莫斯科卅日發】 今日이즈베스챠아紙의 發表에依하면 共産黨政治部는今後 纖布類食料品其他 一般物資消費의增大에努力하는 同時에一九三七年까지에 쏘베-트聯邦産業의一大擴張을 圖하야第二次五個年計劃의完成을 期할案을可決하엿다그리고 右案은來一月共産黨會議에附議할터인바 滿場一致로承認될것은確實할모양인데右案內容의 槪要는다음과갓다
一、一九三七年까지에 쏘베-트産業에 從事할勞働者의總數를現在보다 三割方增員하[illegible]上을行할
一、一九三七年까지에 織物工場十五、綿布工場十二、絹布工場十一、製絨工場二十一、石鹼工場六、肉類罐詰工場十七、食料品重氣工場二十三、鐵道建設五千粁볼가莫斯科間볼가돈兩河間에二大運河를開鑿하고 볼가河를利用하야一大水力電氣工場을建設할것
一、一九三七年까지에 五百萬의優秀한勞働者及三萬四千名의各産業專門家를養成함
一、一九三七年까지에 無職者의絶滅을期함
一、一九三七年까지에 쏘베-[illegible]育에實施함[illegible]에 二個年[illegible]
一、一九三七年까지에 [illegible]業制度의完成을期함
一、一九三七年쏘베-트聯邦의生産高를一千三十億留에達하기를期함(一九三二年의쏘베-트의生産高는 四百三十億留)
一、그外에一九三七年까지에肉類、버터、魚類、鷄卵、砂糖의消費高를現在의三倍로增加하기를期함
但右에對한一般勞働大衆의國家奉仕에新意味로現在보다 三割五步의引下를期함

遺骸列車出發際 又復爆彈이破裂

루國首相遭難續報

【電通부카레스트卅日發】 데부카首相暗殺事件突發로 人心不安한此際今日데부카首相의遺骸를실은 列車가하라레스트로向하야 시나이아停車場을發車하려할際 同停車場構內에서大音響과갓치 爆彈이破裂되여小兒一名의負傷者를내인慘事가勃發되엿고 시나이아의人心은恟恟하다

루마니아新首相에 안제레스크氏任命

【電通부카레스트三十日發】 데유카首相暗殺에 伴하야루마니아皇帝카롤陛下는 데유카首相이所屬되여잇든 國家自由黨員콘스탄친・안제레스크氏를後任首相으로任命하엿다

루마니아政府서 全國에戒嚴令

【電通부카레스트三十日發】 루-마니아政府는今日의閣議에서데유카首相暗殺事件의善後策을協議한結果全國에向하야戒嚴令을布告하는同時에 新聞의報道에嚴重한檢閱을加하기로決定하얏다한다

本社辭令 一月一日附

副社長兼編輯局長 李光洙
解兼任 編輯局次長兼社會部長
任編輯局長、解兼任 金炳元
營業局長
兼任總務局長代理 金賛範
總務局次長
任營業局次長 文錫俊
社會部次席
任社會部長 李相昊
庶務部長事務取扱
任庶務部長 黃大闢
編輯局長代理 朱耀翰
右依願解任

中央軍延平占領

福建軍도共軍을激勵 猛烈히反擊開始

【電通上海三十日發】 杭州來電에依하면 中央軍의劉和鼎氏部隊는 二十八日延平을占領하고十九路軍을古田에敗退케하얏다
【聯合上海三十日發】 中央軍當局發表에依하면中央軍劉和鼎部隊는 二十五日順昌을奪還한後다시延平에向하야前進하야二十七日洋口를回復하얏다그리고 中央軍의攻勢에對하야 福建側은蔡廷楷가二十九日 司令部를水口에進하야 延平、古田間의全線에亘하야共産軍을激勵하는同時에猛烈한反擊을開始하얏다

共産軍의進出로 南昌은俄然危機

孔花龍麾下一萬이大擧進擊 蔣氏牙城을陷落意圖

【聯合漢口三十日發】 最近共産軍은 江西省內의 中央軍이 福建省境으로 移駐한틈을타서 孔花龍麾下인 第七、第八、第九의 三個師凡一萬은 江西西北宜豐方面으로부터 南昌에迫하야去二十五日에는 奉新、瑞州線으로 進出하야該方面을警備하는 中央軍 第三師、第二十三師獨立 第三十六旅는 防戰에 努力하엿스나 南昌附近으로 續續退去하야 目下南昌은 三十三師의 一部를남게두어을뿐으로 他은全部撫州에出動하야자못危險 狀態에잇다 그리고 共産軍今次의 進出은蔣介石의牙城인 南昌을一擧에陷落하야蔣介石에게致命的打擊을與하려는 意圖에서나온것으로其形勢는 자못危殆하야撫州는激烈을極하얏고 二十九日九江에送還된 負傷兵二千餘는거이同方面의負傷兵이라고 觀測되는바南昌行營은 危機에瀕하게되야近日 九江으로移轉한다은說이流布되야 省城의住民은 續續九江으로逃避하고잇서南昌은目下大混亂을極하엿다

八面鋒

◇새해라해도、그날、그해、그산、그물、그사람이오、그거리입니다。
◇年賀狀配達하는이가、치운데땀을뻘뻘흘니고다니는것을、새해光景이라고할가요。
◇自働車타고歲拜다니는양반이、歲拜人술에비틀거리는사람들이、새해를말하는가요。
◇엇잿든 새해라니새해인가하여둡시다、그러고、우리도今年부터는 정말새해마지準備를하여봅시다。
◇자、그러면、여러분、우리도남들이하는대로、「謹賀新年」이나하여둘가요。

謹賀新年

日本포리도-루蓄音器會社
朝鮮支店
支店長 中原役太郎
文藝部 李源培
專屬藝術家 王平 李景雪 王壽福 金龍煥 全基玹 金冤均

京城府鍾路三丁目
祛痰止咳散製造元
慈善堂製藥株式會社
電話光化門二一三五番 振替京城一九〇七番

京城府鍾路二丁目
時計卸直輸入
普信堂時計舖
主 玄錫柱
電光一一三一番八八三番 振替京城二二八五一番

京城府淸進洞一一八
合名會社 天光堂
電光一二〇一

寫眞銅版・亞鉛版・寫眞看板・專門
海星寫眞製版所
京城府慶雲洞九六 電話光化門二二四八番 振替京城一五七六五番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二十五番地
共濟無盡株式會社

京城府古市町四三番地
京城モータース株式會社
專務取締役 神宮茂八

京城府鍾三丁目八十九番地
絹綿布貿易商
東一商會
電話光化門一〇八〇番 振替京城一九九九番

京城
白商會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百九番地
綢緞綿布貿易
廣昌商會
主 趙善用
(長)電話光化門五〇七番

京城府茶屋町八十九番地
朝鮮絹織株式會社製品總販賣店
絹織物 綿絲布貿易商
廣澤商會
主 許澤
電話光化門長一二四〇番 七二七番

京城府鍾路六丁目二六七
綢緞布木
太應善商店
電話光化門二二九番

京城府鍾路一丁目六十番地
絹布商
金熙俊商店
電話光化門長七五八番 一二二八番

九昌商會 綢緞布木店
京城鍾路二丁目 電話光二二三番

鍾路四丁目一五
株式會社 朴承稷商店
電光五番

京城鍾路
綢緞布木、交織人絹、各種セル直輸入商
孫鍾洙本店
本店 電光七番

朝鮮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三四番地
蔘茸唐草材都散賣
開城商會
電光化門一三四六番 振替京城九九七一番

株式會社 大昌社

京城府公平洞一一九番地
レコード號スケート製造一般運動用品
三光堂運動具店
電話光 一九四三番

過歲安寧하하셧습니까

개해에『물ㅅ개』의歲拜

여러분과세안녕히하셧습니까

◇금년은개(犬)의해라고합니다 「개는반드시록지에잇는『개』만이『개』가아니겟지요, 나는속칭『해타』(海駝)라고하나 원일음을『해치』(獬豸)이고 조선말로는『물ㅅ개』라고하는경복궁의『해태』입니다비록물과록지의서식(棲息)은다를망정우리『사촌쯤되는『개』의해가되고보니 송무백열(松茂栢悅)의 깃거운정회를못이겨두어마듸소감을말슴드립니다

◇생각하면 그것도벌서에쉬아홉해말하자면칠십년전의 녯일이엇습니다 리조말엽(李朝末葉)의 괴걸(怪傑)이라고 볼만한『운현대감(雲峴大監)』대원군(大院君)이 경복궁(景福宮)을 중수하든 병인(丙寅)년에궁을짓다가회재를 한번겪고나서는 데인가슴이라그불난까닭에 경복궁에서맛바라보이는과천(果川)관악산(冠岳山)이화산(火山)이라 그것이 비치워회재가난다는풍수들의 허황한말을고지듯고 관악산의화산ㅅ긔운을눌는다고 리세옥(李世玉)이라는 석공을시키어우리내외를 만들어세운것이랍니다

◇내가무슨효험이야잇겟습니까만은 나는그바람에속절업는 허다한연사의변천만보앗습니다 내눈으로 본세사의변한은 력사가소연하고부로들의 긔억이새로운지라여긔서 말할것이업거니와 관악산회산ㅅ긔운들으라고 만들어진우리내외가오늘날와서는 무섭한나 그내외한구경꺼리가되고보니 나스스로의수긔한 운명이서글픔니다 이소리저소리할것이업스나 우리사촌ㅅ개의 해를맛고보니 다른해보다생각이좀달라서 부질업슨새해인사를 몃말슴드린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해에 복마히바드시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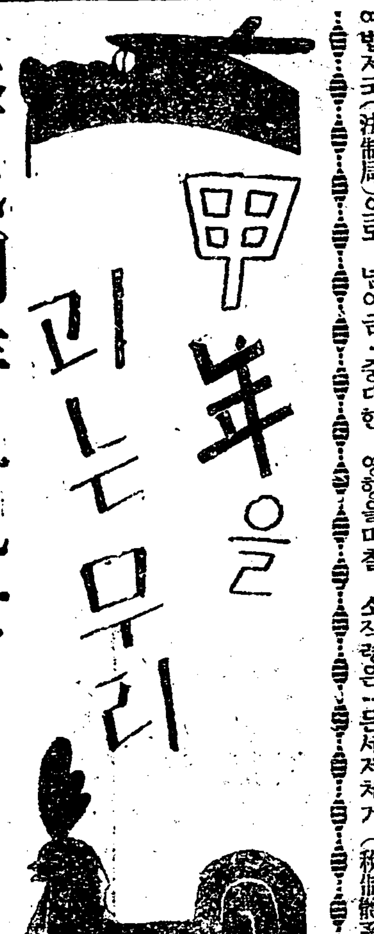
新年中에는實施될 總督府의兩大政策

朝鮮小作令과稅制整理案

民衆이바들影響은莫大

작년일년동안의 총독부 정책중에큰수확이라고 볼수잇고 또신년부터 실시되여 조선이천만민중의 생활에자못 중대한변혁을 줄것은 조선소작령(小作令) 제정실시 문제와세제(稅制) 정리 문제가잇다

소작령 제정문제는 삼년전에총독부내에 조선소작 조사위원회를설치하고 삼년간의 조사를마치고겨우 금년서월하순에야 초안내용에대한 련합심의를 개시하고 각방면의 의견까지청취한후 그후농업자 대회에서몰상식한 지주들의 반대결의등말성은 잇섯으나 이미척무성(拓務省)과의 절충도원만히진전되여법제국(法制局)으로 넘어금년가을에는 실시될 모양이라고한다 조선농민의 팔할을치지 가을수확기를 압두고 실시되이 법령의 시련은 과연엇떠한결과를보여줄것인가는 법의 발표와 실시후를 보아야알것이나 년년격증하여가는 소작쟁의와 토지에대한 격심한 겸병(兼倂)등여러가지로어려운문제가만흔농촌에 경제생활에 근본적규정을지어 노흡법이 실시된다는것은 실로중대한 사실이다 그러나이법에의하야다소간인저된소작권과기타의법적(法的)보호에의하야과연농민대중의생활은어느정도까지안정될것인가크게주목된다 그리고또 조선일반대중 생활에중대한 영향을줄 조선세제정리 문제는발서부터 문제가 되여잇든세제체게(稅制體系)의대개혁으로즉 종래지제(地稅)를 가지고조선국세 체게의 중추로삼고잇든것을 일반일개소득세(所得稅)를 창설하여 그것으로써 여러가지 세금의중심이 된다는것이다 다시말하면 중래는토지의소유권을 확립하는 동시에그소유의 정도에딸아 세금을 바든것을 이번에는 각개인의 실제 재산수입정도에 딸아 세금을 밧게한다는것이니, 이는 세금을밧는 법으로는『공평』해지나 종전보다는 세금밧는법이 각층각면의 대중에게 밋치게되여이번세제개혁은일반대중생활에 막대한 영향이잇다 이가타하야 조선세제 체게가 근대엿박귀는것은 조선세제가 근대자본주의국가의세제체게로서점점돈되야가는한과정에잇서그주심이 확립되는셈이다 그러고세금은개인의면세점(免稅點)을팔백원으로 정하야그이상의수입이잇는사람은 혼몸으로 집도땅도업시도내이게된다 그러고이개인소득세는 세률의 차이는잇을모양이나 일본의면세점이 일천이백원인데 비하면 일본보다는사백원이나 수입이 적은사람에게까지과세케되여그영향은더크다



李氏朝鮮咀呪한 出處未詳의讖書

터무니업는鄭堪과李沁의對答

所謂鄭鑑錄의正體解剖 (一)

공교한偶然과라 부지쌈지돈글거

오늘부터 갈리는 력서(曆書)는목갑으로보아년갑술(甲戌)의 이름을띄고잇다갑신(甲申)년혁명이 앗갑게도 실패하고 갑오년(甲午)동학의란리가피폐한당시 한국의힘으로 평정되지못하야원세개(袁世凱)의 거느린청병(淸兵)이드러왓고이까닭에일청(日淸)이 싸움의 흔단을열고이어갑진(甲辰)년의일로(日露)개전까지보아 세태와 시국이아울러 변화를보인까닭에 실로큰세 조선은(甲)ㅅ자든해와 인연잇는변화를 보이는것과가튼 늣김이잇다 그러나그후에도 갑인(甲寅)과갑자(甲子)의두갑ㅅ자든해가 시국과 세태에대하야 한등의 변화를끼치지 아니함을 보아 전자(前者)의 우연이 퍽으나 공교하얏슴을 늣기는바이나 세상에는 이 『공교한 우연』을 밋기삼아 어리석은민중을 속여먹는 간악한도배가만히 잇스니 그것이즉 허황한참위의 글(讖緯書) 소위정감록(鄭鑑錄)류와 몰ㅅ구를팔고서국을빙자하야 순진한『부시쌈지』속의 돈을 긁어가는무리이다 갑오갑진이후로 어리석은사람을 모으고 속이고하든그들은『갑』ㅅ자든해두번을속여왓스니 하나는갑인년의 그것이엇고 남은하나는갑자년의 그것이엇다

期待의甲戌年 萬國成陣犬吠時

심하게는 갑자년갑자월 갑자일갑자시에는체갈량(諸葛亮)이남병산에서 동남풍을빌어조조(曹操)의십만대병을 불살라업새드시 지금시국을소탕하고 정도령이 등극을한다고까지하든 그들이라 시일이지나도 되는것이업스므로 그들은벌서 파탄이생기여숨죽은듯구령이낫와가치다만괴운업는꼬리를 꿈틀거릴뿐 이터니 다시갑술의새해가 되여옴을보고 소위만국성진견폐시(萬國成陣犬吠時)라는 괴상한문구를내세여 갑술년에는 세계전쟁이생기고 그다음에는자긔네의 시대가온다고 하야 죽엇든『사탄』은다시준동(蠢動)하기시작하얏다 이제 이『갑』ㅅ자를팔아먹는무리들의 최근내용을 신문번두에 항마(降魔)의 오른붓(筆)로써 규명하야 독자에게이바지하려한다(丹頂生)

民心을安賭코자 禁書를解放시켜

어리석은 사람들의 인부리에 오르나리고 간악한도배의 밥버리그르턱이 가되는 정감록 이란것은 대관절 그출발이어듸서된것인가? 이것이 원래허란한것이기까닭에 그출처에 대하야서도 자서한 연원을대일수가업는것이니 일설에는 리태조(李太祖)가 고려왕씨(王氏)의천하를차지한이후로두문동(杜門洞)에갑히숨은칠십이현(七十二賢) 들이리씨의조선을저주하는뜻으로 언제든지 너의리씨조선도 망할때가잇다는것을 암시하고 풍자하고 저주하기위하야 정감(鄭堪)이라는 가공적(架空的)인간을 만들어노코 그대상의 배역(配役)이되는 리심(李沁)이라는인물을 역시가공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두사람이 마조이야기하는체로 참위(讖緯)의글을 만들어노은것이니 리씨의 선원보략(璿源譜略)을보아도 리심이라는인물이전연이업다는것이다 그러나 리태조가 천하를엇고미처 인심이안정되기전에 이척이세상에 나돌아 인심을고혹식히므로 이것은금긔하야모다 빼서다가 불살르고 다만한벌을 규장각(奎章閣)에 보관하얏더니 선조(宣祖)대에 이르러 임진왜란(壬辰倭亂)이잇슨다음 충무공(忠武公)의재질과 명(明)나라의 원병으로 일본군사가 물러가기는하얏스나 민심이 극도로피폐하야도모지용긔를회복할수업스므로 리씨의조선이 아즉도 삼백년이나온수가 남엇스니 락심하지말라는 뜻으로 국초에는 금하얏든 규장각에 보관한 정감록을 종로네거리에 내다걸고 오는사람 가는사람을 모다읽히엿다는 말이잇고

鷄龍山下는奠邑 奠邑은鄭氏의꿈

다른일설에는 리조초에 천하의 참위의ㅅ글을 모아불지른일이잇되 그불살리운 참위의ㅅ글목록에 정감록외석자가 업섯슴이 분명하니 이는 당시에 업든것을 다음사람이 만들어내인것이다 다만 연려실긔술(燃藜室記述)이란것을보면 숙종(肅宗)때에 홍만종(洪萬宗)이라는 이의『순오지』(旬五誌)를보면처음에왕이 즉, 리태조가 계룡산(鷄龍山)아래가서 터를잡고 역사를시작하얏더니 꿈에신인(神人)이나타나서말하되 여긔는전읍(奠邑)의잇슬곳이오 그대의잇슬바가아니니 속히 가라고하야서 한양으로 옴가엿다는것이 잇스니 『전읍』은 측 정나라정(鄭)자라고한 모양인즉 이것이 소위정감록의 최초출발인가 하는말도잇다

旅客機墜落 十名慘死

英白聯絡飛行中

【電通론돈三十日發】『인페리알·에어-웨이스』회사의 영, 백(英, 白)간련락의영백려객비행긔는 삼십일『부라셀』·크로이든으로 향하야비행하든중 오후한시경에백이의(白耳義)『로이트시레드』부근에서추락하야려객승조원등열명은무참히도즉엇다

天氣豫報

日氣가조코 좀쌀쌀할터

새해초하룻날은 천긔부터 축복되여잇다 일래의 삼한(三寒)날세로 다소기온이 차기는하나 하늘은 청명하야 구름한점업시 곱게말고 바람은잔잔하야 새해첫날히망과, 깃븜이가득한날세라고, 관측된다

◇경성측후소의 발표에 의하면, 저기압은, 북해도(北海道)방면에잇고, 일시몽고(蒙古)에잇서 치운바람을보내줄듯이보엿든고기압(高氣壓)은뜻밧게약하여지며 방금중국대륙에잇서 조선을경유하야 일본해방면으로 나저젓다 이때문에 다소칩기는하나 그리심한것은 업다기온도 긴일에비하야 십도가량 내리엇스나 명일은천기가조코 다소 쌀쌀하다고한다

昨日氣溫 最高零度九 最低零下五度五

今朝 最低零下一〇、二

今日 正午 零下〇度七

朝劇新年興行 太陽劇場上演

시내조선극장에서는 신년 초하루부터의 신년흥행에 진을하려든것을 태양극장(太陽劇場)의 일행의연극을 오일간 상영키로되엿다 극은시정에 맛는건전이둔비극『기구한아버지』희가극『즐거운인생』기타련극을 다하야새해마지를하리라한다

小寺氏篤志

西署에千圓依托

시내 죽첨정(竹添町)에 거주하는 목청부업소사충행(小寺忠行)씨는 이십구일오전에홀시 서대문경찰서를차저가서 사회자선 사업에 써달라고 돈일천원을기부하엿다 그 돈쓰는 방법은 서장에게일임하엿다한다

今日의라듸오

昭和九年一月一日 (月曜)

第二放送 (波長四九二米)

◇午前一〇時 奉祝唱歌
◇同一〇時五〇分 歌詞
◇同一一時二〇分 레코ー드音樂 (映畵主題歌)
◇同六時、하ー모니카二重奏
◇同六時二五分 新春講演(一) 元日의意義 崔南善
◇同七時 뉴ー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皇太子殿下御誕生奉祝記念講演(第四日)
◇同八時 武寧之曲(大吹打)
◇同八時二〇分 레코ー드音樂 (流行歌)
◇同八時三〇分(東) 피아노獨奏
◇同八時五〇分 레코ー드音樂 (獨唱)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杲杲天邊 二、唱劇調 春香歌中 〇石티 朱蘭香
◇同九時三〇分 (東) 時報 氣象通報 翌日프로그람豫表

懸賞當選小說 暴風雨지난後【一】

李巴村作 熊超畵

눈, 눈, 눈,

어렷의 눈ㅅ동자는 무서운 빗으로 떨기시작햇다。누구한사람도 숨ㅅ소리를크게내지못하고 압산으로 밤만깁허가는창으로 살어질듯한긴장

그들의 무서워하는 시선이 먹춘곳에는 말라빠진 북어껍질가튼가죽이 뼈우에말러부터잇는 민경식 민장로의 벼든몸이 누어잇다。

사십팔년동안이나 몸을싸고돌든 피ㅅ방울은 최다 말려버리고 인저는 한방울도 남지안흔듯햇다。

푸러진 머리털속에 박혀잇는 두 눈자위、몹시타버린 입술、잇다금 쿨럭거리는 기침과함께 쏘다저나오는 피ㅅ덩어리、어느것하나가 그의목숨이더 계속되리라고는미더지지안는것이다。

여러교인들은 밤이새도록그의머리맛헤 무릅을굽고안저서 긔도하엿다

그러나 긔도의효과는 조금도업고 병은 점점위태한상태로 빠지기시작햇다

『아이구!』

하는 비명과함께 무서운기침은 또일어낫다

손가락을 폇다오그렷다하면서 가슴과머리를 할부로잡어뜻는모양은 참아 볼수가업스리만큼 아처로웟다

민장로는 손을 허공에내저으면서 요강을차젓다 요강을집어다가 입에대일때 시뻘건핏덩ㅅ리가 팔팔쏘다저나오는것이다

그는 반요강이나되는피를토한후『후ー』하고 길다란숨을내뿜은뒤에 정신을 일코면서자리에쓰러젓다 목구멍으로는 모기소리보담도약한 숨결이가래친과함께 들릴락말락하게도 나올뿐이다

『아무래도 의사를 한번더ー』

하고 병든아버지의 겻흘떠나지안코 쪼그리고안젓든정애는 고개를 허공으로 처들면서말햇다

정애는 소경이엿다

정애가 세상에떠러지든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일곱살되든여름에 심한열병끗헤 영영 빗출볼수가업게된 소경이엿다

『세상에서 보지못하든 아버지래도 이다음 저 하날나라에서는 볼수잇단다 내가너를보고잇는것과가티 너도나를볼수잇다』

민장로는 이러케 항상 어린딸을 위로해주엇든것이다

불러온의생은 맥을집허보고청진기를가슴에대여본뒤에 인저는 할수업다는듯이 고개를좌우로흔들엇다

『오늘밤을 못넘기겟는데!』

하고 혼자말로중얼거리고 강심제한대를가슴에꼿고이려섯다

각성주사의 효력은 당장에 나타낫다

그처럼 애쓰든ー산골작에 흐르는 적은물줄기가 나무뿌리에걸리고 바위틈에부듸처서 갈팡질팡하는것과가튼 호흡이 제길을차즌듯이 평온하엿다

두눈도 기적적으로 딱떳다 그것은 마치 심지가다드러가는 람포에 기름을부어너는순간과가탓다

민장로는 눈을들어 벼상수위에 둘러안즌사람들의얼골을 차례차례 바라보려고 애썻다

『정애야!』

민장로는 간신히 기운을내여 딸의일홈을불럿다 일홈부르는소리에 아직도 살어계시구나 하는 반가움과함께 아버지의 손목을 더듬어 잡고 울엇다

『아버지 렴려마세요』

민장로는 자기겻흐로 방싹다거안즈면서 말하는 딸의손을 꽉 잡엇다 그것은 잡은둥간등하게 무력한것이엿스나 자기로서는 잇는힘을 다내여잡은것이엿다

『정애야 네형은 웨 소식이업냐』

『곳 온댓서요 밤안으로…앗가 전보왓는데!』

정애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하엿다 그것은 정애 한평생을통하야 처음이자 마지막이될 거짓말이다 세번식이나전보를처도 아모소식이업는 형이다 그는 형을원망하고저주하기보담도 우선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기위하야 거짓말을햇든것이다 정애는 술픔과원망과 량심의찔림이번복이되여 아버지의손목을입에대고 소리처울기시작햇다

밧게는 앗가부터시작한비가 멈추지안코나렷다 밤이기퍼갈수록 비ㅅ소리는점점커저가기시작햇다 번개가치고 우뢰가낫다 번쩍거리는번개는 각금각금들창을때리고 꺼저버렷다。우뢰는점점우으로 몰려갓다。하눌파저편쪽으로 굴러서 딱사이ㅅ거기는 아모것도업고비와우뢰와번개와어둠으로 찻슬뿐이다。

이 두려운 어둠을깨트리고 별안간 민장로집대문압헤는요란스러운 자동차소리가들렷다

朴基孝

京城府仁寺洞六四番地 最新ラヂオ 製造販賣 電氣器具 各種蓄音器 レコード 高聲社 主 高丙喆 總務 李豊千 長電話光化門三八三番 振替京城二六七七番

合資會社 清水組京城支店

京城本町三丁目 阿部藥房 電話本局四八七番 四二六六番 振替京城二七九一番

朝鮮料理 國一館 京城府觀水洞二十一番地 電話光化門六四六 四〇七

京城鍾路一丁目四四番地 電話債券、商品券 ラヂオ、蓄音器類 電機 電話舍 電話(光)八四番

朝鮮料理 松竹園 京城府樂園洞二八九番地 電光一二〇四 二二〇四番

京城府授恩洞五十六番地 團成社 朴晶鉉 電話光九五九番

京城府鍾路二丁目十一番地 朝日洋服店 電話光一八三九番 振替京城六九三六番

京城府鍾路五丁目一八九番地 朝鮮化粧品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三八二番 電略チケ(又ヘ)조화 振替口座京城二一四八四番

京城鍾路青年會館下層 레코ー드 蓄音器 各種樂器 京城樂器商會 李會極 電話(光)一九七七番 振替京城八九二一番

京城府西大門町一의七七 理髮器具百般 內外化粧品 美容術用品 歐米金屬各種 高級刃物 京城理髮器具商會 柳養浩 電話光化門一六二九番 振替京城二六〇九番

京城鍾路二丁目四九番地 金銀白金 寶石珊瑚物 金銀賣買 東亞金銀商會 主 金泰彦 電話光化門一二三三番

京城府中林洞一二八番地 金銀美術細工製作 各種珊瑚物 都賣及小賣 地金賣買 商 金東完商店 長電話本局二七八番 振替京城一四二一番

朝鮮鐵工所 京城スプリング製作所 代表者 姜佐奎 京城府中林洞一三九番地 電話本局八六三番 振替口座京城二四八七番

活版印刷機械專門製作 合名會社 岩田鐵工所 京城工場 京城府黃金町三丁目一八四番地 電話本局長三四六八番 東京工場 東京市神田區三崎町三丁目一六〇 川口工場 埼玉縣川口市評町

京城府寬勳洞一九七番地八號 朴吉龍建築事務所 電話光化門一五六四番

京城府鍾路通二丁目一百一番地 (鍾閣隅) 金銀細工 眼鏡 冠服 人造花 各種扇子 都散賣商 裕昌商會 主 金載德 主任 金載鏧 電話光化門三八五番 振替京城八〇〇八番

京城府壽昌洞一 和洋菓子 洋酒罐詰 各種果物 光化堂

謹賀新年

京城府壽松町二丁目三番地
漢城精米所
主 曹秉學
電話光化門二三一番 電略(カ)ヌ八(일ン)

旭金庫工業株式會社京城支店
具鳳祖
金允煥

オルガン製造及修繕、改造
ピアノ調進及修繕
康秉俊
京城府貞洞二十三
鳳琴工場

京城府中學洞
卸商 崔學基運動具店
電光二二四二

京城本町壹丁目
北內商店
電話本局二一五二番 振替京城一五九番

金熙遠
京城鍾路

京城鍾路二丁目十六
外科 X光線科
醫學博士 鄭求忠
醫師 權寧禹
電話光化門六八五番

京城府樂園洞二二五
外科 肛門病科
醫學博士 朴昌薰
電光一五八三番

[illegible]

[illegible]

映畫常設 第一劇場
電光一七五五

仁寺洞
朝鮮劇場
電話光化門二二八一番

京城公平洞一一四番地
서울풋뽈製造所
主 李康昊
振替京城五〇四〇番 電話光化門一九二九番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七
活版 石版
東洋印刷所
電話(長)光化門二六九六番 振替口座京城二〇九七六番

三國商會
土井誠一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二二番地
露油商會
電話光化門二四七二番 振替京城三七三一番

京城南大門市場內
果物委托販賣商
成明信
長電話本局一六八六番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八ノ七
各種染料 製紙用パルプ 直輸入卸商
日獨染料合資會社
電話本局四八一二番
本店大阪市北區宗是町【大阪ビル內】

京城府仁寺洞七二番地
板硝子商
文明舍硝子店
主 李惠聖
電話光化門二一三三番

京城驛前(蓬萊町一丁目五의六)
朝鮮運送計算部交計加盟店
中央運輸計算聯合會加盟店
㊕松京運送店
電話本局 三二〇八番 三一四七番
振替京城一三六三八番

京城府孝悌洞百九番地
銘酒釀造元
不老鶴 高麗鶴 銀河 白米燒酒 過夏酒
人蔘酒 蔘露
不老商會酒造場
電話光化門長二一八七番 振替口座京城二三八一番

朝鮮放送協會

書籍組合
德興書林 博文書館 永昌書館 彰文堂 活文社 翰南書林
大成書林 新舊書林 以文堂 太華書館 滙東書館

京城府黃金町二丁目一九九番地
朝取取引員
全北企業株式會社
電話本局三〇八五番

京城公平洞二五
典東旅館
電光長六九九

京城府貫鐵洞二一八 (鍾路四街邊 鍾閣直後隅)
高麗旅館
主 高弼權
電話光化門一二二七番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九二
メリヤス卸問屋
久瀨戶勝商店
電話光化門五九五 振替京城二四〇一番

中山電氣工務所
代表 朴溶成
電話光化門一二五二

西洋料理
鍾路會館
京城鍾路 普信閣裏
電話光化門二三二四番

서울의자랑 우리의환락
カフェ白馬
京城鍾路一ノ四三
電話光化門一三三三

營業種目
朝鮮舊式婚具用品具備
鍮器各種、漆器木器
婚用需品、屏風表具
朝鮮樂器、都散賣
京城鍾路二丁目五十三番地
振替京城九一一七番
德泉商店

[illegible]

陰城

陰城郡甘谷面舟川里
昇平釀造場
主 金遠假

陰城無極市
三泰醫院
院長 具三泰

陰城邑內
朴海一

陰城邑內
慶樂館
主 尹慶三

陰城驛前
義榮商會
金榮稷 金永保

陰城驛前
中華料理
東興樓
主 權承天

陰城邑內
中華料理
永豊樓
主 金學先

陰城邑內
各種食料品商
李悳榮

陰城郡
蘇伊面事務所職員一同

陰城郡金旺面蓬谷里
金旺鑛山事務所
金東元

陰城郡
笙極面長
金鴻俊

陰城面事務所
張鉉瑺 尹璨漢
朴炳善 朴勝益
金星煥 金武石
金泰煥 趙成九
李喆周 南宮勳
孫錫鳳 李松茂

陰城郡廳職員一同

陰城邑 醫生
洪晃植

吳準默

陰城面平谷里
朴舜東

槐山郡沼壽面
李善

張在李

陰城面鎭入里
李武榮

南箕祐

崔寬燮

邑內里
李春載

邑內里
南昶祐

陰城面草川里
鄭玟永

陰城面冬音里
金在祿

陰城面新泉里
南千源

遠南面長
朴鴻來

遠南面下唐里
申洛鉉

遠南面下唐里
山根勇六

遠南面下唐里
李學奎

遠南面下唐里
成耆煥

遠南面上老里
南基稷

陰城邑內
金銀洋靴
自信堂
主 李聖用

遠南面下唐里
共榮釀造場
主 李世榮

陰城邑內
開城旅館
主 崔弘烈

陰城邑內
崔彰鈺

陰城邑內
鮮一洋服店
主 李洲相

陰城邑內
時計·眼鏡·蓄音機·販賣
堂

陰城邑內
三光運送店
主 □□永

陰城邑內
綢緞布木商
朴敬云

陰城邑內
雜貨商
金生東

陰城邑
陰城酒造組合
組合長 柳重煥

陰城驛前
藥種商
泰和永藥局
郭鴻麟

陰城面平谷里
趙天九

陰城邑內
李柱益

陰城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陰城邑內
朱庸煥

陰城邑內
藥種商
鄭謨善

陰城邑內
金漢鄕診療所
主 潘柄老

蘇伊面
面會議員
趙完奎

槐山郡沼壽面沃峴里
昌信精米所
劉獻壽

蘇伊面中山里
鄭熙昌

笙極面許溪里
辛永碩

笙極面車坪里
金商皓

笙極水利組合

笙極面五生里
金泰植

金淳喆

大所面□山里
許萬興

陰城郡
甘谷面長
南相喆

邑內里
宋元燮

邑內里
朴載春

陰城二十日會

陰城面
面會議員
潘采榮

遠南面馬松里
面會議員
高在燮

陰城郡遠南面馬松里
面會議員
高在晃

陰城郡蘇伊驛前
米穀 肥料 官鹽
雜林商店
主 鄭禹永

蘇伊面碑山里
洪淳翼

蘇伊面中山里
朴容五

蘇伊驛前
康福孫

陰城郡蘇伊面厚辛里
柳鍚羲

蘇伊面
面會議員
申明澈

蘇伊面金古里
趙憲昌

蘇伊面厚辛里
李龍在

蘇伊面厚辛里
禹在善

蘇伊面
面會議員
鄭雲鶴

蘇伊面中洞里
面會議員
金明雲

陰城郡
開城商店

蘇伊面甲山里
金永寬

蘇伊面甲山里
安秉一

遠南面佳□里
安大淳

遠南面□校里
高在球

遠南面下唐里
面會議員
成俊鏞

遠南面上唐里
成洛中

遠南面助村里
鄭翼謨

遠南面助村里
崔欣榮

遠南面上唐里
成洛範

蘇伊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陰城邑內
代書業
崔永柱

陰城邑內
光明齒術院
主 方允玉

陰城鎭入里
南相一

陰城邑內
大成自轉車店
主 金昌成

陰城邑內
大昌自轉車店
主 金學俊

陰城鎭入里
南相八

陰城邑內
永興館
主 朴□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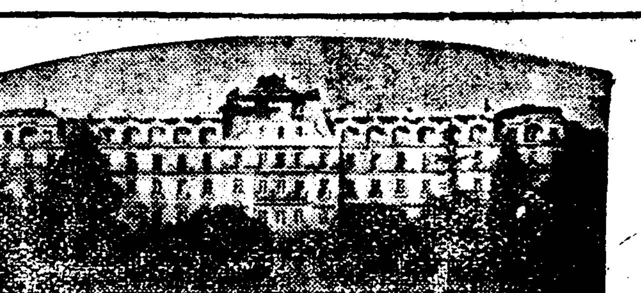
朝鮮日報

新年號 其一

歐洲平和의脅威【上】

洪陽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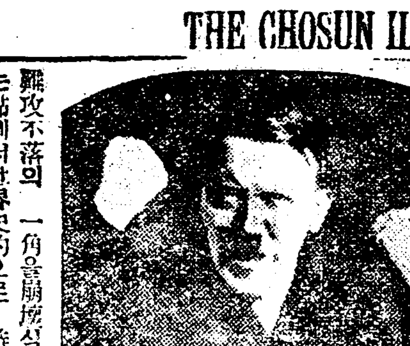
極東에低迴하는 戰爭의幻影이 陰鬱한沈默裡에 또한해를延長하는사이에멀리西半球의彼方에도 이보다못하지아니한 軍神마ー스의 發作이始作되엿스니 이것은지난一九三三年 히틀러의 第三帝國이樹立된 爾來에誘致된歐洲의切迫한新形勢이다。이形勢는 軍縮會議失敗에依한武裝平和의破壞國際經濟會議失敗에依한 經濟的互助의破綻에서例示되얏다。이리하야 國際聯盟을中心으로한歐洲의現狀維持機構는 히틀러 獨逸에依하야 그連繫가切斷되고、國家와國家의 反目과對立은、大英帝國의外相『싸이먼』으로하야곰『歐洲大戰이일어나든 一九一四年의 直前의 形勢와 彷彿하다고까지述懷케한것이니다



(커트는聯盟事務局)

獨逸의 징고이즘

歐洲平和機構의破綻의端初는 一九三三年一月히틀러政權의樹立으로因한 共和制獨逸의死滅에서開始되얏다 歐洲現狀維持의基礎가 된베르사이條約의改訂을目標로하야 偏狹한國民主義를高調하는나츠스黨이 獨裁政權을確立하얏다는것은 十一年前파시스트伊太利가 出現한것과한가지로、近代文明國家의典型的統治形式인 議會主義의



難攻不落의 一角을崩壞식혓다는點에서世界史的으로 特記할重大한政治的事變이엿다。그러나伊太利에잇서서는 그것이名目上戰勝國이엿기때문에 그隣接國家에及하는波動이比較的적엇지마는敗戰國으로서의獨逸의그것은 그國民主義運動의必然的歸結인現狀打破를 支持國民에對한代價로하고 成就된것임으로 그政權을掌握한者가、政權을維持하기爲하야는、실으나조흐나間에 現狀打破에邁進치아니치못할宿命에노혀잇는것이다 그러면獨逸로서打破하려는現狀은무엇이냐?첫재는그들의民族國家統一上必然的으로要求되는國境外在住獨逸民族의 統一이다。베르사이條約에依하야縮少된獨逸國境의 外部ー即外國或은他勢力下에 本土에서割讓된地方에는 約七百萬의獨逸人이獨逸的生活에서 切斷되고잇스니『汎게르만』을 옷으로하는나치스는가 이等의失地를 奪還하지못하고서야 國民革命을完成하얏다고할 資格이 업기때문이다。그러나 事態는極히複雜하야 大戰前獨領土엿든 東푸로시아의一部와 涌濟波蘭코리도어(回廊)의일홈으로서 알니워저잇는『포센』大農業地帶를占領하고、도大戰前墺匈國의領土엿든 [illegible]사아의 一部를占有하고잇는波蘭과체코슬로바키아는褐色獨逸에對한東部防波堤가되여 西部의 佛國白耳義와함께 地理的으로獨逸에 對한包圍隊形을 取하고 잇고、甚至於獨逸的勢力이 進出할唯一한方向인 오스트리아에의通路까지를 안슈르스(合倂)反對!獨逸의 强大化防止가勿論目的이다ーー의일홈으로 窒塞식힘에 共同戰線을펴고잇슴으로壯言大語의나치스呪文만으로는잇더케할 道理가업는形便이다。또한 人口四十萬의『단치히』를獨逸에서 分離하야波蘭勢力下의『自由市』를 맨드러노코獨逸의寶庫『살河流域』을 佛國中心의 國際聯盟管理下로맨드러노코 그우에軍備까지를 거의無에갓갑게制限해노코四面八方으로獨逸로하야곰 꼼짝도못하게 맨드러노흔오늘의 現狀은 自然스러운 狀態라고는 公正한意味에서 評價할수업다。그런데 巴里講和會議에서이러한 不利한 條件下로 獨逸을 처모라너흔 主敵國이 獨逸과는

라인江畔의暗雲

歷史的倫理的으로大敵關係인 佛國임은 누구나 잘아는事實로써 이에 따라서 베르사이條約에依하야 獨立國이되고 또領土를擴張한 체코슬로바키아、유고슬라비아、루메니아의小協商國과 波蘭이 佛國을 中心으로하야 베르사이 條約에依한歐洲의現狀維持를 固持하는것은 그 利害關係上 또한當然한歸結이다。이리하야歐洲에는 二個의相反한 激流가逆行하고잇다 이리하야 獨逸로써보면領土를分割當하고 海外殖民地를일코墺伊合倂까지를 條約上의明文으로阻止當하고 모든束縛을加한것은 呪咀하고도남을 베르사이條約임으로 이에서베르사이體制의改訂업시 獨逸의復興은업다고絕叫하는것은 또한獨逸로써는 當然한코ー스이다。이리하야 이러한國民的感情을巧妙히利用하고、深刻化하는恐慌의물결에다서燎原의火와가티擴大되는共産主義의脅威와猶太人의金利때문에損失이만흔獨逸資本階級의默契下에政權을獲得한힛틀러는、드듸여베르사이條約改訂을 國民의압헤 實證식힐場面에이르럿다。그러나 可惜한일이다 힛틀러에는 國內에서共産黨社會民主黨、猶太人을徹底히彈壓하는데는 그私軍隊의힘만으로도너머『힘』이過해서外國自由主義者의罵倒한非難까지밧엇지만世界一의空軍과巨大한陸軍을擁하고서小協商國과波蘭과갓흔 그與國까지를合하면平時에도約百五六十萬의陸軍을언제든지 自由로驅使할수잇는佛國에對하야 對抗하기에는너머나 弱한것을 아모리興奮하얏지마는 모를理가업다 여긔에大言壯語하는 힛틀러의幻滅이잇다。이에外交的辭令으로는條約改訂의길이업는것을아는 힛틀러는 獨逸의極度軍縮은 他國의軍縮을 條約으로한것인데 佛國은 依然高度의軍備를 하고잇스니、獨逸에도軍備의『힘』을 달나고軍縮幹部會에 軍備平等權을 要求하얏다。原則上平等이란美名下에、定해노흔힌의拒否는 四年間의 軍備猶豫이란것으로써佛國에依하야獨逸에應對되얏다。이리하야힛틀러의國民主義는 結局一九三三年十月十四日附로써 軍縮會議와國際聯盟을脫退하는글라이막스에達하엿다。獨逸의聯盟脫退와軍縮脫退가演劇에끄칠는지、또는이로써束縛업는獨逸의 軍備의突進으로써 獨逸의四面隣接地中가장 弱한 部分을건드려서 大戰의禍端을일울는지는 時間이말할일이어니와、엇더튼暴力과勇氣를그行動의基礎로하야서는 常識으로理解치못할일을例事로히하는나치스獨逸의今日은一九一八年爾來社會民主黨의對外 協調主義를基幹으로하야賠償問題、도즈案、영案、로산느協定等에依하야 解決해온共和制獨逸의 過去와는比할것이아님으로、英伊等의外交的斡旋이奏効치못하는限 歐洲天地에戰爭의脅威가 나날이擴大될것은 避할수업는일이니 이곳筆者로써 獨逸의힛틀러主義를『징고이즘』이라고 稱하는바이다

包圍隊形裡에잇는 獨逸의四隣

英佛과國際聯盟

獨逸의聯盟脫退는日本의聯盟脫退와合하야歐洲平和現狀維持機關으로서의 國際聯盟의存在를稀薄케한것은否定할수업는事實이다。이兩大國의脫退로써國際聯盟은 英佛伊三大國의리드하는바될것이나、伊太利는 獨逸이오스트리아倂合으로써 따뉴 方面에勢力을伸長치안는限 오히려베르사이 條約에對한不平 또 獨逸과그政治體制에잇서 一脈相通되는點으로 獨逸에興味를 形勢에잇고、聯盟機構를根本的으로 改革하지아니하면脫退하겟다고하는 氣勢를보히고잇슴으로 結局現在의國際聯盟은英佛 兩國中心의歐洲現狀維持機關과갓흔觀을 가지게되엿다 獨裁主義의 獨逸과伊太利에對하야 全世界를風靡할듯한파시즘의激浪을最後까지데모크래시로써 防衛하는 自由主義의牙城英佛兩國이聯盟의中心이되다는것은 奇妙한歷史의論理이다、그러나 이兩國中에잇서서도 高踏的地位를占有한것은 佛國이니、佛國은 베르사이條約의 產物인 國際聯盟을本是 베르사이條約維持를爲하야서結合된 小協商國및波蘭과함께 獨逸壓制를爲한것은連結下에서 現在대로의 國際聯盟을防衛하는데 가장堅固한中心이되고 또한堅固히할 必要를가진國家이다。英國은歐洲戰爭以前에는 歐洲의牛耳를執한생이엿스나、現在는佛國이完全히 歐洲의中心이되엿다。뉴욕타임스의有名한外交記者후랭크·싸이몬스의指摘한바와가치 英國은 佛國과如히小協商國波蘭과갓흔共通한 利害關係에서 굿게結合된與國이업고 軍事實力에잇서서는、英國은佛國이獨逸軍備를 考慮에入함과가튼日前의假想敵이업섯기때문에 特히맥도날드一流의 協調政策ー軍縮의模範을示한다는 理由에서 軍縮을自進하야 어느程度까지過하게하엿기때문에、軍事的實力에잇서佛國에比하야 헐되짐을가지고잇다。佛國은現在 蘇聯을빼고는 歐洲第一의大陸軍을가지고잇고 四千臺를算하는世界第一의 精銳한空軍을가지고잇슴에比하야 英國은約四百臺와 同種類의軍用機를가짐에不過함으로 끌쳉이가튼 도버海峽을隔함에不過한 英國은現在萬一의境遇 佛國空軍의空襲과佛國長距離砲의 脅威下에잇는셈이다。 이것이 全部의理由는아니라할지라도 歐洲大陸에在한 各國의勢力均衡化를傳統的 外交政策으로하고 佛國의 强大化를猜忌하고 獨逸에同情을가지면서도 佛國에끌니워結局問題의 過般軍縮會議에잇서서도 獨逸代表의期待를背反하야佛國과同一한 步調를取케함으로써 獨逸을脫退케한 結果의重要한 原因의하나이라고觀測된다。그러나 英國은이러한만큼 今後歐洲外交關係에잇서協調的因子로써 作用할餘地가尚存한셈이다。이리하야쥬네브의軍縮會議그것은그實에도 形式的 껍데기作業이오、但常그것이 쥬네브以外의巴里、伯林、倫敦等地의 個人的折衝에依하야 進行되는것과한가지로獨逸의脫退後에도 그議長으로써英國政府의 意思를代表한헨더슨과外相싸이먼는 獨逸의復歸를 獨佛直接에依한妥協의斡旋으로써企圖하는等、軍縮再生의產婆役을行하고잇는것이다

絞殺者曰『내가萬一더强한者엿든들 너들軍縮을 사랑할수가잇섯슬터이지마는 强者들의틈에끼운너를 나의 永遠한愛人으로할수가업는바에야 차라리……』──(倫敦데일리헤랄드紙에서)

꽈쇼伊國의視野

英佛에對立하야 獨逸과그政治體制의同型임으로써 그國際聯盟에對한態度如何는歐洲政局의 캬스팅·보트를 掌握한것으로써 看做되여 오늘날엇더한意味에서 歐洲政界의中心이되듯한感이잇는 팟쇼國家伊太利는 最近羅馬에서 開催된파시스트大評議會에서『伊太利는 最短期間에聯盟의機構와目的을根本的으로 大改革을行하는것을 條件으로하야서만聯盟에殘留한다』는決議를通過하고 聯盟改革이 實施되지안는限 脫退한다는것을表示하야 歐洲政局에一大衝動을이르켯다 그러면伊太利의欲하는 聯盟改革案은무엇이엇는가?外報의傳하는것을 綜合하면 그것은現在聯盟機構外에잇든米國과蘇聯을 聯盟에加入케하고 日本과獨逸의 聯盟復歸를 實現하야써 聯盟으로하여금 大國을 網羅한 有力한機關이되게하고 小國의權限을徹底히縮少하야 聯盟의議事進行手續을簡易化하는同時에聯盟을베르사이 條約其他大戰後에締結된諸條約의 羈絆에서 解放하는것을骨子로한것이다。

即以上의聯盟改革案을보건대 現在聯盟은英佛兩國이左右하고잇슴으로 伊太利혼자만는聯盟內에잇서發言權이弱하다 더욱이佛國과는발칸覇權爭奪 北弗利加北部殖民地를 中心으로한 競爭『아드리아틱』海岸制覇問題에잇서尖銳하게對立하고 잇슴으로 墺地利倂合問題에잇서서는獨逸과結抗되지마는 獨逸을다시 聯盟에引入하는것은佛國에對한 牽制策으로써 有用하고 이와同時에 墺地利問題에對한獨逸의强襲을 抑制함에는 獨逸과大國間에잇는 蘇聯을聯盟에引入하야 大國의平衡을保持하는 一擧兩得策을企圖한것이다。

一九三四年의極東

岐路에선南京政權

朱耀翰

憂國主義者의述懷

上海서 發行되는『密勒氏評論報』上에中國의一『憂國主義者』孟長泳은 다음과가치 恨歎하엿다ーー

『一九三三年은 中國에 잇서서 亦是多端의一年이엇다。對外的으로는 二年前에日本에게 빼앗긴『失地』의 寸土도 恢復치못하얏슬뿐아니라 一步 더 나아가 이해에다시 一省을 일허버렷스며 日本軍의 北平占領은 塘沽의『屈辱的』協定에 依하야 겨우 阻止되엿다。이 協定에 依하야 中國은한번 더 戰略的으로 緊要한 領土에서 武裝禁止를 承諾하엿스며 滿洲에서 日本과 抗戰을하고잇는『義勇兵』에게 支援을말기로 約束을하게되엿다。

滿洲問題를 契機로하야 中國의 指導人物들이共同의敵을 對하기위하여 大同團結을促進케하기는 커녕 도리어 이中國歷史上의千鈞一髮의危機에 잇서서 오직 政治的 紛爭과 內訌을 助長함에그칠뿐이엇다。南京政府는 滿洲問題에 關하야 無定見 無定策이어서 日本의侵略에對한 積極的對策이업다는 批難을 비빨가치 밧고잇다。同時에內部的으로 中國은 全人口의 八割五分을 占하는中國農民의 極度의衰退와 全國的으로 擴大하는商工業界의 恐慌、不景氣로 因하야 可謂『經濟的自殺』乃至『農村破産』이란 難關에當到하엿스며 一方에는 到處에 軍閥의 互相殺戮이不絕하며他方에는 中部一帶의 共産軍의蜂起가잇서서 우리들의 共和國은 前代未聞으로 一層可憐慘絶한 狀態에 들어가고잇다。今年度의 歷史를 뒤저볼때에 우리들의心情은 眞實로痛恨을 不禁하는 바로다……』(密勒氏評論報十二月十六日)

內憂外患의重疊

中國의 現實圖를 이 短文以上으로 더寫實的으로描寫하기는 困難할것이다。重大한外患을·압헤두고 內部로 一致團結을 못하는 中國ーー或은 中國의現在의 支配層인 國民黨바꾸어말하면 新興財閥의 國家社會ーー은瓦解나 國際共管이냐하는 悲觀的 質問을觀客으로 하여금 發하게한다。孟氏가 暗示한바와가티 崩壞狀態에잇는 中國의新興商工業이世界恐慌에 휩쓸리어 破綻에瀕하고 農村이破滅過程을 刻一刻으로 밟아가는所謂『經濟的自殺』이며 또는 中國의 領土와 市場을 組上의魚肉으로 한列强諸國의 角逐이太平洋上에 어떠한 風雲을 이르킬는지從은暫間論外에 두고 中國을 中心點으로하야 그進路를 診斷하자고하면 그 分解의 壓力이外로오는것과 內로 일어나는 것과(비록兩者의 因果關係가 매우密接하다하겟지마는)두가지로 分揀할수잇다。

中央威令의失墜

歐洲大戰及其以後의世界思潮의變換을契機로하야 一時 停頓狀態에 잇든 中國再分割의演劇은 이제 그 病態를 漸次로 再顯하게되엇스니 이미五百萬方哩의 中國領土中에서거이完全히 離脫된 部分이 赤色外蒙을爲始하야 滿洲、西藏等 約三分之一의 巨大한 地域에 達하며 自治運動을 이르킨다는內蒙古며 佛國의 勢力範圍인 雲南이며 露國과接近說이 잇는 新疆等도 未久에 中國領土로서의 彩色을 일허버릴 念慮가 만히잇다。이런것들을 가르켜 大體로 外患이라한다 하면 內憂에 이르러서는 一層錯雜한感이업지아니하니 江西省의南部를 中心으로한 共産地域의 存在가 南京政府의 最大의敵國이되어잇는 것은勿論이어니와 小軍閥의內爭으로 거이 寧日이업다 시피한 四川、貴州、川邊特別區며、廣西派의 根據地인 廣西省、西南政務委員會、人民政府下의 福建省等을除하면 南京政府의威令이 行하는 地域은 長江沿岸과 黃河沿岸의 十省內外에 不過할것이요 거기다가 各省에 아직도 蟠居하고잇는 所謂 雜色軍閥의 不透明한存在는 언제든지 反南京、反蔣介石氣流의 爆發을보게할것이며 그런데다가 다시南京政權의代言者인 國民黨의 陣營이 四分五裂의 分流對立狀態를早하고 잇는것을 想到할때에 實로孟氏가『眞實로 痛恨을 不禁』한所以를 알수가잇는것갓다。

當面한三大코ー스

이러한 情勢下에 잇는 南京政府가 一九三四年에 더듬어갈 進路가 무엇인가。南京政府가(又는中華民國이) 彼所謂次植民地의地位를 버서나서 現代資本主義國家로서의獨立을 完成하자고하면 마땅이 取하야할 코오쓰가 첫재 日本과의 決戰이거나 不然이면 完全한 休戰이잇서야 할것이다。今日의中國의 政治經濟의 組織及軍備의 程度로보아對日決戰이 不可能한것은 不問可知라한다하면南京政府의 實權者는 一轉하야實際的으로 對日休戰을 敢行하고 十年生聚의 計를세워야할것이다。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도感傷主義的인『抗日』輿論을 反對하기에는너무도 人氣偉大的 政客的氣質을가지고 잇서서 以夷制夷의自慰的政策을揭棄하지못한듯하다。

둘재로 必要한 것은 共産軍의絶滅이나그러치아니하면 그와의 政治的協定의 到達이다。交通의 不發達、農村의 經濟的敗殘、軍閥의 橫暴及互相紛爭等이 共産軍絶滅의 不可能을 結論한다하면 南京政府는 現金의赤色政府와 政治的 協定에 依한 休戰을 提議할것이다。이것은 種種의 理由에 依하야成立可能性이 매우濃厚하다고 볼수잇는것이나 南京은 共産化에對한 恐怖又는疑鬼에因하야 이러한 戰術로 나아갈 勇氣가 업는 모양이다。세재로 南京政府는 自黨內의分派를 武力으로 絶滅시키거나政治的으로 大同團結해야할것이다。萬一파쇼를 徹底化하기가 不可能하다고自認한다고하면 外患을 契機로 近日의世界的流行인『擧國一致』를적어도 國民黨內에서만 이라도實現하여야할것이다。그러나中國政局의 歷史와 現實은 이黨爭의擴大를豫想케할지언정 政客의 大同團結은 緣木求魚의感을 가지게할뿐이다。

混迷한醉客行步

이리하야 一九三四年의 南京政府의 行步는 抗日도 못하고 親日도 못하며、共産軍을討伐도못하고 妥協도못하며、獨裁도完成치못하고 民主的『擧國一致』도到達치못하고가장 不確實한 地盤上에서 갈팡질팡하는 醉客의그것일것이다。아직그歸趨가 全然不明한 以上의三大코오쓰中에 어느한가지에서라도 一定한方向으로의明確한 進路가 一九三四年이란 時間안에서發見될는지는 오직 將來가 알뿐이다。(寫眞은 南京政權의支柱 蔣介石氏)

謹賀新年

京城府安國洞一三八番地 眼科專門 安國醫院 趙異榮 電話光化門一八五五番

皮膚科 花柳病科 醫學博士 吳元錫 產婆 金泰允 京城府安國洞네거리 電話光化門二一三一(電車停留場前)

京城 金弘琯內科醫院 金洪泰(雅名)弘琯

京城府安國洞一六三 內科 小兒科 安洞醫院 醫學博士 任明宰 病院 電光一五一 自宅 電光一七六一

外科 皮膚科 花柳病科 鄭在雄醫院 醫師 鄭在雄 京城府淸進洞一五一 電光一二九二

耳鼻咽喉科專門 沈相天醫院 入院隨意 京城府樂園洞一三七

產科 婦人科 許信醫院 京城府安國洞一五五 電光四九一番

東部保健實費醫院 特設痔疾藥治科 醫師 石濟京 產婆 朴亨淑 京城府鍾路五丁目二七〇番 電光二五六八番

京城府鍾路四丁目三二 天浩堂醫院 電話光化門二一八三

內科 小兒科 全一醫院 醫師 全恩來 特設痔疾科 京城府齋洞一一番地 電話光化門九五三番

小兒科 具小兒科醫院 ドクトル 具永淑 [illegible]二丁目七二 電話光化門[illegible]

特効感冒良藥 괴구도ー그 네오페독신 本舖 藥種一般 衛生材料 處方調劑 三省堂藥房 京城府鍾路一丁目 電話光化門八一六番 振替京城六四六三番

朝鮮京城鍾路一丁目六二 遼陽預升英華補公水製造本舖 株式會社 模範賣藥商會 電話光二〇七七番 振替京城七一二一番

京城鍾路三丁目二五番 小兒ビリン 養兒散 淋滅 本舖 博愛堂藥房 電話光化門一七七

京城鍾路二丁目(塔洞公園正門西側) 天風堂藥局 藥劑師 金尙謹 電話光化門二二四四番 振替京城六一一二番

別府淋藥代理店 白楊堂藥房 京城府鍾路二丁目 電話光一九一三番

京城府鍾路二丁目七七番地 處方調劑 工業化學藥品 有名賣藥 高級化粧品 醸造用藥品 鍾路藥局 劉載明 電光二四〇九番 振替京城一四九五七番

京城府仁寺洞七五 富仁藥房 電光二六〇三番

京城府授恩洞三十二番地 百根肝腫治氣風 腫仙膏 嬰兒丸 本舖 製造 朝鮮商會 電話光化門長一七八五番 振替京城一〇三八六番

ヤマトヤ商店朝鮮特約店 富士化粧品 工業用藥品一式 玉圓商會 京城古市町四三 電(本)七一七

京城府本町一丁目 合資會社 山岸天佑堂

腫氣特効 靑山膏 ピベッコ 主任藥劑師 咸承英 靑山藥局 電光一二七一番 試驗用 郵送料二錢

非常時日本의展望

政治經濟軍備의總觀

咸尙勳

重疊하는外交 關係의重大化

荒木陸相

一九三一年 九月十八日 滿洲事變을 契機로하야 日本은 前古未曾有의 非常時에 逢着하얏다. 過去 三年間에 當한 日本의 對外的 잇對內的 情勢는 日本의 建國以來 生起한 諸苦難을 合친것만하다.

九、一八事變이 이러나자 米國은 不戰條約, 九國條約을 방패로 내세우고 干涉하기始作햇다. 國際聯盟은 亦是 日本軍의 行動을 侵略行動이라하야 日本의 滿鐵附屬地로의 撤退를 要求하고, 畢竟에는 日本側의要求로現地調査團을派遣키로 決定하얏다. 翌年 即 一九三二年一月 上海事變이 이러나자 米國은 亞細亞艦隊를, 英國은 東洋艦隊를 上海에 派遣하야 英米가 今時로 日本을 相對로 戰鬪를開始할뜻이 보여ㅅ다.

三月 滿洲國 獨立의 뒤를 이어 五月十五日에는 陸海軍人에 依한 大테로事件이 이러나 政友內閣대신에 非常時擧國內閣이 들어섯다.

渡中한 聯盟調査團은 七、八個月을 滯在하며 五、一五事件과 九月 十五日의 滿洲國承認을目睹하얏다.

歸國한 聯盟調査團은 對中調査報告書란것을 聯盟에 報告하고 滿洲國不承認과 日本軍의 滿鐵附屬地로의撤退를提議하얏다.

聯盟은 理事會, 十九個委員會, 總會를 열고 日本의 撤兵及 滿洲國不承認을 勸告하고, 日本이 듯지안코매 今年二月 마침내 總會는 四十三對一이란 絶對多數로 前記二案을 可決하얏다.

最惡의 境遇를 豫想햇든日本은 二月二十四日 脫退를聲明하고 代表를 撤歸하야 完全한 聯盟脫退國이되엿다.

이러는 동안에 米國은 大西洋艦隊를 太平洋岸에 集中하고 中國은 長城方面에서最後의 一戰을 試하얏다.

北滿國境에 잇서서의 日蘇關係는 날로 險惡하야 十月蘇聯은 所謂『日本軍에 依한北鐵占領計劃』이란 怪文書를發表하고 十一月七日 蘇聯革命紀念式席上에서는 人民委員長몰로토프氏가 日本을「宣言업시實行하는 戰爭國이니 蘇聯은이非常侵略에對한 準備가 잇서야한다」하야 日本의感情을 刺戟하고同十一月에는 日本軍用機가蘇領을侵入하얏다하야 日本에抗議하얏다.

이 危急한 日蘇關係에 잇어서 米國은 蘇聯을請하야 一週間內에 米蘇國交를 恢復하고 써 米蘇의 提手를되하는 것처럼 뵈엿다.

一九三五年의 危機와軍備問題

◇ 그러나 日本의 當한 國際的 情勢의重大性은 過去及 現在의 問題가아니다 아니도리혀 將來에잇어서 몃倍더하다 할만한重大性을 띄엇다.

中國은 方今 北中交涉後使節을 日本에復歸시키고表面沈默을 지키나, 將來의日中關係를 생각코 所謂 航空 四個年計劃을 進行中이다. 同計劃에 依하면 日本의空襲에備코저 飛行機 三百餘臺를 完成한다 한다.

그리고 一九三六年 十二月末日은 一九二二年 華府條約의 効力喪失日이요, 一九三五年은 倫敦條約을 改訂코저다시 軍縮會議를 開催하는해다.

主力艦에 잇서서 英米五, 日本三의 比例와, 補助艦에 잇서서 英米一〇、日本七의 比率을 그대로 延長하자함에 잇서서 英米日 三國이 果然 步調를 가티 할터인가하는것은 누구나疑心한다. 아三國間의 妥協이 不成立되어 建艦競爭이 再演되리라는것은 一般 評論家의 一致한바다.

況一九三五年 三月은 日本의 聯盟脫退 滿二周年에 該當하므로이것을機會하야 英米가一九二二年 華府軍縮會議에서 온갓 外交 問題를 解決하듯이 南洋委任統治地의 返還과 滿洲國問題의 解決을 要求할

軍備充實과赤字豫算의行進

◇ 이와가튼 國際上 重大情勢에 臨하야 日本은 不得已軍備를 充實히 하지 아니치못할 事情에 處햇거니와 果然 現象은 어느때까지 繼續될것인가。

齋藤首相

將來는 아지못하거니와 一九三五年 軍縮會議가 終結되기까지에는 이 軍備充實問題는 年年 減少할바를 모를것이다。 아니 一九三五年의軍縮은

會議는 結局 失敗에 歸하야 建艦競爭을 再演할것이 事實이므로 軍備充實은 今後의大勢다.

軍備充實이 大勢라면 財政에 미치는 影響은 어떠한가 九年度 豫算은 二十一億 餘萬圓이다. 그런데 歲入은겨우 十三億餘萬圓에 不過한다。 그러므로 남어지 八億圓이란돈은 赤字公債에 依할밧게 업다. 아니 朝鮮 其他 特別會計의 赤字公債까지 合하면約 十億圓의 赤字公債를 發行하여야한다。 그러므로 八年末現在 公債發行高를 八十億이라하면 昭和九年에는 九十億이 되고 昭和十年에는 百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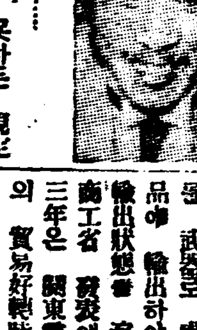
公債 百億圓이란 돈은 적은 金額이 아니다。 그利子만 年 五分으로 잡드래도 五億圓에 達하고 이것을 爲替의 低落된 今日로 計算하면 近七、八億이 될지니 年歲入十二、三億을 上下하는 日本現下의財政狀態로서는 그利子支拂에도 相當한 苦痛을 感할것이다. 況萬一 一九三五年(昭和十年) 軍縮會議에서 軍縮會議가 決裂하야 建艦競爭이된다면 現在 三萬五千噸以上의 軍艦을 建造치 못하든 規定이 깨지어 五萬噸級 軍艦은 例事로 지을지니 軍艦 一隻에一億圓이 要하는지라, 艦齡八年으로잡고 平均一年 二隻의 新艦을 짓는다면 二億圓식을 要할지니 彬大해지고 財政에 如何히 影響될것도 預斷할수잇을것이다。

것을 推測키不難하나 日本은 默默히 이에 從順할것인가.

이것으로서보면 日本의 一九三五—六年의 危機라는것은 現實的問題로 되어왓다. 그러므로 外交國防問題를 協議한 五相會議에서 陸海兩相은 이點을 極히 强調하야 『外交를 되도록 第一主義로하나 他에 依賴치안는 國防을要하기로 되고 따라 豫算閣議에서는이 것이 盛히 論議되어 藏相對陸, 海兩相과의間에는 數次激論이잇섯거니와 畢竟, 陸軍費 四億五千萬圓、海軍費 四億九千萬圓 · 合九億四千萬圓이란全豫算의 約五割의 軍事費를支出키로 하엿다.

이 軍事費의 內譯은 秘密에 屬하는것이 만으므로 詳細한바는 發表치 안으나, 第一次 要求豫算에 依하면 陸軍은 新規要求 一千四百萬圓同上繼續費年度割 一千二十四萬圓, 作戰資料整備費 一億八千萬圓, 滿洲事件費 一億六千萬圓, 國防充實費 二億一千六百萬圓이오 海軍은 第二次補充計劃으로서 航空母艦 一萬噸級 二隻, 六吋巡洋艦 八千五百噸級 二隻, 機雷敷設艦 五千噸級 一隻, 驅逐艦 一千四百噸級 十四隻, 潛水艦 六隻其他 制限外 艦艇으로 給油工作, 潛水母艦 各一隻과 水雷艇, 驅潛艇 各四隻 合計實로四十七隻을建造한다한다. 그뿐아니라 國防은 單純한武器와 彈藥과 軍人만으로 될것이 아니오, 一般國民의 精神的 支持도 伴해야 한다하야 陸相은 內政會議에서 盛히 農村의救濟와 農村의 工業化를 主張하얏다. 아즉 農村救濟에對한 具體案이 決定되지못하얏거니와 萬一 이것이 成立된다면 農村의 精神的支持 잇農村의軍需工業化가 어떤 程度로 實現될것은 明瞭한 事實일것이다.

高橋藏相


廣田外相

財政의逼迫과 貿易策의今後

◇ 이에 對하야 或은 非常時課稅說이 나오고 增稅說이傳하지만 아즉까지는 이것이實現될 希望은 적다。 그대신貿易을 盛히하야 外國서 資金을 多大히 輸入하자함이 現下의 輿論이다。 그리하야高橋藏相은 일즉金輸出禁止에依하야 低落된爲替價格을더욱더暴落치못하게하고저 爲替管理法을 制定하고、 이爲替의 低下를 武器로 盛히 外國에 商品을 輸出하야 近年에 업는 輸出狀態를 說하는 中이다。

商工省 發表에依하면 一九三三年은 關東震災以來의 初有의 貿易好轉時代라 한다.

그러나 日本品의 如斯한進出反面에는 激烈한 反駁이잇다. 英本國을 비롯하야 印度、濠洲、南阿等 諸 自治領及植民地는 對抗을 結成하야 斷然 外國品에 高關稅를 設置하고 用度가튼것은 七割五分의 高關稅를 實施하얏다。 그뿐아니라 世界列國은 모다 日本品의 進出에 威嚇되어世界二十五個國은 모다 日本에 輸入禁止 輸入制限 輸入許可 割當稅 爲替管理等의手段을써서 日本品을 防遏한다。 그러므로 日本品도 畢竟阻止될運命에 逢着치아니치못할지니高橋藏相이 다시貿易管理制度를考究中이다한은 這間의消息을窺知할수잇을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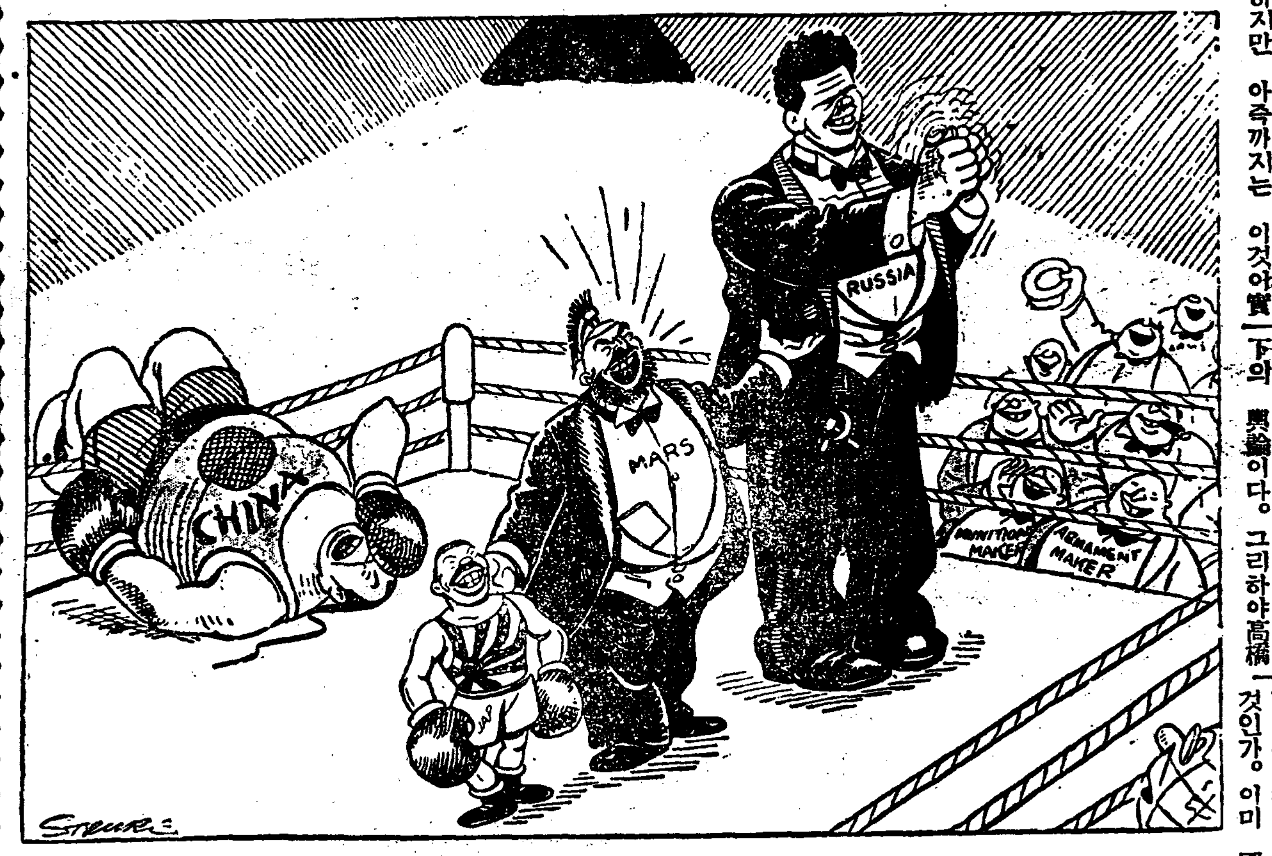
國難聲中과쇼的勢力의擡頭

◇ 이와가티 國際情勢는 軍備를 要하게하고 軍備의充實은 必然的으로 財源을 要求하게되어 爲替管理, 貿易의 管理에까지 이르지 아니치못하게되엇거니와 萬一 이것으로써도 그 財源의 缺乏을 招來할때는 如何한 手段을 取할것인가。 이미 國外에 對한手段이盡한다면 國內서 增收를 斷行치안을수 업슬것이다。 그러나 現內閣은 增稅를 不肯하는것은 勿論이나, 그때에이르면 資本主義를 是正하는第三勢力 即 軍閥乃至 其他의 파쇼的勢力이 나오지안을가생각된다。

後藤農相

파쇼勢力의 擡頭는 이미그 起源이 오래다. 五·一五事件이니와 그後에 展開된 無産黨의 右傾, 中野正剛一派의 右傾, 國本社, 其他士官, 靑年團體等의 擡頭, 國民聯合運動等은 다그一端이다。 이 個別的으로或은 獨立的으로發生、擡頭하는 파쇼勢力은 只今에잇어서는 完全한 勢力을 가지지못하얏으나 國內的으로 一層 産業, 思想, 敎育 其他가 一層 統制되고 밧으로 國際情勢가 一層 切迫하야지면 이諸勢力은 그中에 도가장 큰中心勢力에게 或은 吸收되고 或은 附隨되어 一個의 中心勢力이 完全히 統制될것이 아닐가。 昨今數年內의 情勢는 그過程임을 如實히 證明하고잇다

一九三一年 九月十八日 柳條溝의 一發의 爆彈소리와 아울러 日本의 對國際情勢는나날이 急迫해지고, 對外的緊迫은 自然 國內의 緊張을强要하야 非常時日本을 一層 緊張케할뿐이라 果然一九三四年은 무엇을 約束하려는고?(終)



◇ (極東의챔피온) 中國君은 째판君의强한 편취에 단번에낙아
◇ 웃當하고쓰러젓다。 名審判마ー스(軍神)君이 그다음그러와서링
◇ 에登場식한巨軀의重量體選手는、 싸베트君
(極東의蘇日關係를諷刺한 英國데일리엑스프레스紙의漫畫)

日本外交의轉機 (上)

金明植

一

孤立日本 國難 國家非常時 等等 요새만치부르지지는소리이다 그러나 그것은 誇張도아니오偶然도아니다 世人은目下의國際情勢는 大戰前과彷彿하고 日本은 當時의獨逸과恰似하다고말한다 前駐日獨逸大使는 日本의某大官을 向하야『現在의日本의地位는 大戰前獨逸과彷彿한것이잇는데 當時獨逸은 한갓興奮하야 注意가不足하엿기때문에 마츰내英國의術中에빠젓스니 이제日本은特히이것을注意함이 必要하다』고말하엿다 그리고世界列强의利己的排他的의 軍國組織은 希臘聯盟의 都市國家보다도 法한것이잇다 여긔서國際聯盟의機能및將來를 넉넉히알수잇다 希臘聯盟의諸都市는 偏狹한利己的인 愛國心에依하야 互相攻伐함으로써 마츰내거의聯盟을破壞하고 그와同時에저스스로歷史舞臺에서 退場하엿섯다 그런데 國際聯盟은 希臘聯盟과가튼 治國家的組織도아니오 또同一民族의 聯盟도아니다그럼으로 그가비록希臘聯盟의波斯와가튼 敵이잇슬지라도 一致한行動을取치못한것은 누구나생각하엿든바이오 또이제獨逸의前轍을 疾走하는것은 必然한일이다

二

大戰前國際情勢는 現狀維持와現狀打破의二大努力이對立衝突한修羅場이엇다 그리고現狀維持의國際努力은英國이中心이오 現狀打破의中心努力은獨逸이엇다 勿論 英國을中心으로한國際努力—聯合國側에는現狀打破가 利益인國家가잇섯다 日本은그中의하나이다 또獨逸을中心으로한國際努力=同盟國側에는 現狀維持가利益인國家가잇섯다 土耳其가그中의하나이다 그러나 저들이저의利害와相反한努力에協同할것은 將來의利益및地位를保障하기爲함이엇다 다시말하면 現狀打破가저의利益인日本이 現狀維持의英國과協同한것은 後日의現狀打破를爲한地位를獲得하기爲함이엇고現狀維持가저의利益인土耳其가現狀打破의 獨逸에加擔한것은 後日의現狀維持를保障하기爲함이엇다 그런데大戰의結果는 同盟國側의敗北와함께土耳其의企待는水泡로도라가고日本의要求는着着實現되엇다

(以下一百五十行中略)

지금까지 日本의外交政策의基調는 現狀打破를目的하엿다 後進한新興國으로서 必然한政策이다 그러고 압흐로도 이政策을 더욱擴大强化할것은日本의國情이決定한바이다 이미彬大해진國家機構와 産業및軍事組織과 또年年增加하는人口問題는 現狀打破가아니면 自體의進步는勿論 現狀도維持할수업다 모든生命體가進步가아니면 退步이지마는 特히日本의現狀은 그것이顯著하다 急速度로疾走하든汽車가 별안간停車하면 後退하는速力도强大한것과가치 그리고 그럼으로 日本의外交政策은 現狀打破로一貫할것은 避할수업는現實이다 이까닭에 日本의國際的孤立은 압흐로도免하기어려울것이다 그런데所謂幣原外交는 消極的現狀打破이오 田中外交는 積極的現狀打破이오 이제廣田外交는 幣原外交의殘骸를廓淸하고田中外交의基調確立을努力하고잇다 그러나이미滿洲國의 承認에依하야 打破한現狀을維持함이 緊急한 現狀인만큼 이期間에잇서 現狀維持의 協調的態度를表明치아니할수업다 그러고 世界各國의國內및國際關係가 險惡할과함께 그를收拾하기爲한努力이크다 일즉英國은 保守黨을胴體로한 맥드날드內閣이 組織되엿고 지금까지維持되는것과米國의 民主黨政府가 出現한것과 最近佛國의內閣이 同一한問題로四次나 變動되면서도 政權이右黨으로 넘어가지아니하는것은 國際的平和政策을 實行한다는 有力한表證이다 또米國이 蘇國을承認하고 英米佛伊等强大國의 勸誘및 調停에依하야 東歐諸國과露西亞와의不侵略條約이 締結된것과大猿間의 從佛關係가 圓滿해진것은 저들의 平和政策의 實現이다 그런데 이러한國際的 氣圍氣中에서 日本만이 非協調的態度를 取할것은 日本의利益이될수업는일이지마는 그氣圍氣中에 融和할수업는것은 以上列强의 協調政策의動機가 日本을 孤立化하기爲한 까닭이다 그러나 이제日本은 從來의孤立한地位를打開하기爲하야 저들의協調的氣圍氣中으로들어갈必要를늣기게되엿다 英米等國의卑劫한 態度는 반다시明白해젓다 이제오히려極東問題에對한 세삼스러운行動은 다시압흐로 저들의 屈辱的退却을準備하는前奏曲이다 米國은 太平洋에나와잇든艦隊를다시 大西洋으로廻航함에當하야 이러케말하엿다「우리가 太平洋에서 海軍練習을擧行한것은乘組員의家族이 太平洋沿岸에잇슴으로 그들을위로하기爲함이오 經費를節約하기爲함이다 이제는 從來의根據地로도라간다」고 그러나 太平洋沿岸의加洲에大油田이잇스니 經費節約이라는口實을맨드러서 卑劫한退却을 辯護할수잇다 그리고米國보다도 英國의態度는 더軟弱하다 國內및國際關係가米國보다도 더複雜多端한까닭이겟다 저의國會에서 日本商品이英領印度方面은勿論이오 英本國에까지 侵入한것과또그中에는商品을僞造한것도잇다는議員의質問에對하야 商相은 强力日本의感情을害할것을두려워하는辯明을말하엿다 또日印協商도日本보다더만흔英印의讓步로成立되고 滿洲政府의有力者가明春日本訪問을傳한다

이러한英米의態度를看破한日本外交는 日本을孤立식히기爲한저들의協調的雰圍氣中으로트러갈自信이생것다 마츰前駐米大使出淵氏가歸來하야協調外交의必要를論함에 滿鐵改造案을默殺하고그의不當함을唱言하엿다 勿論滿鐵改造案의不當한理由는 國內問題로써 說明하엿다 그러나 滿鐵改造의本義가滿鐵로써 滿洲經濟의 首腦部를삼으면 滿洲政治의 首腦部와對立됨으로 그를避하기爲한것이다 그리고滿洲國과의關係가現狀에끈친다하면구태여滿鐵을改造치아니하여도 큰支障이업지마는 一步를更進한다면兩頭政治가 되지아니할수업스니 滿鐵改造는一步를 更進하기爲한準備工作인것이다 그런데 軍部의만흔時日과 精力을犧牲하야 맨드러노흔 滿鐵改造案을 一朝에破棄한다는것은 日本의領土的野心이업슴을表明함에잇서서 조흔材料이다 또荒木

(以下下段에繼續)

陸相이 明年度豫算中 特히滿洲事件費一千萬圓을 減算으로돌린것도 這間의消息을말하는것이다

三

그리고中國의 福建政府의出現이 西南派의 使嗾인것가치 宣傳되고 또그에對한 現下의日本의 態度가 冷靜한것은 理由를생각할수잇다 福建은 臺灣과一葦帶水의 地域이오 또中部中國에 잇서서 日本人 및臺灣人의 經濟活動의 中心地인데다 特히福建政府의 中心勢力인 十九路軍이 從來福建에 駐屯하고잇섯다할지라도 要塞와가튼 困難性을가진 武力이아니니 特히 兩勢力(南京軍과共産軍)의 中間地帶를 掌握할必要가 업슴에不拘하고 十九路軍을中心으로 한一派가 福建에 政府를세운것은 地盤關係로만은 볼수업는일이다 十九路軍이란 일즉上海戰爭時에 日本의 注目을 끄은바이잇고 또그것이 中心이되어 臺灣과 隣接한 福建에 政府를 세웟스니 日本에 挑戰的行動이라하면 저들의어리석은 자란을 嘲笑치아니할수업고 그러치아니하다하면 저들의背景이 어데 잇는지 알수잇다 그리고 福建政府의 壽命長短은 그背景이 무엇임을 잘證明할줄로안다

從來日本은 日中關係로因한國際問題가 생길때마다 列强에게對하야 中國은 統一된 近代國家의 資格이 업슴을 말하엿고 압흐로도 이말을 力說할必要가 잇는機會가 만히잇슬것이다 그리고 中國의 現實이 그러타고할수잇고 特히 滿洲國問題를 解決함에 잇서서 적어도 『解決할동안만은 中國이 亂麻와가타』되는것으로 不忍히생각할만한 宋子文의 仁을가지고 잇지아니한것은 事實이다 某博士는 콘소리되,데드,풀에쓰,오프、아메리카北京通信員에드카, 쓰노氏에게向하야 『支那를 經濟的으로 救하려면 滿洲國과 姉妹國『漢國』을 맨드러서 이二國에 歐洲의市場보다 더큰市場을 建設하지아니하면 아니된다』고말하엿다 그리고福建政府가 出現하기直前에 特別한 使命을 지고 中國에 渡去한 杉村陽太郞公使가 福建의 樞要人物을 訪問한일이 잇다고하거니와 杉村氏는 駐米大使의 任命을 固辭하엿다 엇더한私的事情이 잇섯는지 알수업스나 協調外交를 表明할必要가 잇는 時期에 잇서서 일즉 中國을 周行한 人物이 忌避된것은 생각할수잇는일이다 그리고 駐蘭公使이든 齋藤博氏가 駐米大使로 任命되엿다는 消息이 米國에 傳함에 當者의人物은 歡迎하고 軍部의 持支로 懸念한다고하엿다 이것은 勿論 齋藤新任大使를 通하야 日本外務省의 協調的 態度는 是認하는 바이지만은 果然 軍部도 協調的 見解를가지고 잇는가 疑心하는 米國人의 短見이다 여긔서 齋藤氏의 人物및 思想은 말할 必要가 업지마는 前駐米出淵大使의 解任은 幣原外交의 淸算이오 또 齋藤氏는 第二松岡洋右의 稱이 잇는 人物이다 國際聯盟에서의 松岡洋右와 가티 米國에서의 齋藤博은 今後의 問題이다 그리고 軍部支持의 懸念은 無用이다 그것은 幣原外交 淸算의 既定方針 實行이오 新進氣銳한 齋藤氏가 그任에 當한것은 協調의程度를 表示한것이다 또露西亞는 極東에 外交局을 設置하야 極東問題를 外交的으로 打開할 方針인것을 傳한다 일즉 日本이 主役이 된 西伯利亞의 聯合軍의 共同出兵時에 極東共和國이라는 緩衝地帶를 設定하야 日露間의 國交回復에 効果를 나타내일이 잇거니와 新設한다는 外交局도 그러한 必要로 나오는것임은 틀림업는 事實이다 (繼續)

醴泉

醴泉官公吏一同

醴泉酒造株式會社 電話四六番 振替京城一三三七八番

醴泉麯子組合

醴泉邑南本洞 共濟醫院醫師 鄭道浹 電話一三

株式會社 大邱商工銀行醴泉支店

醴泉 道會議員 李應鉉

醴泉邑南本洞 德興洋行染色工場 黃義洙

醴泉 都ゴム靴散賣 富信ゴム靴商店 李昌壽

朝鮮日報醴泉支局 顧問 金炫鍾

知保面事務所

下里面事務所職員一同

上里面事務所職員一同

知保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醴泉邑 普成堂乾材局 朴宗夏 主務 朴炳龍

醴泉 肥料木材官鹽直輸入商 安成商會 電話二四番

醴泉邑 朝鮮料理 芙蓉館

朝鮮日報醴泉支局顧問 金碩熙

朝鮮日報醴泉支局長 鄭鍾德

柳川面事務所 面長 尹哲鏞

豐壤面事務所職員一同

普門面事務所職員一同

龍門面事務所職員一同

虎鳴面事務所 面長 李中寧

同面 書記 李炳根

同面 書記 李明敎

醴泉郡 龍內寺

醴泉郡鳴鳳寺

龍門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柳川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醴泉 金喜守

醴泉 中島醫院

醴泉 朴洙雲

醴泉 穀物商 朴鳳湘

醴泉 穀物商 張又世

醴泉 蠶業組合 理事 朴士弘

慶北印刷所 電話五七番

醴泉 食料品 申泰英

醴泉 黃永璜

醴泉郡龍門面 大昌酒造場 金淳基

醴泉郡 開浦面京津酒造場

醴泉上里 釀造場 朴暎緖

醴泉郡柳川面 中坪酒造場 尹泰羲

醴泉虎鳴面 語川酒造場 崔致文

醴泉 普怡堂乾材藥局 朴貞和

醴泉 南一堂乾材局 崔光烈

醴泉 司法代書人 蔡鴻哲

醴泉 司法代書人 黃柄斗

醴泉 理髮館 李康英

醴泉 月星堂時計店 河大興

醴泉 蠶種及朝鮮飴製造業 盧致敬

醴泉 南一自轉車店 禹今樂

龍門面內地洞 李錫和

龍門面上金谷 李完洛

龍門面上金谷 金秉

龍宮面長 權五明

蘇聯邦外交의收穫

一九三三年은 가장 多事騷然한해의 하나이엿다。온地球를 휩쓰는 恐慌風의 深刻化——이것이 根本原因이되야 國際的으로는 런던經濟會議、쥬네브軍縮會議等의 歷史的會合이 잇섯고 各國에서는 國內的으로 인프레이슌의本格化、軍備擴張의 表面化等의政策이 極度로 强行된他面에 내슌날리즘의風靡、블럭經濟의 擁頭强化等이 社會的 新現象으로 뚜렷이出現되엿다。

이모든 會合、政策 또는 新現象은 現下 政治的으로 經濟的으로 塗炭에 빠저잇는 各國國民이 當面한困境을 무슨 手段으로던지 打開하여보려고 汲汲하는 努力의 자취임은 拒否할수업는 事實이어니와 不幸하게도 그어느 하나마 成功되지못하엿고 또成功될 曙光조차 보이지못한곳에 一九三三年의 쓰라린歷史는 永遠히 人類의 不幸한해로 作別한듯십다。

그러나 방매에는 兩面이 잇다는 格言과가티 只今 世上에는 두가지世界가存在하엿다。이것은 觀念上의 存在가안이라 事實上의 地域的存在이다。그리하야 急작히 쏘다지는驟雨가 行客의게는 괴롭게하나 人力車軍에게는 고맙은 선물이 되는거와 마찬가지로 現存한 두가지 世界에도 한쪽에 不幸한일이 다른한쪽에 僥倖으로 되는일도잇다。

資本主義社會와 社會主義社會는 가튼世上에 共存하며서도 嚴然히 딴 世界를 構成하고 잇는것이 確實하다。그리고 現下 資本制社會의 深刻한 經濟的 大恐慌이 쏘베트社會主義聯邦에 잇서서는 以上舉例의 人力車軍에對한 驟雨에 該當한것도 事實이다。一九三三年이 資本主義 列國에잇서서는 國內經濟的으로 國際外交的으로 完全히 失敗한것이 嚴然한 事實이니만치 쏘베트聯邦에 잇서서는 國內經濟的으로 國際外交的으로 確實히 收穫한것이 또한 嚴然한 事實이다。記者가 여게서 簡單히 討究하려는것은 後者 即過去一年間의 蘇聯의 外交的收穫에 關하야서다。(漫畵는 蘇聯共産書記長 스탈린)

韓◦普◦容 ☆

外交政策의 根本的轉換

쏘벳트聯邦은 革命直後에아즉 그政權의基礎가 薄弱하엿섯슴에 不拘하고 分에넘치는 **世界革命** 의 遂行을計劃하고잇섯다。勿論이것이 國內革命成功의 成勢的餘波이엿던것도 어느程度까지는 事實이엿지마는 當時 蘇聯爲政者들이 資本主義國家의 基礎를 너무薄弱하게 誤算한點도 업지안엇다。그러나 未久에 그들은 如上한認識의錯誤를 깨달엇다。더욱이 數年을繼續된 天災大旱魃의結果는 軟弱한新國家의 經濟的乃至政治的地盤을危險케하엿슴으로 레닌의新經濟政策發表를契機로 勞農쏘벳트는 그政策의目標를 世界革命으로부터 自體의 **基礎確立** 에 轉換식혓다。이것은 過去十有餘年來의 蘇聯의 一貫한政策으로 第一次五個年計劃이 그것이며 第二次五個年計劃이 亦然하다。

쏘벳트의 共産主義宣傳을 憂慮하는 아메리카의엇던政治家에게對하야 리트비노브 蘇聯外交人民委員長은 이러케말하엿다。

『萬若우리들이 쏘벳트러시아를 成功식히지못한다면 外國宣傳에 幾十億金을 消費한들 그것이 우리들에 利롭을것이무엇이잇는가?反對로 러시아가 現制度下에서 훌융히 꼿치핀다면 푸로파칸다는 所用업시 그以上의 効果를 내일것이다』

가튼意味의말을 일즉이 스탈린도 한적이잇섯다 即蘇聯爲政者는 本來의 世界革命의 意圖를 抛棄한것이아니라 그 **手段方法** 을 直接的으로부터 間接的으로 轉換식힌 同時에 그리하는것이 가장安全하고 또 効果的이라는뜻을 曆曆히漏洩하여왓다。이것은觀察者에 따러서는 그들의資本主義國家에對한 屈服、同志에對한辯明으로볼수잇스나 如何든 今日까지의 쏘베트聯邦은 內的事情으로나 外的關係로나 그리하지안을수업는 境遇에處하게되엿섯고 또그리하는것이 蘇聯으로하여금 보다더 有利한地位에 引導한것만은 否認할수업는事實이다。

得意의리트비노브

平和政策의 原理와實際

現在 蘇聯의軍備는 어느列强에比하야도 遜色이업슬뿐안이라 特히 最近에와서軍備擴張의率度는 다른 어느나라보다도高率的이다。最近蘇聯을 訪問하고도라온 **佛國航空相** 피에르코트氏는十二月十三日 이러케말하엿다。『쏘베트러시아의 航空界 特히空軍의活躍은 顯著하야 今後五個年後 러시아空軍力은 全歐羅巴의 空軍을合同한程度의 實力을보일것이다。』그런데도不拘하고쏘베트當局은 恒常 입으로는平和政策의『철폰』으로自任한다。

所謂『怪文書』發表以來의蘇聯의對日的態度、革命十六週紀念日의모로토프氏의演說、西伯利亞方面에의赤軍의集中、最近傳하는『極東國境地帶의晝夜防空工作』及 **極東地方** 의農村勞兵士의待遇改善令發表等等의 消息에徵하야보다면 勞農쏘베트로하여금 平和政策의『철폰』으로 볼사람은 하나도업슬것이다。

그러나 十月革命以後于今까지 드려난 十六個年間의 쏘베트外交史는 平和政策으로서 一貫한것으로 볼수박게 업게되엿다。反戰運動은 本來 無産運動의 一構成要素요、勞働者國家의 當然한 政策임으로 蘇聯當局이 從來부터 嚴厲히 反戰平和를 云謂除明하여왓다하야 하는말이안이라 쏘베트聯邦의 外國과의條約內容이此를瞭然히說明하고 잇는까닭이다。

蘇聯建國以後 外國과의條約締結이잇섯다면 그것은休戰、承認、通商條約이안이라면 相互不侵略條約이 잇섯슬뿐이엿다。보라 라팔로條約(一九二二年四月十六日)以後 二十六個國과의 **國交成立** (承認)及通商開始의 條約以外에는 西南國境方面十餘個國과의 不侵略條約이잇슬뿐이안이엿는가?

쏘베트聯邦의 平和政策은 쥬네브及런던軍縮會議를 通하야서도 明瞭히드러낫다。

一九二七年 쥬네브軍縮會議에서 蘇聯代表 리트비노브氏는 처음에 『完全軍縮』을 主張하다가 그것이可能性이업슴으로、乃終에는『部分的軍縮』을 提案하엿스나 그조차 採用되지못하고 軍備縮少會議는 結局 軍備擴張會議로 되여버렷다。一九三一年에는 所謂 『經濟戰爭』의 武裝解除』를提案하엿스나 그亦是 採用되지못하엿다。그리고또蘇聯代表의 提案이엿든『侵略者의定義』도 가튼運命을밧어섯다。(쥬네브에서는 비록、蘇聯提案의 『侵略者의定義』를 採決치안엇지마는 一九三三年 런던經濟會議中 十一個國이 蘇聯과가티『侵略者의定義』에對한 아그리-멘트가잇섯다。)

國力充實과 國境의保障

大戰에依하야 無慘히破壞되리시아國家經濟는 十月革命以後 볼쉬비키-의手中에 政權도라가자、世界 **資本主義** 列强은 그의 經濟回復을 援助하여주기는姑捨하고 그初期에잇서 聯合國側은 積極的으로 蘇聯政府倒壞를 企圖하엿섯고 쏘베트內政이 어느程度까지 基礎가튼튼하여진 近年에이르러서도佛蘭西、다음에는 英國의資本主義政治家들에依하야莫斯科政府의顚覆陰謀가 繼續되엿섯다。

이러한 情勢下에 政體를달이한 列國이 쏘베트經濟回復을爲하야 直接間接(物質的또는精神的)으로 援助하여줄理는 萬無이엿다。反面에 **外的壓迫** 이 甚하면甚할사록 蘇聯自身은 무엇보다도 經濟的基礎確立의必要를切實히 늣기게되엿다。그리하야 그는有史以來에 처음보는 彪大한産業計劃 即 第一次五個年計劃、第二次五個年計劃을發表實行하야 外來資本의助力이 업시도 能히 非常한收穫을보와 同事業計劃實行 不過六個年에 인제蘇聯은 世界一流의 工業國으로 昇級하엿다。

요즈음와서는 모스코政府도 갑음 國際政局에『갈공의蒙語』를 敵視하지마는 第一次五個年計劃이完了되던再昨年까지도 그態度에잇서서 忍耐와謹愼으로 一貫하여왓슬뿐안이라直接 **利害關係** 에잇서서도적지안은 犧牲을覺悟하엿던것이다。滿洲事變의結果로 北滿一帶의 쏘베트努力範圍에 적지안은 異狀이생긴것이 事實이니만치 列國은 蘇聯態度를注目한배잇섯스나 그는結局 動치못하엿다。모스코爲政者는이가튼事實을 指摘하야 蘇聯의 傳統的平和政策宣傳資料에 利用하여지지마는 그러면 果然이것이 쏘베트平和政策의 發動的結果인가? 아니다。이와가튼 境遇環境에處하게되든 蘇聯政府는 온갓不滿을 참어가고 모든犧牲을覺悟하면서 外界資本主義國家사이에 政治的軋轢과 經濟的恐慌을 巧妙히利用하야 最近數年間 對外親善政策에 非常한成功을收하엿다。即 佛蘭西를爲始하야 핀랜드、에쓰토니아、라트비아、리톼니아、폴랜드、유고스라비아、체코스로바키아、루마니아、土耳其、아프가니스탄、波斯、伊太利等等 **十餘個國** 과 不侵略條約締結에成功하야 西南國境方面은 確實히 安全保障을엇게되엿다。

一等國化로 東方에進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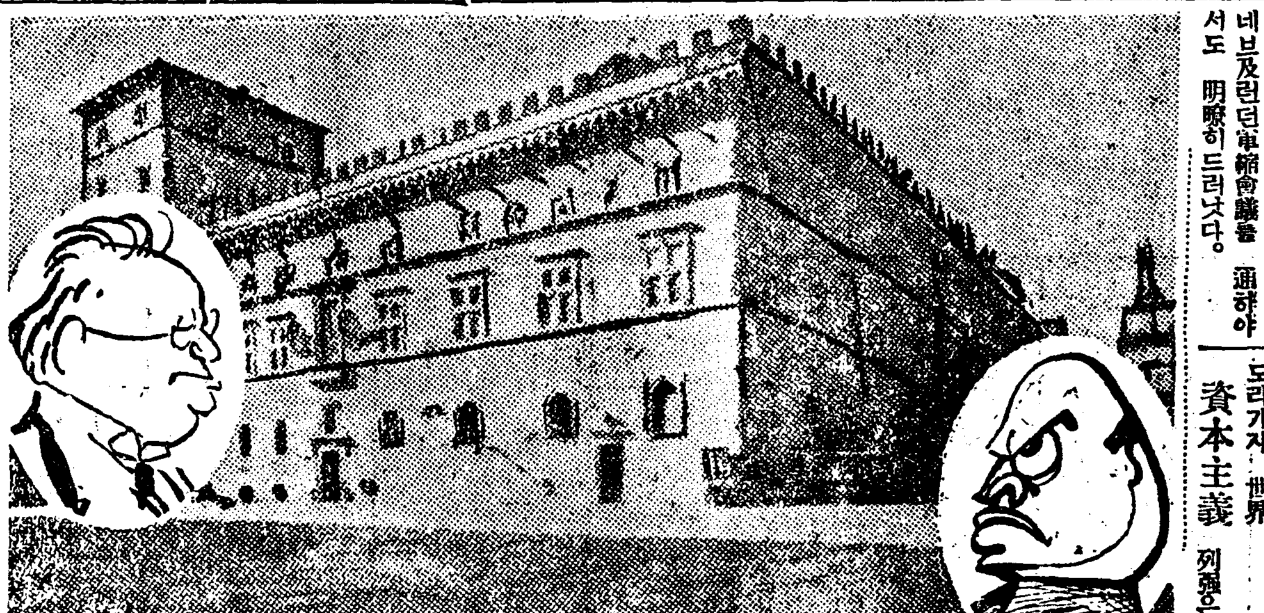
쥬네브에서 蘇中復交에 成功한蘇聯代表 리트비노브는런던經濟會議를 中心으로 **英蘇通商** 回復에 成功하엿고 다시 아메리카代表모레이氏와 會見하야 七月에이미 米國復興金融會社로부터七千萬弗의 長期信用貸付를어더서 蘇聯承認의 基礎工作을만드러노흔後 十一月十六日에와서 結局 正式承認을어덧다。以外에도 나치스獨逸의尖端的政策에依한 歐洲政局의 不安相을 利用하야 佛蘭西와의親善、伊太利와의接近、그리고 所謂 小協商國과의 緊密한關係等도 決코 적은 收穫이안이다。이러한 成功으로 西南國境方面에 安全保障을 엇게된蘇聯은 아메리카의 承認에 더욱이 큰힘을어더 今後에는 東進政策으로轉換될모양이다。아메리카의蘇聯承認은日本과衝突이라는 말도잇고 米蘇中秘密條約說도잇는 此際에昨今 **西伯利亞** 方面으로오는 뉴쓰에 자못險常치안은바도잇스나 此에對하야 여긔서는省略하기로 한다。

上述하여온 蘇聯의 外交政策은 一朝一夕에 된것이안이라 적어도 十餘年來의 傳統的性質을띄고잇는것이어니와그 成功點에잇서서一九三三年은쏘베트聯邦에서는 가장고맙은해이엿다。昨年一年의 蘇聯以外의 世界列强의 外交가 失敗에 도라갓다는 事實에對照하야 쏘베트外交成功이 더욱이 燦爛하게보이는關係도 잇겟지마는 實的으로나 量的으로보와도 昨年의 蘇聯의 外交的收穫은 革命以來 처음보는大成功이다。

昨年中의 蘇聯外交成功의實績을指摘하면二月에蘇佛不侵略條約의批准이交換되엿고三月에 **蘇土國境** 紛爭調整條約延長에關한 議定書가 안고라에서 調印되엿고 五月에 莫斯科에서 蘇獨議定書의 批准交換이 잇섯고 또羅馬에서伊太利와 通商及信用協定의 調印이잇섯고 七月에 倫敦에서 十一個國間에 侵略定義條約調印이잇섯고 또 西班牙와 相互承認及 外交關係回復에關한 通牒交換이잇섯고 九月에는伊太利와 親善、不侵略、中立條約이羅馬에서 成立되엿以外에 波蘭과 國境關係協定批准이 交換되엿고 또希臘과의 通商條約이 아덴에서 調印되엿고 十一月에는 아메리카及우르과이와 國交를 回復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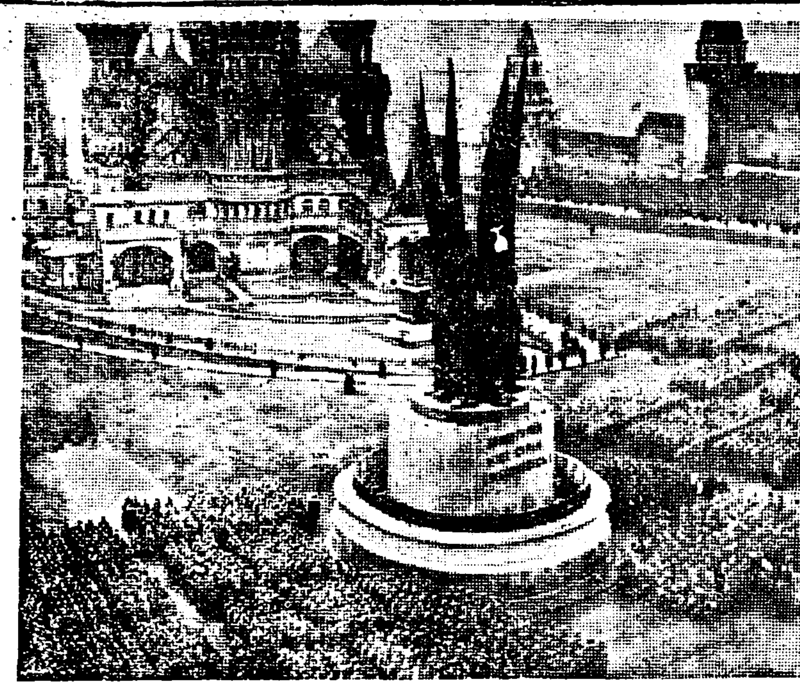
그리하야 一九三三年中 **全世界를** 驅亂케한 點으로는獨逸이斷然第一位를 占하게 되지마는 實際로收益한 點으로는 蘇聯이斷然第一位를 占하게되엿다。

『쏘베트聯邦이 政治的으로는 아메리카만한 影響을 줄수업다하드래도 經濟的으로는그와 同等의地位를 가질수잇다』는 말을 스탈린이 三年前에하엿지마는 인제와서는 政治的으로도 同等의 地位를엿보고잇다。다시말하면 알러-●듀랜티-氏의말과가티 一九三三年의 外交成功에依하야 蘇聯은二等國으로부터 一等國의地位를確實히取得하게되엿다는것이다。



팟쇼伊首相과리트비노프의會談 (中央建物은羅馬의바치간宮)

米蘇兩國의발레 (뉴욕타임스)



◇…莫斯科의赤色廣場…◇

蘇聯經濟의實績
五個年計劃成功과그前途 (一)

金世鎔

▲…紙面과資料의制限은 論題에對한 充分한記述을不能케한다。從來로 五個年計劃에關한 數字的紹介는 만엇스나 其實蹟(一九三二年度末까지)을主로한蘇聯의國際經濟에의 進出을論한것은 적은것이며 잇섯다하더라도 資料의不備로筆者는 不得已五個年計劃의實蹟中 가장局部的部門의 槪括的數字와 이에連關된方面의 若干情聚및 其前途의 槪觀에꼬치고저한다……▲

一

『蘇聯을 承認만하면 同聯邦은米國에 對하야 三億五千萬弗에 達하는 注文을할것이다 萬一이것이 實現되면 五十萬人의 失業者를 救濟할수잇다』…… 이는 米國이 十六年間 外債破棄、財産沒收、共産主義宣傳等으로 蘇聯不承認의 愚劣한 反對政策을 一轉하야 遂히蘇聯을承認하게된 重要한 理由의 하나이다 一九三五年度의海軍軍縮條約改訂會議에太平洋均衡을中心으로 日本을牽制하게될 米國의政治的工作으로 蘇聯承認을重要視할수도잇스나 米國으로서 蘇聯의强大한努力에 등을대이지안을수업게된 其根本意圖는外交的談判關係보담 經濟問題에 잇는것이事實이다

近來의 蘇聯이國際外交史에 驚歎할成功的記錄을남기면서 邁進하는家快性과妙味는 決코『리트뷔노프』의『뿌레인』에 잇는것이아닐것이다 無用한 饒舌과 紙屑만을남긴今春의 倫敦經濟會議以後 오직蘇聯만은 英國과의國交回復을비롯하야 佛、伊와不可侵條約의締結 土耳其及西隣諸國과親善關係의增進및侵略定義協定等 幾多의成功과收穫을가젓다 太平洋問題를爲한 九個國條約과歐羅巴危機의避衛針이되고저하는 四國條約에列强은 함께『쏘뷔에-트』의加入을要하게되니 이點으로보아世界의 政治的中心은 蘇聯에 매여잇는것으로볼수잇다。

二

如斯히 蘇聯의 國際的 地位가 强化된 其礎條件은무엇에잇슬가。무엇이 蘇聯으로하여곰 資本主義諸國을睥睨하면서 縱橫의外交策을用케하는가 엇지하야 列强은 다투어가면서 蘇聯에對하야 親善과 好意를 보이고저하는가。이는오직蘇聯의 國家的努力이 可畏할程度로强大化하고 今後로國際外交及世界經濟를『리-드』할 決定的베-스를 確保하게된까닭이다。端的으로는『五個年計劃의成功』이 根本理由라할것이다。勿論 資本主義國家自體의分解와 危機가 蘇聯을 强化케한 間接的條件이 되것도事實이다。

蘇聯으로 하여곰 今日을잇게한 産業五個年計劃은 어떠케立案되엇는가。

우리는먼저『레-닌』의『우리는壓滅할가 그러치안으면 先進資本主義諸國에追迫하고追越하여야한다……우리는五十年乃至百年이나 뒤써러저잇다 이것을十年間에 따라부처야한다。達成인가滅亡인가』……와『스타린』의『國社會主義建設可能論』을想起하리라 쏘뷔에-트政權이 樹立된後 十六年間 蘇聯의經濟政策은 다음의 三期로노뉘우니

一、一九一八年—一九二一年까지 戰時共産主義의强行的非常經濟政策

二、一九二一年—一九二六、七年의 復舊的(戰前)新經濟政策……國家資本主義로轉右한退却期이나 다음의 逆襲時代를爲한復修政策期

三、一九二七、八年—一九三三年乃至一九三二、三年以降의社會主義化經濟政策……

쏘뷔에-트國民經濟建設五個年計劃은 新經濟政策時代의 所謂統制의인計劃經濟政策과判別에서 社會主義的建設과逆襲時代로 轉向한具體的表現이다

五個年計劃의三大要點인

一、蘇聯의工業化에對한根本方針

二、農村의社會主義的再組織

三、國內經濟體系中資本主義的要素의克服과 社會主義的要素의强化……

에對한 說明은略하나 이國定以上의成功裡에 遂行되엇纖的푸로그람에서國民經濟의 平衡과推進에對하야 綿密한 統制와計劃을 基礎로한後閑却되어잇든 資本의開拓과發展이느진地方및 經濟部門의 急速한開發 市場에잇서 商品과物價及勞銀의平衡、工業과農業、都市와農村의生産關係及社會的經濟——와私的經濟의交互關係의圓滑및 淸渠의排除 國民生活의物質的—文化的水準의向上 資本構成의行程에잇서 國家對國民의 有機的聯關等을理解함에꼿치고以下五個年計劃에對한若干의數字와그實蹟을述코저한다

三

五個年計劃은 一九二八、二九—一九三二、三三年의五年間에 七百七十二億留—八百六十億留의巨額을 投下하야 그『綜合的計劃經濟의 豫案』을 遂行하는것인데 可驚할蘇聯의意志와 突擊은 이를四個年인一九三二年에 所謂『平準的豫定』에 到達하고 엇던部門은『樂觀的豫定』을 突破하야 冷笑와疑心中에잇는資本列强을 呆然케하엿다。(이五個年計劃의目標에 엄이遂行되고잇는第二次五個年計劃에對하야는後段에略述코이다)……八百六十餘億留의 巨大한資本의出處는어데인가 國民收入의動員에잇다。即國民收入의四二—四八%가 財源으로서 國家豫算에 動員이되고 이中三〇%가 前記의投下資本이되엇다。投下되는比率은 每年增大하야『五計의 初年度에國民收入의二五%가 (六〇三億留)一九三二、三三에는 三〇—三三%(二〇八—三〇〇億留)로 增加하엿다。國民收入은 初年度에임이 同年度의 平準的水準을突破하야 八億留의豫定超過를보이고 以後每年十一十六億留의收入超過를 示하엿다。約八百六十億留가 投下되其結果는 엇더한가。即

五個年計劃의實績은。

計劃의九一%가實現되고만은 工業部內(石油、機械、工業、泥炭其他)은『豫定』을超過한成績에達하엿다。萬一國際的性質의紛擾만 惹起되지안엇다면 남으지 九%는非難한遂行되엇슬것이다。以上九一%의實現이 가진바産業發展率은 年平均 二三—二四%로 가장 急激한 繁榮期(에엇든 米國이 年平均七—八%、帝政로서아의 四、五%에比하야 數倍의 迅速한비포를하겟다

謹賀新年

白川

永昌材木店 全斗永

白川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白川金融組合職員一同

白川ホテル 電話八番 一〇番 十一番

白川醫院 醫師 金壽天

㊂丸三運送部 西鮮物産商會 殼物大豆小麥 滿鮮雜穀 肥料叭 委託販賣 劉在德 李致源 電話一六番

朝鮮鐵道株式會社 白川自動車營業所 電話一四番

劉在崙 劉在衡 劉在冕 劉在鎬

白川溫泉合

白川穀物商組合

白川消防組 組頭 朴七星 小頭 吳現東 小頭 朴元奉 組員一同

釀造業 李逢春

銀川面事務所職員一同

白川警察官駐在所職員一同

白川溫泉驛長 畑間榮二

吳澤泳 電話一八番

上田村木店出張所 谷口兼造 電話二五番

藝妓 葛彩仙 同 金玉珠 同 蘇明花 同 鄭梅花 同 申英月

漢陽 藝妓 李 同 崔 同 禹 同 李 同 吳 同 丁 桃山仙山春 春紅月月玉紅

穀物貿易 精米業商 朴淵默 梁應煥 電話二八番

三井燒酒一手販賣 ⊖運送業 信源商會 主 劉基源 電話二三番

興産商會支店

劉斗煥

醫藥業 普春藥院 姜信英

中華料理 同昇館 電話二一番

布木肥料商 方致元 電話二七番

白川寫眞館

廣信自轉車商會 主 崔吉成

衡平社支社長 朴守天

冷麵屋 主 兌若山

李鍾院

交飯冷麵 李花屋 主 李立芬 取次電話二三番

金健

吳延

白川溫泉 朝鮮旅館 主 張基南

申鉉

張仙

紅峴市 光海醫院 院長 朴

紅峴市 永成 主 宋蓮 藝妓 金錦 同 韓愛

紅峴市 延成商

延安溫泉 海州旅 主 文應

延安溫泉 東洋旅 主 李光

延安溫泉 春山 醫 張

延安溫泉 長島

延安溫泉 溫井公普校 牟田

謹賀新年

大邱

啓聖學校長 玄居善

鑛業家大邱金台原

横町 秋秉和

西城町二丁目 朝陽無盡株式會社

本町一丁目四九 金裕植

聲樂家 林將春

十西町二 八公旅館 主姜建中 電一三二九

德山町一二六 大東食道園 電話六二

三製絲會社

上西町 三千旅館 電三八四

西城町二丁目 福來號綢緞布木部

海産物 達委托 業海産物小賣商組合 電九〇二

大興電氣株式會社

大邱南山町五 大邱 聖經學院

專賣支局

米穀取引所

本町 綢布 木緞商 池二洪商店 電話八八八

道知事 金瑞圭

達城郡壽城面事務所 職員一同

官公立中等學校長會

慶尚北道農會

達城郡廳

大邱府 金融組合理事一同

本町 泰昌商會布木店

錦町一丁目四 朝鮮運送株式會社大邱支店 支部長 守屋柳治

産業金融株式會社

南山町三八〇 染料合資 問屋會社 安興洋行 代表者 安興錫

慶尚北道立 大邱醫院

府廳職員一同

大邱府 朝鮮酒 酒造組合

道廳食堂

壽城 奏相龍

壽町三一 辯護士 咸升鎬 電話一〇二九

湯屋組合

卸商組合

商工會議所

京町二丁 辯護士 柳垶熙 電一九三

金玉培

大邱教會 牧師 趙龍 主日學校長 安興錫

東雲町 樂山醫院 醫學博士 崔日文

本町二丁目六二 三南旅館 主 金永煥

大邱公立普通學校補習學校 職員一同

本町 申錦紅

三笠町 大丸洋服店

南城町六四 辯護士 韓奎鏞

[illegible] 景春堂 電話九四 振替釜山五一六七

鄭海鵬

朝鮮金融組合 慶尚北道支部

米穀取引所取引員 島田金四郎商店 電話長一七、四五三 電略〇ト 受信略號タイキウ、シマダ

金曜會

南城町 唐草材 直輸入 都散賣 金弘祖

市場町一五 海東商店 主姜東守

京町二丁目 日本電機商會

食堂 太清 電話一九二

南町一四〇 裵乃成

白絞油 鮮南製油所 電一〇二一 振替京城一〇四四一番

南城町 復陽堂醫院 電話八六

東亞紙物商會 禹昌亨

中央通 唯一旅館 電一三六二

竪町五九 同輪自轉車商會 主張台愚 電一五八〇

上町 觀海館 主金聖秀 電三七九

市場北通 製油 製粉 裵永憙 電一八四

鳳山町三五 慶一鐵工所

大邱旅館組合

徐昌圭

張稷相

秋信鎬

大邱 金聖在

[illegible] 布教師 朴雪隱

南明普通學校

本町 金昌錄

金蔚山

大邱製油所 主元永喜 電九七八

救世醫院 李在榮

南城町六 眼耳、小兒科 痔疾、黴毒科 法科 明濟醫院

幸町 株式會社 共榮自動車

米穀取引所仲買店 大成商會 電八六五

金榮淑

三光醫院 內科 小兒科 金顯敬

李廷海

京町一丁目 順天堂醫院 電一二〇一

金彩玉

朝陽印刷所 主崔鍾燮

群芳樓

明月樓

慶北漁業組合聯合會 理事長 龍野文一

互樂館 電七四一

錦町 慶北精米所

市場町一〇 姜致雲 電話二八二

坂本俊貞

慶北 蠶種業組合

米穀取引所取引員 高木昌治商店 電話九一三、一〇二五、一〇七八

家具 百貨 德潤商店

竪町一六二 朝鮮月梳工場 主韓亨敦

府議 正安堂主 金正悟

布木商組合

開城人蔘房 崔晋澤 電話三八五

馬山屋支店 電一五〇六

雙興號

鄭小島

壽昌印刷所

成敬淑

孫仁植

東城町三丁目 大邱運動具店

棲鳳庵

西城町一丁目 金元龍

穀物株式會社

上西町 崔鍾達

桐華本末布教所 權漢鏡

市場町 金元卓商店

竪町二二五 申鉉復

理化堂表具店

堅町 蘇鎭武

東山旅館

南城町五二 林勝鑫

第一商會 電一三三五

驛前 三山旅館 電一一八九

東城町 有福商店 主全有福

慶北原蠶種製造所 北澤茂

東城町三丁目五〇 青邱洋靴店

藥種商 申泰文

藥種商 金宗洙

安秉寄

京町 永也商店 電一二四八

京町 萬美館 主金拜美

西城町一丁目 和信洋靴店 [illegible]

京町 白洋舍洗布所 電一三四八

南城町九二 嶺一堂藥房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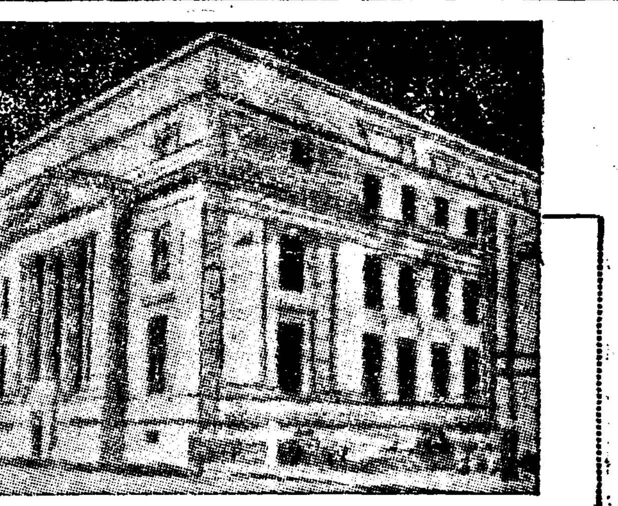
朝鮮日報

新年號 其二

世界經濟趨勢

鎖國主義、市場爭奪 貨幣戰、軍需品景氣

徐椿



從來는 新年劈頭에 이런問題를 쓰게되면 景氣의 好不好를標準하야 조와진다든가 나쁘진다고 써 왓다 그러나 最近約十年間의 世界經濟는 이러한 推測論文이 無意味하다는것을 가르처주엇다 最近十年 特히저一九二九年의 大恐慌以來의 世界經濟는 가을날 하늘가치 變하기쉽고 荒海의波濤가치 起伏이甚한故로 一個年은姑捨하고 一個月 甚하면 一日의압날도 豫測을許치아니하는 情勢로나려왓다 얼는 昨年을 例로들어말해도 米國이 金輸出을 禁止할줄을 누가 豫測햇으며 倫敦經濟會議가 完全한 失敗에終할줄을 누가 豫測하엿드냐 이런 意味에잇어서 景氣의 好不好 或은 物價의騰落을 標準하야天氣豫報式으로 가는 舊式觀測法은 그만두고 다만 過去의 經驗과 現在의處地에 立脚하야 將次오려는 問題의멧가지를 示唆하는데 그치려고 한다 (寫眞은 昨年에世界經濟會議가열니엇든倫敦켄싱톤博物館)

經濟鎖國 歷史는反覆한다。

經濟鎖國主義는 人類가 幾千年을두고、死守해 오던것인데 이것이 經濟開國主義로轉換된것은 先進인 西洋에잇서서도、百五十年前 英國經濟學者아담•스미쓰以來의 일이오、東洋에 잇어서는 그 보다도 퍽 뒤떠러젓다。何如間、이 經濟開國主義、自由貿易主義는 一九一三年까지가 그最盛期이엿다。世界大戰 勃發以後부터는 開國은鎖國으로、自由主義는 保護主義로 百八十度의轉廻를하엿다。爾來二十年間의 各國經濟政策은 經濟鎖國의 基礎工作期이엇다。그러나이期間의時徵으로볼것은、行動으로는 鎖國主義와保護主義를實行하면서도、思想上으로는 아직도、開國主義、國際分業主義、自由貿易主義、國際協調主義에 對하야 一縷의希望을걸고、憧憬하여왓다는 一事이다。그러든것이 昨年六月의 倫敦經濟會議가 完全失敗를告한 後부터는、한나라도 例外업시 鎖國主義、保護貿易主義 一國獨榮主義、經濟孤立主義로아조 轉回하고말엇다。그리하야 關稅戰이 猛烈化하고、經濟뿌럭의 結成運動이 强化하고말엇다。그리하야倫敦會議開催前에 暫定的으로 締結햇던 關稅休戰協定은主要列國의 破棄通告에依하야 猛烈化할것도 勿論이어니와 再昨年의 오타와會議、昨年末의汎米會議等等의 前例에 鑑하야 列强의 뿌럭의 結成及强化運動은 新年에도 繼續되되、그勢가자못 猛烈할것을 豫想할수가잇다。

互惠主義 本主義下에서의

鎖國主義는 外國商品을 사드리지안는다는말이오、內國商品을 外國에 파는데 잇어서는、홀로 鎖國이 아닐뿐만아니라、更一層나아가서 輸出增進主義다。輸出增進理由의 主되는 者를 드러보면、(一)內國의 過剩商品을 處分하기 爲함이오、(二)特히 最近에 와서는 必要한 軍需品及 그原料와바꾸기爲함이다。그러나 各國이 다、한 나라도 例外업시 이런 意味의 鎖國主義를 쓰는데는 斯間에 一大矛盾撞着이 생길수박게 업다。即、一國의 輸出增進主義와 相對國의 輸入抑壓主義와의 衝突이 即 그것이다。아모리輸出을 마히 하려고해도 相對國에서 輸入을 許치 아니하는데야 奈何오? 이衝突에 對하야 從來、列國은 서로 이기기 爲하야 外國商品의 輸入抑壓에 對해서는 關稅引上策을 쓰고、輸出增進에 對해서는 商品덤핑、爲替덤핑、國庫補助等等의 獎勵策을 써 왓다。前者를防禦의 武器라고하면 後者는 攻擊의武器다。그러나 이武器도 各國이 꼭 가티 쓰는데 잇서서는、矛盾은如前히 矛盾대로 남어 잇지解決될수가 업다。여기서 最近에 와서 矛盾의解決策으로 案出한 한案이 잇스니 그것은 即二國協定主義或은 互惠主義이다。

即、그要領은 (一)우리나라商品에 對해서 關稅를引下해주는 나라에 對해서는 그나라商品에 對해서 그程度로 關稅를 引下해준다。(二)우리나라商品을 輸入해주는이 만치 그나라 商品을사준다。의 두가지이다。

昨年爾來로、英國이 스캔리나비아諸國에 對해서、米國이 南米諸國에 對해서、日本이 英印에 對해서、하고잇는 일은 다、이 互惠主義或은 二國協定主義의 發露인데、이情勢는 今年에도 猛烈의 度를 가지고 繼續될것이다。日本이 複關稅制度를 設하야 通商上有條約國에 對해서는 低率의關稅를 課하고、無條約國或은 日本商品의 輸入禁止國에 對해서는 高率의 關稅를課하려는 案을 세우고 잇는것도 亦是、이러한 主義에 基礎를 둔것이다。

市場爭奪 列國의工業은(一)

原料市場을 (二)製品의 販賣市場을、또는、特히 最近의 世界情勢는 軍需品原料生產地를 要求한다。따라서 原料市場及 製品販賣市場의 爭奪戰은 過去에도 猛烈하엿거니와、三十四年에 잇어서는 더 一層强烈한 程度로 繼續될것이다。世界에 四大市場이 잇으니 一日 中國、二日 露國、三日 印度、四日 南米諸國이다。그런데 印度는 英國의 掌中에 아조 드러가고말고、露國은 强國이라 억지로 할수는업는 形便이니까、今後、列强爭奪戰의 焦點이 될때는 中國과 南米의 二處요、露國에 對해서는 僅히 外交的秋波로써、爭奪을 試할것이다。

貨幣戰爭 貨幣價値의比率

協定案의 不成立으로 倫敦會議는 破裂했다。爾來世界의 金融及貿易의 牛耳를잡은 米國은 弗貨價値低下의 一路로 猛進하야今日에 至하엿다。現下의 情勢로보면 米國의 이政策은 新年에도 繼續될수박게 업다。따라서 弗、磅、圓等等의 價値 低下競爭은 亦是 新年에도 猛烈을 極할수박게업다。이에 따라서 國際貿易은 去益衰退하며、物價의 亂高下는갈사록 甚하게 될것이다。

金本位破壞 아직도金

本位를 維持하고잇는 나라는 佛蘭西、白耳義、和蘭、瑞西、波蘭、獨逸、伊太利의 七個國뿐이다。昨年、倫敦會議에서 爲替比率協定案이流產되자、獨逸、伊太利를 除外한 前記五個國은 金本位뿌럭을 結成햇다。그리하야 今日까지 이것을 死守해왓다。그러나、米의 弗貨價値低下政策이 이以上 더 繼續하는 날이면 佛蘭西는 아모리 金保有가 豊富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繼續維持할수가 업슬것이다。(一)歐洲諸國의 政局不安은 佛蘭西의 金流出을激增시키고 (二)프랑價値의 高位는 佛蘭西의 輸出減、輸入增을 結果하고 (三)輸出減輸入增의 結果는 國內產業의 疲弊와 失業者激增을 招致하고 (四)이것은 다시 財政에 影響하야 赤字를 激增시키기 때문으로 佛蘭西는 제아모리 애를써 보앗다사 이것을 維持할수 업슬듯하다。그런데 佛蘭西가 넘어가는 날이면 白耳義、瑞西、和蘭、波蘭따위는 그餘風에 넘어가고 말것이다。그리되면 獨逸의金本位、伊太利의 金本位도 남어잇슬 까닭이 업다。이러케보아오면 一九三四年은 一八一六年以來의 百有餘年間을 두고 王座를維持해오던 金本位制가 이地球上으로부터 暫間 자최를 감출수박게업는해가 아닐지?

財政인풀레 一九三四

年은 列國軍備膨脹이 極度로 約束되던 해다。따라서 此로 因한 列國의 財政은膨脹할수박게 업다。膨脹한財政의 收支를 마치는 方法은 增稅가 아니면 紙幣增發에 依할수박게 업다。列國의 今日의 狀勢에 잇서는 到底히 巨額의 增稅를 斷行할수는 업다。따라서 欲不欲을 不拘하고、大勢는 各國을 모라서 인풀레 或은 軍備인풀레를 斷行할수밧게 업시 잇다。따라서 紙幣增發、物價騰貴는 難免이다。그러나 物價에 잇서서는 工業品特히 軍需工業品以外의 商品例하면 朝鮮農產物가튼것은 物價騰貴의 餘澤을입지 못하고、도리어 低落될憂慮가 잇다는點에 世界大衆의生活苦가 잇다。

軍需品景氣 軍需品製

造業、그原料生產業等等에는 昨年爾來로 獨特한 景氣가 왓거니와 今年에도 亦是 이 大勢는 繼續될것이다。(終了)

朝鮮產業政策

日本國防과의關係

【一】

一記者

東海의 정어리와 鴨綠江의물을 結婚시키면 爆發藥이란 아들이 나온다——하면 무슨 수수꺼끼가 하겟지 마는 이것이야말로 產業政策과 國防計劃과의 關聯을 暗示하며 日本의 非常時突破行程에 잇서서의 產業朝鮮의 役割을 表象하는 文字다。

정어리에서 기름을 짜서精製하면 그리세린이 나오고 鴨綠江 물을 막아서 水力電氣를 만들고 電力으로 물을 分解하야 水素를엇고 空氣를 液化分溜하야 窒素를어드면 水素窒素가 合하야 암모니아가되고 암모니아에서는 硝酸을 만든다。硝酸하고 정어리기름에서 나온 그리세린을 合치면 따이나마이트(爆發藥)가된다。

咸南의 一小村인 興南을 一躍 大都市化한 興南 窒素肥料會社는 平時에는 肥料를만들다가 一朝有事時에는 火藥工場으로 變한다는것은 常識化한 智識이다。植物의生長에도 窒素가必要하거니와 火藥의 要素에도 窒素가必要한것이다。

歐洲大戰前에는 火藥에쓰는 窒素를 南米智利國에서나는 智利硝石에서 取해다가 英國 軍艦이 獨逸에 經濟封鎖를 加하게되니 必要는 發明의母라 獨逸이 空氣中의 窒素를 잡아다가 火藥만드는 法을 發明하엿다。戰爭이 끗나매 火藥工場이 肥料工場으로 改裝을햇다。興南窒素工場은 이 過程을 逆行하려는 것이다。

쌀行進曲

寺內長谷川兩總督의『義兵』討伐時代를 지나 治安이 保된 朝鮮에 所謂『齋藤文化』時代가 되매 下岡政務總監의『產米增殖』의 計劃이 發表되엇다 三億萬圓의 資金을 投下하야 十五年間에 廿四町步의 土地를 改良하야 年產九百萬石의 米增收를 圖한다는 이 計劃의 根本動機가 日本의 食糧問題의 自給自足을 圖하자함에 잇다는것은 贅論의 餘地가 업거니와 交通貿易이 發達된 今日에 잇서서 더구나自由通商主義가 膨脹하든 十年前에 食糧의 自給自足을 云謂한다는것은 두말할것아니 一朝有事時秋에 備하자는 말인것은 三尺童子라도 可知다。그야勿論剩餘資金의投資處로서 또는政黨費用의 抽出用으로서 產米增殖計劃의 實施가 各人各色의 利用物이 되는것도事實이겟다。

◇

그러나 米穀生產의 大大的過剩으로 農村이 呻吟하는 今日에도 莫大한 豫算을費하야 米穀統制에 망을을리면서도 產米計劃을 斷念치못하는 所以는 國防과 食糧이란 關聯이 念頭에떠나지안는까닭이아닌가 宇垣總督時代는 朝鮮의產業發達過程에 잇서서 一層 資本主義化의 明確한 步調를圖顯하는時代다。가르되 產金獎勵、가르되 南綿北羊、가르되 北鮮開拓、가르되 販賣統制——이러한 政策들은 原料供給地로서의 朝鮮을 將次 精製工業地로서의 朝鮮으로 飛躍케하는 工程의 一部分임은 틀림업는 事實이다。漁業에鑛業에 各色各樣의 法規와統制의 實現은 日本資本의 積極的進出에 依한工業朝鮮의 建設에對한 準備工作이다。더구나滿洲라는新市場이 面目을 바꾸어將來를 約束한다는 이때에 植民地朝鮮은 一躍工業朝鮮으로의 好條件을 가지게되는同時에 東京大阪의 企業家들의 손으로 朝鮮에 工場煙突이 소사오르게된다。이러한 工業行進曲의 基調——라고까지는 못할지라도 그重要한 모티프가 되는것이 軍需工業적어도國防을基調로한 朝鮮의開拓이라는것이다。

燦然한鑛業

▲石炭 쌀을 醱酵시켜서 술을 만들고 술에서 알콜을 精製하야 燃料로쓰자。이計劃은 發明家의 심심푸리라기보다도、또는 米穀統制法의 代用案이라기보다도 海軍省의燃料問題解決의 秘策이라고 봄이 妥當할것이다。石油를 둘러싼 列强의 領地爭奪戰이海軍燃料의 싸움인것은 두말할것업고樺太의 貧弱한油鑛을除하고는 燃料의 全部를 外國產石油에 依하지아니하면 안되는 日本海軍이 요새 너무 만하서 걱저인 쌀을 燃料로 쓰겟다는 생각이나는것은 怪異한 일이아니다。또 現代科學의 힘으로 이 奇蹟을 實現시길수업스리라고 斷言할수도 업는 일이다。이秘策의 成否는 將來의 일이어니와 海軍省에서는 이미 平安南道의炭鑛의거이全部를 保有하고平壤에 直營炭鑛을 經營하고잇는것은 周知의事實이다。石炭을 石炭대로 燃料로 쓰기도하거니와 目下 硏究中에잇다하는 石炭의 液化事業이 成功된다 하면 燃料問題에 一大光明을 줄것은 明若觀火다。이박게 石炭의 用途로는 모든工業의 燃料로 씨올뿐아니라 貴重한 染料와 藥品이 石炭의 蒸溜에서나오며 火力發電에依하야 電氣動力을 供給한다。

朝鮮의 石炭埋藏은 平安道黃海道 咸鏡道를 爲主로 十一億噸으로推定이된다。아직까지 交通問題로 採鑛이못된 곳이 만치마는 鐵道網의漸備를따라 炭鑛業은 大發展을할 것이다。

▲金 金再禁에 依하야朝鮮은 文字그대로 金狂時代를演出하고잇다。昭和七年八月二十九日 金採鑛獎勵 金交付規則의 發令은 金狂時代에 對한 總督府當局의 加鞭이라고 볼것이다。大英帝國은 歷代金本位의 大本山인 體面을 쓰레기통에 내던지엇고 新進의黃金帝國 아메리카가 부끄럼도업시 그뒤를 쌀은다。佛蘭西를盟主로한 歐洲의金本位뿌럭도 一九三四年에는 마츰내體面을 모르는 英米에게 降書를 바치지 안으리라고 壯談하기 어려케 되엿다。天下가다金의 爭奪에餘念이 업게되엿다。돈이 업서야 戰爭을 할수가잇다。돈의 象徵物은 金이다。宇垣總督의 產金獎勵政策이이 念願에서 나온것이아니라고否認할수잇스랴。

朝鮮의 흙은 金업는 흙이 업다시피 十三道어되서나金이 안나는곳이업다。世界의金產國中에서 日本이 第七位、日本의金產額中에서 鑛業幼稚期에 잇는 朝鮮으로서 이미 約半分을占하얏다。金狂時代가이대로繼續한다면 昭和十年쯤이면 產金을世界에서 三四位를다투게될것인데 그希望의 大部分이 朝鮮에 잇다。日本의金鑛은이미 含有量 百萬分之五의 貧弱한鑛石까지 採掘되는形便 朝鮮서는 아직含有量十萬分之三以上이라야 採算된다고한다。그런데 朝鮮에는 含有量百分之二 乃至十이라는 驚異的鑛脈이 참말로 存在하다고하니東方의 隱士國이 地下에黃金항아리를무더둔셈이다。

▲其他鑛業 英國이產業的으로 發達한 所以가 鐵과石炭을 產出햇기때문이라하리만치 近代工業의 어머니는 鐵이다。그러나 또一面으로는鐵이라하면 武器를 聯想하게하리만치 軍需工業에 가장重要한 物件인것은 여러말할것업다。그런고로 日本도 九州八幡에 國營製鐵所를두고 年產百三十萬噸의 製鐵事業을하고잇다。그런대 그原料로씨우는 鐵鑛이 日本內에서 나는것은 겨우 全需要의 一割五分에不過하고 大部分은 中國과 南洋에서 輸入하고 잇는現象이다。그런데 朝鮮은 이미해마다 五十萬噸의 鐵鑛을 產出하야그저 반을黃海道兼二浦에잇는 三菱製鐵所에서 쓰고 半分은 日本으로秘出하고잇다。朝鮮內의 鐵鑛은 現在採鑛하는 黃海道를 爲始하야 咸北茂山、咸南端川、忠北忠州等地에 잇다고한다。昭和製鋼所는新義州가落第하고 茂山鐵鑛을 目標로갓지마는 日本의某財閥이 清津近傍에 大製鐵所를 計劃中이라고傳한다。黑鉛이 鉛筆工業의原料인것쯤은 常識이어니와 軍需工業과 黑鉛과의關係도 매우 緊切한바가잇다。

◇

鐵製品의 表面을 保護하는 모든 『멧기』製造原料도 黑鉛이요 (電氣工業에 잇서서도燃燒가더되는 電極用으로、라듸오用카본、(電解板、아크燈의炭素棒、發電機와 電氣모타의부라쉬、製鋼合金 精金等에使用되는 坩堝等 一般工業에는勿論이요 軍需工業에 絕對必要한 用途를가지고잇는 이黑鉛이 그產額이二萬噸이 되어 獨逸보다도 뛰어나 名實가치世界一位를 占하고잇다。

昨年에咸南端川에서 發見되엇다는바 그네사이트鑛은 이를 精鍊하야 · 마그네슘을 만들고 마그네슘은 輕金屬工業에 合金材料로 不可缺의것이 된다。飛行機의 製造其他의軍需品에 輕金屬이 씨우는것은勿論이다。總督府에서 端川鑛床의 埋藏量을 六億五千七百萬噸이라 하엿다。

歐洲大戰中에 一噸三千圓까지 올라갓든 텅스텐鑛이 江原道、忠南北을 主로到處에含有되여잇다。

飛行機의 原料로서의輕金屬의 大宗알미늄이 明礬石에서 採取된다。全日本에업든明礬石이 全羅南道를 中心으로各地에서 發見되엇다。이리하야 未來의戰爭은 空中에서라는 슬로간下에서 日本國防工業의 多年의 懸案이든알루미늄 問題가 朝鮮에서解決된것이다。(續)

咸興

咸興府黃金町 韓時殷

咸興府黃金町一丁目 純白米麵製 萬歲酒製造元 咸山釀造場 電話三一三番

咸興水利組合

咸興金曜會

咸鏡南道廳 食堂員一同

藥과化粧品은 高級スメツ化粧品咸興支店 朝鮮咸興府本町二丁目 藥種商 三省堂藥房 任令宰 電話六六六番

咸興府醫師會

咸興辯護士會

咸興飮食店組合

咸興驛前 共信社貨物自働車部

咸興府城川町一丁目 明月館 崔允植 電話四五八

咸興府營蘿市場 靑果 鹽千魚類 委託販賣 咸興市場株式會社

永生高等普通學校 永生女子高等普通學校

大興電氣會社咸興支店

咸興府驛前市場 獸肉販賣組合員一同

咸興府黃金町一町目 安允奎精米所 電話九五七

大和町四丁目 거북선고무 [illegible]

大和町四丁目 大和藥房 電話九二七

盤龍券番

咸興府萬歲町 春慶園 韓在豊

咸興府大和町 京城護謨 咸興支社 金玉鉉

州西面西上里 黃海釀酒所 黃在中

咸興府本町 黃海釀酒所 府內事務所

咸興府榮町 米穀貿易商 李鍾德

咸興本町 金光銀房 尹泳圭

咸興昭和町 德本鐵工所 金東熙 電話七五〇番

咸興府黃金町一丁目 土地建物及人事紹介 咸興人事紹介組合

萬歲町 朴永周商店 同精米所

咸興府有樂町 陶磁器商 金福萬

咸興府中央通二丁目 咸興釀酒所 崔殷淳

咸興府黃金町一丁目二〇五番地 天應鍼灸療院 李泰山

咸興府萬歲町 貿易商 三元商店 電話長八四三

洋畫專門 東明劇場 電話六四三番

咸興府黃金町 大東精米所 朴海夏 電話五二五番

咸興府大和町 綿絲布貿易商 鶴林商店 金秀根 電話長三五二

咸州郡廳

咸興府黃金町カフエーキング 女給 ダリヤ キヨコ ツバキ コナミ ミトリ 順子 エレナ クロリヤ メーリ 電話三一〇番

咸興軍營通一町目 吳服 洋服 雜貨 化粧品 大阪屋百貨店 電話長三七〇番 六〇一番 振替口座京城一七六五三

朝鮮咸興府大和町四丁目 絹織 綿布 人造絹織 毛織各種 土產物品 麻布類 株式會社 東亞商會 電話長六一二番 私書函咸興局五四番

咸興府大和町四丁目 穀物商 洪雲杓 電話五四七番

咸興府黃金町一丁目 三井會社一手販賣 鎬酎食鹽 金星商會 電話二二六番

咸興驛馬町 龍山釀酒所 李成周

咸興大和町四丁目 各種自轉車 附屬品及修繕 各種金庫商 天一商會 電話八六八

咸興府黃金町一丁目 錦華樓

咸興府黃金町一丁目一二三 海陸物產委託 主 金相大

咸興府大和町四丁目 義[illegible]局 主 高[illegible]鈞

咸興府大和町 平安고무工業社 咸興支店

咸興府本町三丁目 德源精米所 電話七六九

張潤河

咸興府萬歲町 金承友商店

咸興府萬歲町八七番地 明成商會 朱景燮

上岐川面五老里 醫師 宋楨源

上岐川面五老里 盧達壎

咸興府大和町二丁目 北鮮倉庫株式會社 ㊊ 運送部

咸興府本町 綢緞布木 錦東商會 朴正周

咸興府大和町 韓軫淳藥房 電話二四八番

咸興府有樂町 李載浩商店

咸興本町二ノ一九三 水天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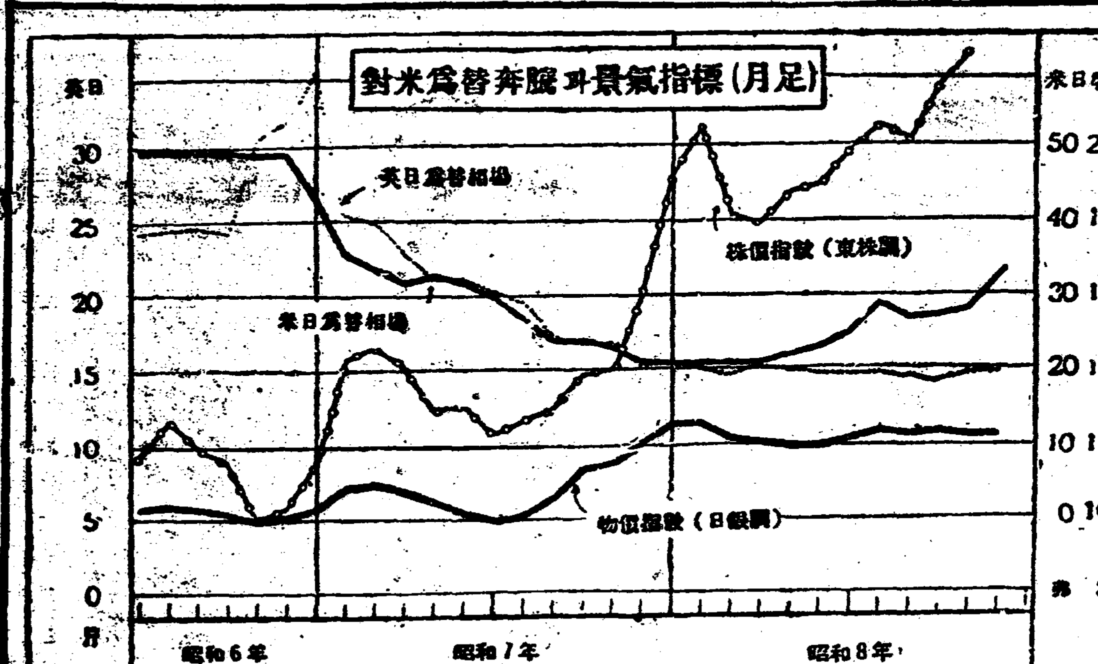
咸興府本町 朴載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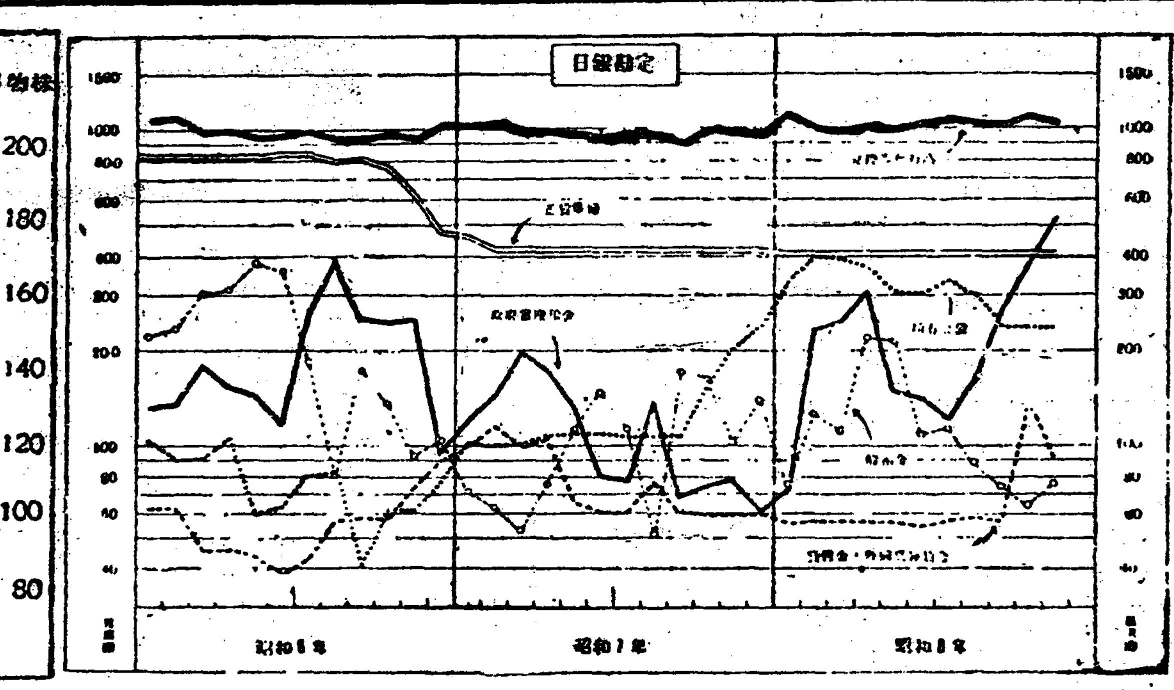
咸興府大和町 北鮮自動車 運輸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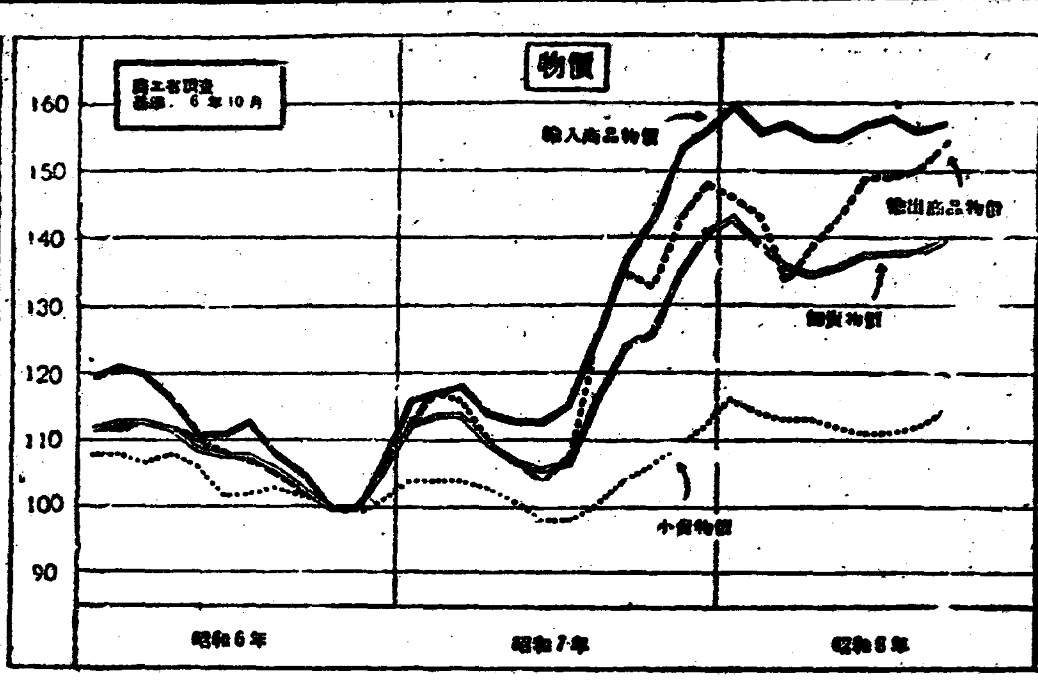
咸興料理屋組合

咸興府大和町三丁目 咸興タクシー 株式會社

咸興府本町 咸興金銀商會 朴晶[illegible]







一九三四年의 日本景氣展望

金融…爲替…物價…米穀…貿易…結論

【一】 申泰翊

一九三三年이가고 새로히 一九三四年을 마지한다 그럿타고 해서經濟的事情에 무슨 時間的限界가 잇는것이 아니다 또는 經濟的動向에잇서 特別한懸隔이 생기는것도 아니다 財界의趨向을 把握함에잇서 景氣의循環說或은 景氣의波動說 等等여러가지 景氣經濟의 科學的研究가 不無한터이지만 이것은 一定한 理論的體系의確立이되엿이 아니다 그러나明日의動向에對하야 오늘 或은 昨日의일를가지고 생각한것으로써 그의輪廓을 짐작할수가잇다 다시 말하면 現在와 過去를가지고 밀우어서 將來에對한 大體의動向을 엿볼수잇는것이事實이다 그럼으로 一九三四年의 日本景氣가將次 어떠케 展開될가함을 豫想함에잇서 지난一九三三年의財界에 溯及하야 더듬어 보지안흘수 업스며 따라서이것을 綜合하여가지고 今年財界에對한 結論을 지으타고 한다

오늘에잇서 日本에는 『인풀레이숀』이 繼續하야 進行되고잇다 이것은 距今三年前 九月十八日의滿洲事變이 그의序曲으로 同年十二月에 金輸出再禁止의斷行을 보게되든同時에日本은 인풀레이숀에 向하야비로소달음박질의出發을 하엿든것이다 이와가티 金本位의停止가 됨을 따라서 日本對外爲替의低落 卽圓貨價値가 떠러지기始作하고 따러서 日本의對外貿易上 輸出이 好轉케되야 爲替인풀레이숀의展開를 보게되엇다 그러나 滿洲事變後 日本軍事費의支出이 增大케됨으로因하야 歲出의膨脹卽軍需品工業에對한注文의增大로 財政인풀레이숀(이것을 軍事인풀레이숀이라고도 한다)을 보게되고 이것은 爲替인풀레이숀과 倂行하야 오늘까지繼續되여오는것이다 以上은 日本인풀레이숀에對한 大體의發端을 밝힘에 不過한것이다

◇

지난一年間을 回顧하건대外로 昨年三月에 米國이金本位를停止케되고 이로因하야 非金位國과 金本位國과의對立激化따러서世界經濟機構의根本的變化 卽各國의經濟블럭 或은 經濟的國家主義에 傾케되고말엇다 그러고 昨年六月에 열니엇든 世界經濟會議에 잇서도 何等의成果가 업시 헤여저 버렷을뿐이다 이것은各國으로하여금 더욱國家主義經濟에 만 沒頭케하엿을뿐이다 그뒤 米國政府로부터 弗貨의 價値를떠러트러서 自國國內物價를 騰貴케하랴고 十月末로부터 金買上을 斷行하고 이로因하야各國의 爲替關係는 顯著한動搖가 생기엇다 그中에도 米日爲替는昨年年初에 二十一弗臺이엇든것이 同年年末에는 三十一弗臺의往來로 圓貨는反騰케하엿다 一面으로는 爲替인풀레이숀 卽圓貨의 低落을伴하는 日本對外貿易上 輸出增進에對하야 國家主義 經濟에傾한各國은 威脅을 느끼게되고 이結果는 自然 各國의關稅障壁激化 甚至於는 輸入許可制, 配當制, 其他 새로운制度를 取하는나라가뒤를 이여서出現함을 보게되엇다 이에 對한一例로 들것은 排日貨로 해서 생긴 日印會商이 곳 그것이다 이와가티 各國이對外貿易上 不振의處地에 잇슴을 不拘하고日本만 홀로서輸出增加가繼續되다는것만 가지고생각하면 日本에對하야 樂觀的材料가 될에 足할것이다 그러나 이輸出增進의反面的結果는 日本商品의進路를 自身이거의破壞하는것과 가튼作用이 생길念慮도잇다

◇

內로는 인풀레이숀의過程이 어떠하엿는가 이에 對하야는 한말로써 한다면 昨年中에는 인풀레이숀과 이와 反對的作用을하는 오픈·마켓·오페레이숀이 서로압섯다 뒤섯다하는거름으로서進行되여온만큼再昨年보다 인플레이숀을 相伴하는特別한 景氣의出現이 업섯다 이것을 다시말하면 政府가 昨年에 十二億圓의 公債를發行하엿는데 이것을一般市場에다가 팔지안코日銀에서引受하는形式으로하야 政府는이公債資金(豫算關係에 基하야)을 國內에 헤트렷다 그럼으로十二億圓이 늘은만큼流通되는 通貨가 만어젓을것은當然하다 따러서 이通貨量에相應한 資金의需要가 생겨야이에對한 流通이 圓滑케되는同時에 好景氣가 나타날것이다그러나 一般資金需要는 別로增大될이 업슴으로 政府에서一般購買力의增進 또는事業勃興을 目的으로하고 헤드린通貨는 그意義가 업게되고 다만過剩資金으로銀行의손에 드러가 잇게된다。그래서 日銀은할수업시 保持하고잇든 公債를 市場에 다가 내여팔어無用한過剩資金을 거더드렷다(이것을가리켜서오픈마켓, 오페레이숀이라고한다)要컨대昨年中 인플레이숀의過程은 表面上顯著한作用卽 一般的好景氣로볼것이업섯다 오즉軍事인플레이숀으로軍需品工業等에局部的景氣만은 잇섯든것이 事實이다

◇

그러면 새로히 마지는 一九三四年의日本景氣는 어떠케 展開될것인가 이에對하야는몃가지로 난와서 말하기로한다

金融

昨年에는 時局匡救資金及軍需關係資金의撤布로 金融緩漫의傾向이 顯著하야 年初에預金利下說이 잇섯다 그러나日銀의市場政策 卽昨年十二月로부터 昨年二月까지 日銀에서는 米穀證券 公債를 팔어서 市場으로부터 過剩資金을 吸收한것이 四億三千萬圓에達하고 이로因하야 預金利下가 實現되지못하엿다 그日本財界는 比較的不穩하다가米國의金融恐慌 또는兩國金本位停止를 보게되야 日本으로서는 한때 相當히 威脅을 느끼엇다 그러나 日本에는 資本逃避防止法 또는 五月一日로부터 實施된 外國爲替管理로 外來의威脅을 얼마즘 阻止하는效果가 잇섯다 一面으로 政府는 一月로부터 三月까지五億一千五百萬圓의四分半公債를 發行하야 通貨를 널니撤布케하엿다 그러나 一般이通貨量消化함에 足한需要力이 업섯든때문으로 結局에인플레이숀은 實際에잇서 景氣를나타내지못하고 거의氣分的인에 不過하엿다 이結果는金融緩漫의本格化를 보게되야 四月에 東京大阪의 콜協定率이八厘로 이協定이되뒤 처음되는低率를 나타내이고 따러서七月一日에야 預金利下가되엇다 九月에 日銀은 四分利公債를 引受하는同時에 다시오픈·마켓·오페레이숀으로 新引受公債三億圓中 三千萬圓을남기고 그殘額의公債를 모두市場에 팔어버렷다 그래서市場資金은 그만큼 日銀으로곳다시 還元이되엇이며 이結果는, 金融市場을 硬化케하엿다 그뒤 年末를 압두고 政府의資金撤布가 만케되야 다시金利의軟化를 促하고따러서 年末金融은 그다지 不安이업시 지내와다

◇

그러면 今年에는 어떠할가 目下政府의 日銀預金이五億二千萬圓, 이박에 八年度未發行公債三億圓이 잇고 一面으로八年度보다 多少減額이되엇스나 依然巨大한數字의 廿一億餘圓 九年度新豫算이잇다 이中에公債는歲入缺陷을補塡키爲하야六億餘萬圓(赤字公債)滿洲事件費 一億五千萬圓 其他를合하야七億八千萬圓 또特別會計를加하면實際公債發行額은九億圓以上으로될것이라고한다 이에對하야年末과가티 日銀에서 引受할것임으로 結局은 財政인풀레이숀이 繼續될것으로 볼것이틀님이업슬듯하다

◇

다음에는 資金需要의 方面을보면 最近米國財界의 反動과日米爲替의反撥로 輸出의生絲가 繼續하야 不振을免키어려울것갓다 그러고 世界各國으로부터 日本品進出에對한阻止가緩和됨이 업스면 日本對外貿易에對하야 큰期待를가질수업다 또事業界는 昨年과가티軍需品, 工業其他의 部分的好況은 繼續될것으로 볼것이다그러나 亦是全般的 好況은疑問을갓는다 要컨대 新年에도昨年과가티 인풀레이숀이繼續되는 反面에 金融調節로日銀의오픈마켓 오페레이숀의倂行도繼續될것이며 따라서大勢上으로는金融緩慢은 依然큰變化가업지안홀가 한다 ——(繼續)——

低爲替政策과 金本位制將來

月山學人

現代에 잇서서 物品의交換及賣買의尺度는 貨幣다。그러나 그貨幣가 그本質을 保持하고 職能을 다할수잇스랴면 各各의貨幣가 統一잇는 한制度下에 統制되지 안흐면안되다。이制度가 곳貨幣制度다。貨幣制度에는 本位貨幣가 第一必要하고 補助貨幣, 兌換貨幣도必要한데 그中에도 本位貨幣의 確立이 根本的으로重要하다。그리하야 世界各國은 金 或은 銀을 本位로하고貨幣制度를 確立하얏스니 前者를 金本位國이라하고 後者를 銀本位國이라한다。銀本位國은 오즉 中國一個國뿐이오 其他 諸國은 金本位國이므로 世界의貨幣制度는 可謂 金本位制라해도 無妨하리만하다。

◇

그런데 最近 數年來에 잇서서 이 世界的 貨幣制度인 金本位制度가 中斷한듯한 感이 잇스니 그것은 英 米兩大國을 비롯하야 世界 主要國이 皆皆 金本位制度를 停止한것이다。金本位制度의 停止라는것은 金本位制度가 行하든 職能을 喪失하엿다는말이니 假令 金本位制度下에서 自由로운 紙幣와 金貨와의 兌換 金貨의 鑄潰 金貨의輸出 金貨의 流通을 禁止한다는것이다 勿論 金本位制度가 停止되엇다 할지라도 日常 經濟生活에 不便이업스면 別히異論을 말할必要가 업지만金本位制度의 停止로 因하야昨日에 十圓하든 物價가 十五圓으로되고 今日一圓하든物價가 明日二圓이 된다든지 해서는 民衆의 견딜바가 아니다 特히 經濟가 世界的으로 發展하야 一國의貿易關係가 直接他國物價에미치는 現在에잇어서는 金本位制度의 動搖는모다 影響을밧는다

「이제 金本位制度가 完全히實行되는 兩國間의 經濟關係와 一國만이 金本位를停止한 兩國間의 經濟關係와 兩國다金本位를 停止한 兩國間의 經濟關係를보면 이러하다

(一) 兩國間에 金本位制가 完全히 實行될때는 相互貿易의 收支合計를 旣定한 貨幣比率로써 授受한다 假令 日本과 米國은金二十匁에 對해서 日本은百圓 米國은 四十九圓八分之一로比率을 規定햇기 때문에 그比率로 授受하면 그뿐이다 勿論 貿易을할때마다 金을授受하는것이 不便하기때문에 相對國의爲替를 사서 보내는 便利가잇슴으로普通이것을함이例事다

(二)그러나一國은 金本位國이오, 一國은停止國이라 하면 金本位國에서停止國에 支拂할것은 金으로支拂하나, 停止國에서 金本位國에 金으로 支拂할수는업스므로 爲替로만 돈을 支拂해야한다 그러므로 (一)의境遇에와가티 金으로나 爲替로나自由로 돈을 支拂함으로써 正貨輸送點을 넘기지안는 爲替時勢를 維持하는 利益이업서질지니 假令 日本이停止國이오 米國이 金本位國이라면 對米 爲替는 低落하야 前日一億어치의 商品을 輸出하고도 겨우五千萬圓 乃至 四千萬圓어치의 商品을輸出하는것박게못되는 結果를 生한다。

◇

(三) 그리고 兩國이 다 停止國이 될때는 兩國이 모다 金으로 支拂을 못하고 爲替로하기때문에 이때의 爲替時勢는兩國의 基本時勢로 될것가트나 그러케되지안코 金本位制完全時에도 一條件이되든 二國의 經濟的 信用과兩國의 物價指數에 依하야 決定된다 假令 日本, 米國兩國이金本位를 停止한다면 兩國의 對外爲替時勢는 基本時勢를 R로하고, 米國物價를 S· 日本物價를 S로하고·米國의 經濟的信用을 C로하고·日本의 經濟的信用을 C로한

$$爲替時勢=R\times\frac{S}{S}\times\frac{C}{C}$$

로된다。그러므로 爲替時勢의 變動이恒常大幅으로 動搖하기쉽고 따라 物價도變動하야經濟界의不安이不少하다

◇

그러면 무슨 理由로 各國은 다투어 自國에 損害되는듯한 이 金本位制의 停止를 할가

◇

그理由에는 各其國內的 事情이잇다 卽 各國은 다不況에싸여잇다 이 不況을 打開하라면 되도록 産業을 이르켜야하겟는데 産業을 이르키라면 國內에 購買力을 增大케하는 同時에 國外에 商品을多數 輸出하는수박게 업다 國內에 購買力을 增大케하자니 貨幣를 多數發行하야 國民에게 가지게해야하고 國外에商品을 多數 輸出하자하니 他國品보다 低廉하게하지안으면 안된다 그리하야 國內에는金의 輸出을 禁止하야 兌換券을 되도록 만히 發行하게하는 同時에 從來의 正貨準備보다도 적으나 金額의貨幣를 發行케하는兌換制度를쓰는 卽 인플레이숀을 强行하고 國外에는 爲替時勢를 低落케하는 金本位制의停止를强行하는것이다 ——(繼續)——

寫眞說明 ▲醫師…이것을服用하면죽낫겟지

株、商品界大觀

1934年의 株、商品界와엇더한 變動이잇슬것인가? 世界經濟界가 混沌한지금에잇서 輕輕히前途를卜키는無謀한 일이라고아니할수업다 그러나 지금目前에 나타난 材料로推察하야 大體이러하리라는것을 말해둠에긋치고저한다 (一記者)

株

『인푸레』過信不可 世界經濟動向을注目

九年度의豫算總額이 廿一億의彪大한數字임으로 財政인푸레는 不可避이고 低金利의影響을 陳腐한材料라고만 볼수업고 軍事豫算의刺戟을受한事業界는 好調가繼續될것으로 其他의株式도好調가 豫想되는터이나 海外財界의惡化念慮 特히米國의通貨政策으로惹起될 世界的通貨混亂에伴한 財界惡化不安等이 잇슴으로放心할수업다 歐洲金本位國은 弗貨의下落과磅貨의下落(米國이昨年來의政策을强行하면 英國도磅爲替騰貴에依한打擊을바더 이防止策으로 磅貨引下를講할것)름에싸이어 金本位를停止하게될지도모르고 世界的通貨新比率로安定되기까지는 各國財界가混亂하겟슴으로 이에對한關心이무엇보다큰터이다 딸어서 國內에限定한景氣好轉期待보다도 世界經濟動向이重視될이름으로 今年의株界는 非常한波瀾을展開케될것으로 봄이올코『인푸레』만過信할수업슬것갓다

綿絲

增産의重壓으로 二百圓이天井일가

生産高二十九梱出現이 豫想되는程度로 增産이豫想되는日本의綿絲는 이것이잘消化될가疑問이다。米棉은民間最終豫想이 千三百餘萬俵로 政府豫想보다도 增加되어減反의效果가 적음을豫說하얏다 이增産의 壓迫이잇는以上現在綿絲豫想으로보아市勢의騰勢는 期待할수업고 先物二百圓이天井이아닐가하는觀測이 잇다

米

下値保持나 上伸至難 低迷의域不脫?

第二回收穫豫想이 日本米六千五百九十六萬餘石 朝鮮米一千八百十一萬餘石의大豐作으로 供給이만어 過剩米를 만히 次年度에넘길것은 嚴然한事實일것갓다。政府에서 그냥放置한다면 崩落을難免할것이나 米穀統制로 七億圓의米穀運用資金에依하야下値는 保持될 것으로 봄이妥當한 觀測으로 最低公定米價 二十三圓 三十錢以下로는 안갈 것이다。그러치만 實收穫 發表도 二回豫想과가티增收이라면 政府의買上만가지고도는 인푸레影響만가지고는高價를豫想할수업는것이事實이오 特히 統制法圈外에잇는朝鮮米는더구나高價期待가 적다고볼수박게업다 昨年末에이미 申込米가 殺到되어米統法效果가 疑惑에빠진것을證明한點으로보아統制法을信賴키어려운點이업지안은터이다。一般的으로購買力이增進되어朝鮮小農까지도넘하쌀밥먹고견딜만한餘裕가생기기前에는 米價의上伸을期키難할것으로 지금經濟狀態에잇서서購買力增進을期키어렵다면米價는 結局에잇서서低迷의域을不脫할것이나아닐가?

綿布

輸出趨勢가問題 今後가一層重視된다

在荷增加에呻吟中인綿布는 輸出減退에困한것이오 輸出減退는海外諸國의 高關稅障壁에依한것이다 英印에對한輸出이殆無狀態로 綿業界에大打擊이엇다 對印輸出은日印會商成果如何에잇는데 이것이엇지로라도 끗이나면輸出이잇기는하겟스나 어늬程度일지疑問이오 全世界가不景氣이오 生産過剩에陷할때인만큼 日本製品이얼마나코스트를내려가면서 進出할수잇슬가注目된다

人絹

市價水準의訂正 需給基調가變動될듯

近來非常한勢로써增進되는人絹은興味를갓게하는바인데 日本九年度生産도八年度에比하야六割增인一億四千餘萬封度가豫想되는터로이大增産에對하야 果然內外需要가이가티激增될것인가?비[illegible]調에잇서서大局的으로 悲觀이업다고 하드래도 需給의時間的均衡이 잘될가가問題이며原價採算으로보아六十圓前後의것이低로나말니든狀態는언제까지繼續되지안을것으로下半期에는人絹市價의水準訂正이잇슬것갓다

謹賀新年

安岳 龍門面事務所 職員一同

安岳郡大遠面 金農場

朴周晟

安岳郡龍門面玖花里 申麟均

朝鮮鐵道株式會社 安岳營業所 電話一七番

安岳郡廳 職員一同

信川郡山川面 閔贊植 朴泰甲 金允華 廉炳益 金鎔河 閔長植 崔益壽 文致祚

安岳郡邑內 朝日自轉車商店 電話一六番

安岳郡 元楨玉

安岳邑內 元楨薄

安岳郡大杏面猪島里 各種運送 福島商店

安岳郡大杏面 加藤農場

安岳郡龍順面 職員一同

安岳郡 昌信醫院 宋榮璨 電話一四番

安岳郡 貿易商 元煩成 電話四一番

安岳郡 貿易商 金應石 電話四〇番

安岳郡 明月舘 金泰燮

安岳郡 支那料理店 東和春

安岳郡 延學斌

安岳郡龍門面 東倉釀酒場

安岳郡龍門面 東倉金融組合 曺日煥

信川郡用珍面 柳川釀酒場 高弼勳

信川郡用珍面 河有聲

安岳郡銀紅面 職員一同

安岳郡安谷面 職員一同

信川郡蘆月面 職員一同

安岳郡大遠面 職員一同

安岳郡安岳面海倉里 李熙憲

信川郡用珍面 面長 尹基祥

安岳郡大遠面 面長 金善直

安岳郡安岳面 宋基用

安岳郡邑內 訓謙釀酒場 李殷鎬 電話三七番

朝鮮日報社安岳支局 元柳邊 性在宗 甫明審

安岳郡邑內 元昌釀酒場

安岳郡邑內 金融組合 大關峰次郎

安岳郡邑內 綿布絹織 協茂東

安岳郡邑內 金秉寬

安岳郡西河面 面長 任載爀

安岳邑內 共信商會

安岳郡邑內 綢緞布木 不老雜貨 楊山商會 電話二〇番

安岳郡邑內 金昌植

安岳郡邑內 崔昌林

安岳郡邑內 李禎燦

安岳郡邑內 崔大淳

安岳郡邑內 司法代書人 李在燮 李孝根 郭弘涉 宋澤根 禹基範 李璂珠

安岳、邑內 日昇樓 郭仁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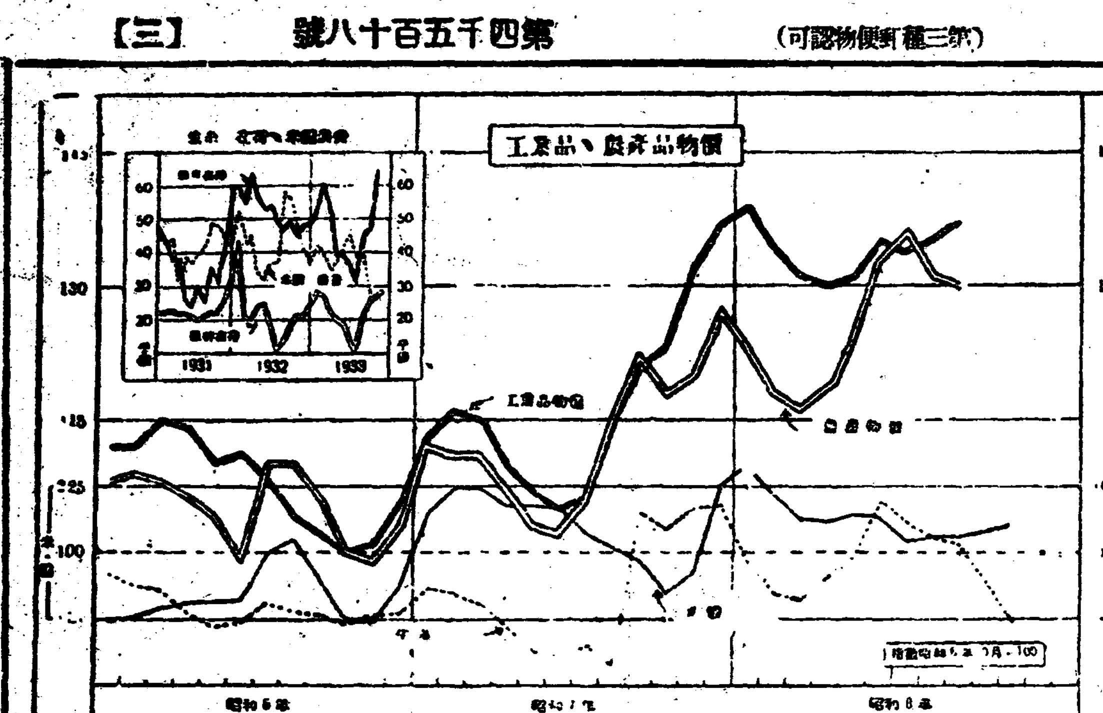
安岳、邑內 醫學士 咸元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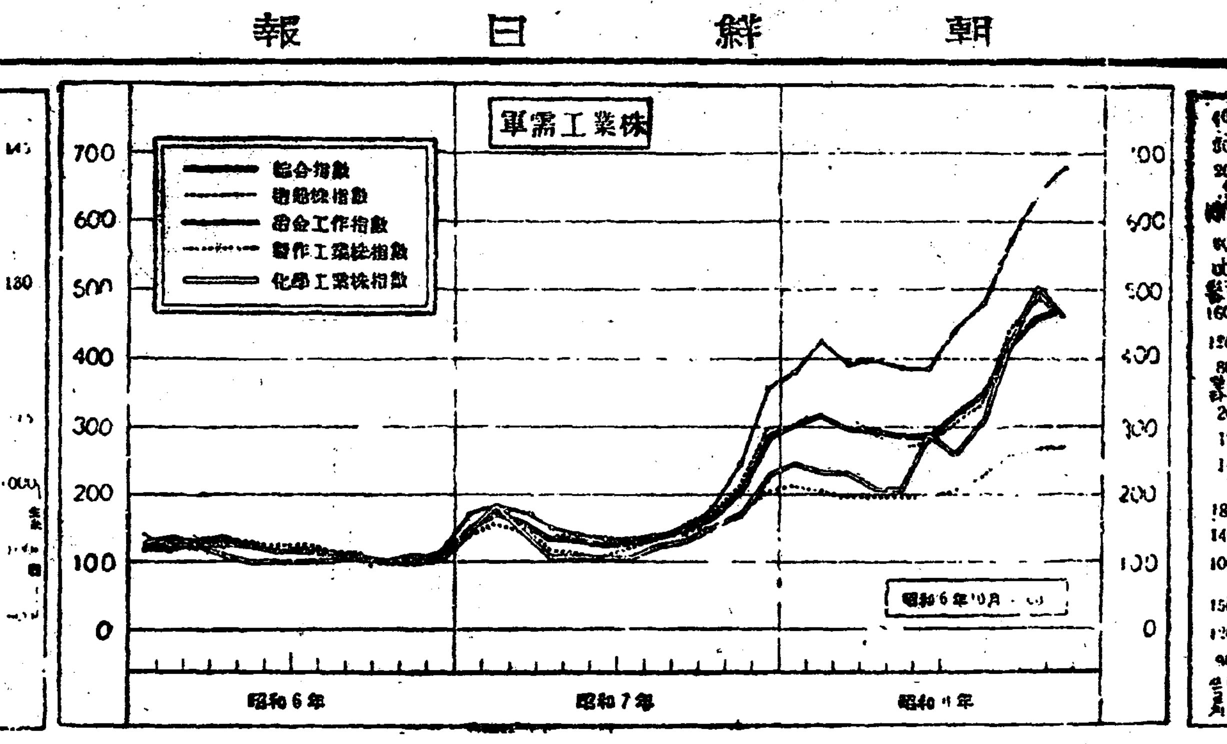
安岳郡大杏面 職員一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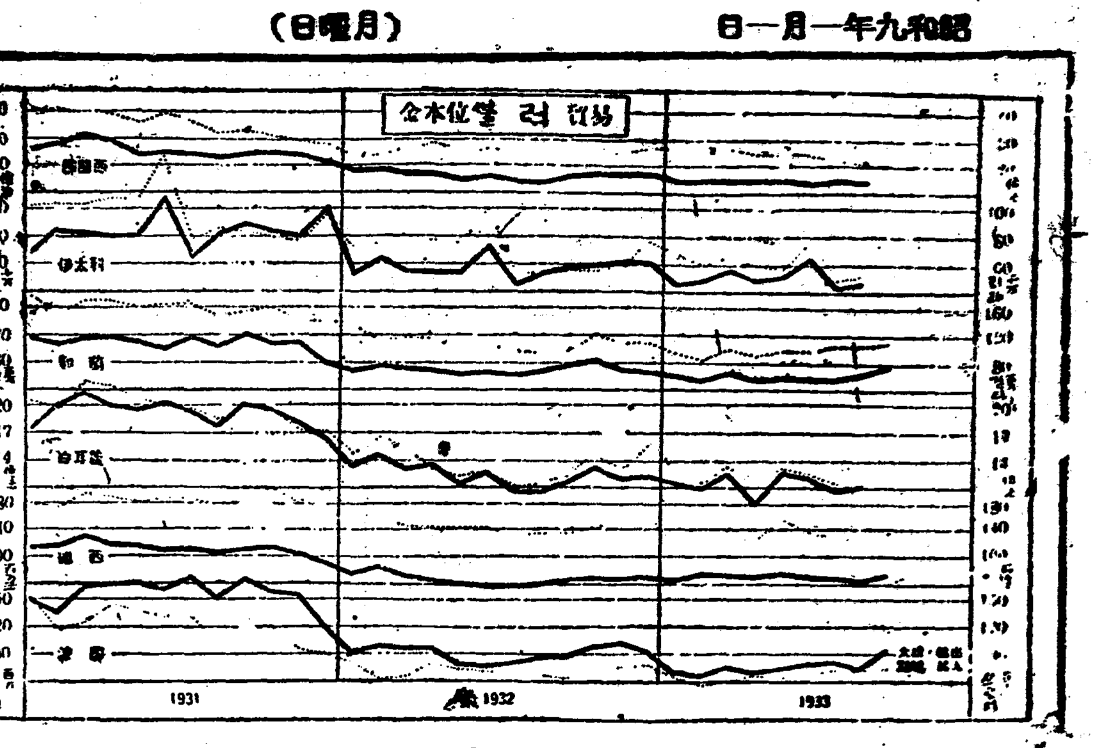
安岳郡文山面 職員一同

安岳郡銀紅面溫泉里 又春舘 呂宗淳

安岳郡銀紅面溫泉里 鷄林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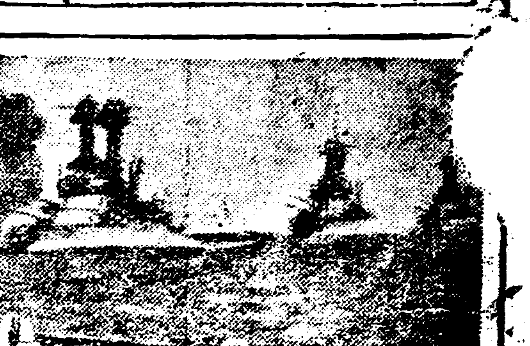




戰爭經濟와 非常生活

……豫想되는 將來戰爭 그影響을 中心으로 【二】

金洸鎭



一、戰爭은 戰爭으로 根絶되엿든가?

敵國은 언제든지 弱肉하고 自國은 全然 正義를爲하여 崇高한使命을宣布하기爲하야 싸운다는것이 지금것『戰爭의目的』이 되여잇엇다。

比할데업는 慘禍를世界人類에게부어준 歐洲大戰亂이開始될때에도 이번戰爭은『獨逸미리다리즘을 克服하기爲한 戰爭』이니『戰爭을根絶하기爲한 戰爭』이니하고 여러가지『戰爭의目的』이 宣傳되엿고 그目的을爲하야 一千餘萬의勇士는戰地에서 憤死하엿다。

그러나 戰爭이戰爭으로 克服되엿든일이잇어든가? 歐洲大戰이 終幕한지十六年、世界는如前이 武裝平和의險惡한空氣에 싸워잇다。國際聯盟이成立되고 不戰條約이批准되엿으나 休戰以來 한번도 戰爭이 이러나지안이한해라고는 업엇다。聯合國의獨國侵入 土耳其와英國間의戰爭、佛蘭西의시리아戰爭、中國의內亂、印度의反英鬪爭、滿洲事變、米國의頻頻한 南米征伐等等……世界大戰은『미리타리즘을 打倒하기爲한戰爭』이란 스로-간을高調하며 싸웟다。

◇

그런데 休戰後 왜 데모크라시ー는 行勢를하지못하게되엿나? 伊太利의뭇소리니ー、波蘭의빌스즈스키ー、獨逸의힛트러ー、其他西班牙、希臘、土耳其波斯等等國에서는 獨裁政治의 납팔소래가 곳잇엇시이러나고잇다。軍備縮少會議는 거진每年開催되엿으나 各國의軍備는 每年加重하엿을뿐이다。即 過去五年間의 世界는 恐慌으로因하야 一般經濟活動의 指標인生産、消費等의經濟統計는最近까지低落의一途를 밟어왓는데 各國의軍事費는 恐慌과는 全然關係가 업는것가티 急激히增加하엿다。世界의軍事費와 工業生産價額의 推移를보면다음과갓다。

△軍事費指數와世界生産價額指數 (一九二八年基準)

	軍事費	世界生産
一九一三年	六四	五四
一九二五年	九〇	九七
一九二六年	九一	九二
一九二七年	一〇〇	九五
一九二八年	一〇〇	一〇〇
一九二九年	一〇四	一〇四
一九三〇年	一〇七	八六
一九三一年	一〇四	六九
一九三二年	一〇七	五六

【備考】『다이아몬드』誌。昭和八年十二月十一日號。

世界大戰前에比較하여보면一九三二年度의世界軍事費는一九一三年보다約三分之二가增加하엿다。그런데世界工業生産은다시戰前의水準에까지低下하엿다는如前한戰爭準備만보아도戰爭의危機가 얼마큼急迫하엿는가를알수잇다

大體로보아 近代의戰爭은好景氣때에爆發되엿든일은업섯고 恐慌後의不景氣時代가 오래繼續될사록戰爭의危機는더욱날카라워지는것이다 戰爭을主權者의高尙한趣味로생각하든古代에잇어서는 戰爭은勿論國庫가充實한豐年에 計劃되엿을것이나 그러나近代의戰爭의動機는그와反對이다 即社會의生産力이景氣循環의法則에依하여大大的으로擴張되여 그것이世界市場의 一定한限界에 부두치게되면必然코一大恐慌이爆發되고 그恐慌ー不景氣를克服하기爲하야 各資本主義國家는 唯一한活路를 外國市場의暴力的獲得에求하라고한다 即商品市場、投資市場으로서의 植民地爭奪戰이開始된다 植民地의獲得은 地球가分割되기前에는 平和的手段으로進行되겟지마는 分割된他國의領土에侵入하라고함으로 自然히國家間에衝突이생기게될것이다

이리하야 恐慌의影響이深刻하면할사록 不景氣가長久히繼續할사록 戰爭의危機는더욱增大하여지고 따라서 各國間에는軍備擴張의激烈한競爭이演出되고 不景氣에도不拘하고國家財政의大部分은 直接間接 戰爭의準備費로支出하게되며 軍備가充實하게되면 資本家의好戰的性質은露骨化하여지고 愛國情熱은資本의運命과結合하야 國運의興廢가오직戰爭에서만決定되는것가튼觀念을民衆의머리에부어주게된다 이러한現象은 前述한바와가티 우리가最近世界의經濟的政治的諸情勢에서 明白이보고잇는바이다 그러나今後의戰爭은 武器와武器의戰爭이아니고 一國의軍人과他國의軍人사이의戰爭도아니고 한번世界의一隅에서戰爭이爆發되기만하면 全世界가모다그渦中에 쓸리여 들어갈危險性이多分이잇을뿐만아니라 萬一自國이그渦中에들지아니한다할지라도各個人의日常經濟生活은 그全部가戰爭의影響에서脫出치못할것은分明하다 即、戰爭의開始와同時에 世界經濟의諸關聯은破壞되고 各國家間에商品流通의全體系는根本的으로攪亂하게될뿐아니라 國內에잇어서는 各資本家의利潤慾은 一層 露骨化하여질것이고 奸商들과其他戰時利得追求者等의投機熱은더욱旺盛하게되여 國內經濟는混常이動搖하게될것이다 世界各國의帝國主義者들은『國家總動員計畫』을미리세워가지고將來의戰爭을爲하야大大的準備를進行코잇다 그러면 今後戰爭의規模는 어떠할것이며 그經濟的 社會的 影響은 各社會層에어떠케 波及될가?勿論 이것을 正確히豫見할수는업다。그러나 現在各國의戰爭準備와 一九一四ー一八年의 世界戰爭에미루어 將來戰의大綱을짐작할수잇을것이다。

二、戰爭形態의進化와 戰爭準備

『軍隊의編制、裝備及戰法 其時代一國이到達한 生産의段階及交通組織에依存한다』는 엥겔스의말과가티 戰爭의形態는生産力의發展을따라變化되여왓다。特히 産業革命以來의 生産技術及産業組織의進化는 戰爭形態를눈부시게突變케하엿다。

即、從來의劍과 활(弓)로싸우든 戰爭은 火兵器의出現으로 大規模의殺人이 可能하게되엿고 世界大戰時에는 化學兵器ー毒瓦斯가 參加하엿다。電氣兵器는 第一次世界大戰에는 登場치아니하엿으나將來戰爭에는主要한 役割을할것은 分明하다。新兵器의採用은그것을使用하는軍隊의編制와作戰方法을一變케하엿다。裝甲自動車의出現은 兵馬를使用치아니하는 騎兵隊를製造하엿고步兵은小銃과劍을던지고 機關銃을메게되엿다。따라서 戰法도變化치안을수업섯다。特히世界大戰에 이르기까지의戰爭은陸地와海上의二元的戰鬪이엿으나 世界大戰의戰鬪의分野는새로이空中戰과水中戰과地中戰의 三元的分野를加하여 全部五元的戰法을使用케하엿다。

朝鮮農村의 階級分化狀態와 自作農創設計劃

朴用來

階級構成內容

農業에잇서서의 階級構成은 工業과가티 그리簡單明瞭치안타 工業에잇서서의 階級을보면 資本家 手工業者 賃金勞働者의 三大範疇에 明確히區別할수잇스며 中間階級인手工業者는 資本主義制度下에서 大工業의 發達을따라 一般的으로沒落할運命에잇서 量的으로나質的으로 大勢를 左右할만한努力을 갓지못하엿스니 結局은 一部의少數資本家와大多數를占領한賃金勞働者의 二大階級이 相對峙하야잇다 그러나 農業에잇서서는 事情이다르다 即 地主、資本家的借地農業者 自作農、自作兼小作農、小作農、農業勞働者等의 諸階級에于先區分할수잇다 그리고 다시 地主階級에도 自己自身은 何等農業經營에直接關與치안코 其土地를賃貸하야 但只地代를收得하는 寄生的 土地所有者와 多數의 農業勞働者를 雇傭하야 資本主義的으로 農業을 經營하는 土地所有者가잇스며 自作農階級에도 自身은 若干勞働에從事함에不過하고 大部分은 雇傭農業勞働者를驅使하야 農業을經營하는 大自作農과 自家勞働을主로하고 若干의農業勞働者를雇傭하야 農業을經營하는 中自作農과 原則으로 全然他人을雇傭치안코 自家勞働만으로 土地를耕作하는 小自作農이잇다

◇

이제 右諸階級의 對立關係를 槪觀하기로하자 本來의意味의無産階級이라면 農業勞働者階級이잇을뿐이다 그러나小作農으로말하면 果然形式的으로는 小企業者라할지나 그들의經營規模는極히적고 他人을雇傭치안음은勿論 외히려自身이他人에게雇傭되여 賃金勞働에服從하고잇는形便이니 實質的으로는 無産階級과別로다를이업다 單只이階級을 農業勞働者階級과 區別하기爲하야半無産階級이라하기로한다 以上의兩階級이 即 農業에잇서서의 無産者的階級이고 이에對立하야 地主、資本家的借地農業者、大自作農의三階級이 地主階級으로서對하야잇다 그리고이兩階級間에介在하야 浮動하고잇는 中、小自作農及自作兼小作農이中間階級에該當한다

如斯히 農業에잇서서의階級構成은 多岐複雜하고 其間의利害關係가錯綜하야 區別이明確치안을뿐더러 一階級에서他階級에의向上도 반드시困難한일이안이니 階級關係는 더욱混沌狀態를呈하게되는다

◇

그러면 朝鮮農業에잇서서의 階級構成을 數字的으로考察하여보기로하자 여기한가지困難한問題는 現在朝鮮統計가不完全하야 階級關係를分析하기에 不充分하다 그러므로 粗略하나마 地主를地主階級 自作農及自作兼小作農을中間階級 小作農을半無産階級에 區分하고『朝鮮小作에關한參考事項摘要』에서 地主、自作、自作兼小作、小作農戶數累年表를 그대로引用하기로한다이에依하면昭和六年末現在農家總戶數二百八十八萬 一千六百八十九戶中 地主(甲)即其所有土地全部를 小作시키고 自身은耕作에從事치안는 地主가二萬三千十三戶(〇•八%)이고 地主(乙)即其所有土地의大部分은 小作시키고 一部分을自身이耕作하는 地主가八萬一千 六百九十一戶(二•八%)이다 自作農은四十八萬八千五百七十九戶(一七%)이며 自作兼小作農은 八十五萬三千七百七十戶(二九•六%)이고 小作農은 百三十九萬三千四百二十四戶(四八•四%)이다

이를要컨대 半無産階級이 農家總戶數의 거의半數를占領하야 자못重大한意義를갓고잇스나 中間階級도 이에比等한數에達하야 看過할수업는勢力을갓고잇나니 農業에잇서서의階級分化가 工業과는判異함을알수잇다

然而 大自作農은 地主階級의範疇에너어考察할것이나 其大部分은 其以下의中自作農과實質上거의區別할수업슬뿐더러 其數爻도그리만치안코ーー農地經營別戶數表(大正十二年調査)에依하면 三町步以上의『大自作農』은 九萬四千四百五十三戶이다ーー우에 引用한統計도大中、小自作農을分類치안엇스니 特히이를區別할必要까지는 업슬줄로생각된다 또農業勞働者에잇서서도 引用한統計는이를無視하엿고 朝鮮의農業이아직도 半封建的小農制에서 버서나지못하엿슴을따라 其數爻ー亦是農地經營別戶數表(大正十二年調査)에依하면 十六萬二千二百九十戶이다ーー로나農業에잇서서의重要性으로보아 이를考慮外에두어도 그리큰問題가되지안을줄안다 그리고同統計에分類된火田民ーー四萬一千二百十二戶(一•四%)ーー도 便宜上除外하엿다 ‖【繼續】‖

日本財界와 世界經濟主潮

◇……加藤朝銀總裁 談

昨年六月倫敦에서 開催된世界經濟會議는 不幸히不成功에終하얏다 爾來世界經濟는分裂傾向을促進하야 各國의經濟的對立은倍나深刻苛烈에赴하고 그대로의推移를繼續하면 世界經濟는解體되여 往時의鎖國時代에逆轉할지도모르는情勢이다 特히 昨年三月의米國金本位放棄는 非金本位國과 金本位國과의對立을激成하야 延하야世界經濟機構의根本的變化를避할수업게하얏다 如斯히現在의世界列强은불럭或은 經濟的國家主義를國策으로한다하나 各國의相互依存과其協力이업시는國家經濟의發展을期할수업고 또世界不況의克服도不可能할것으로 排他的孤立的經濟政策이果然自國의經濟更生을招致할수잇슴가 英國은불럭作內에旣居함에依하야 景氣轉換에多小볼만한것이잇스나 産業統制化를强行하는 米國은 아즉試驗時代로서 前途混沌을未免이오 佛蘭西를盟主로한 歐洲金本位諸國은 貨幣制度維持에汲汲하는남어지 景氣는도리어 惡化되는中이다 如斯히 國家主義經濟를採用하는 諸國은 쓸데업시 世界經濟를混亂에導할뿐으로 所期의效果는 事實로擧하지못하얏다 此間日本은 各國으로부터 排斥壓迫을受하면서도 何等積極的으로 排他政策이나 國家主義統制를 取하지안코서도 近來産業恢復에 景氣上昇에 良好한徵候를示하는中이다 그러나 現在와如한世界經濟의 動向은 必然的으로日本經濟의向上을 阻止코저할뿐아니라 國際政局은 歐洲에서나 極東에서나 前途더욱多端할境遇에잇서 日本은 滿洲國의 經濟建設을 極力支援할極히 重大한時局에 直面한中임으로 잘事態의推移를 洞察하고 이에善處하여야할것이다

◇

世界의 通貨關係로昨年十月末以來實施된 米國政府의金買上에依하야 收拾치못할混亂狀態에陷하얏다 米國의金買上은弗의減價를通하야 國內物價의引上을 目的으로하나 各國의爲替關係에影響한것이甚大하다。即低爲替로써 諸般의經濟政策의 基調로하는現在에잇서 弗低에基因한日國爲替의 他動的躍騰은 經濟의根本을脅威하는것으로圓、磅의騰貴가日、英兩國經濟의 不安이됨은 當然하다。그러면英國은、爲替平衡資金의 活用에依하야 對米爲替를 五弗五十仙의高價에서五弗十仙臺로 低下케하고、財界의惡化를防止하는中이나、日本의圓爲替는 三十一弗內外의高價에依然히止하고 弗建貿易의惡材料가되어잇다。弗低의影響은佛蘭西等의 金本位國의金流出의激化를 誘致하고 金本位의維持가더욱 困難함과如한狀態이다。米國의金操作은 其後不活潑케되어 爲替市場은多少小康을保하기에至하엿스나 이것도다만 目前觀으로서 其禍根은 全然除去된것이아니다 그러나 米國에서는健全通貨論者의主張이强硬함으로極端的『인푸레金』도敢行키難하고從하야弗의低落限度가적어 弗에基因한爲替의激動은 업슬것으로看做되다 一方佛蘭西의金本位는 最近英國과의 協調가成立되어 金價格昂騰及 弗低에基因한破綻念慮는업섯스나 對內的經濟의惡化는 金本位放棄를不可避的으로하는形勢로看取되다 米國의金操作政策은 爲替不安을招來하고 各國의經濟的對立을激化하얏는데 其反面 將來의貨幣制度로서의金本位는 絶對的의것임을實證한듯하다 昨年末英米間에 爲替協定이喧傳되엇스나 米國의內情은 그것을許치안음과如하고 況國際的爲替協定은지금가려서는可望이업고 從하야國際金融의混亂은容易히拾收키難한터이다 米國에서 大統領의獨裁權에基한 平價五割切下가有力化하나 이것도 國際的爲替協定이업시 그實行은不可能하고 無意義하다 將來各國은 金本位에復活할것이나 其指導的地位에잇는磅의體가아즉不安定함으로 自然各國金本位의前提인 平價切下를躊躇케한다 如斯히 當分은各國共히 爲替動搖의惡影響을痛感치안을수업슴은遺憾이다(繼續)

◇穎雲金容鎭氏試筆

朝鮮貿易은 大體로好轉

◇……林財務局長 談

(上略)昨年中 朝鮮貿易은好調이엇는바 即 昨年十一月까지의朝鮮對外貿易은 輸出四千七百餘萬圓 輸入五千八百萬圓으로前年보다 輸出二千七十餘萬圓、輸入二百十萬圓의 增加이엇고 特히 輸出의增進이顯著하엿든까닭에 겨우千七十餘萬圓으로 近年稀見의輸出入權衡이 改善되엇는데 이것은主로滿洲國의經濟的發展과 그國稅一部의改正에依한것으로 從來入超이든 朝鮮對外貿易이 昨年八月以來 依然出超가轉向한것은 朝鮮貿易史上 空前의記錄이다

또 對日貿易의趨勢를一瞥하면 移出二億七千四百餘萬圓、移入三億六百餘萬圓 差引入超三千二百餘萬圓이며 前年보다移出四千餘萬圓移入七千四百餘萬圓의增加인데 移出貿易의 增加는農産物을비롯하야 水産物、鑛産物等의 荷好調로基한것이며移入에는 輸移出貿易의 活躍과生産品價値上의 影響을바다朝鮮內의 需要活況을示하고特히事業建設材料、棉花及肥料等의需要가 매우旺盛한까닭이다 朝鮮內財界의情勢는 米作이昭和五年에 그다음되는 豐作을비롯하야 農産物도 相當히增收하고水産界도 亦是年初以來 相當히豐漁를 繼續하엿는데鑛業界特히 産金事業은 金地金의値上에 伴하야 正白熱化 하엿다 前年以來 繼續 實行中의 窮民救濟 土木工事는 各地生業의資金을 撒布하고全朝鮮에亘하야 物資의運行을圓滑케한同時에自力更正 農村安定의方策는 高潮에達하엿다、

◇

金融方面에는 日本의未曾有低金利에刺戟되야 昨年七月 朝鮮銀行의貸出標準利子步合引下와呼應하야 各地組合銀行의預金協定利率도 引下하고朝鮮內에도 空前의低金利를現出케되엇슴을不拘하고 金融狀態는매우緩慢하야 從來恒常資金難이든朝鮮의銀行業者도 潤澤한所持資金이잇는奇現象을持續하엿다 이와가든低金利時代에는投機思想이熾烈케될念慮가잇섯다 金融業者는往年好況時의經驗으로自制되여온結果압흐로도緩慢한情勢가持續할것으로생각한다 다시金融機關을보면 殖銀行은地方의資源産業開發에寄키爲하야 樞要地에支店을開設하는一面銀行의合同을하고 資本信用의增大를圖하엿다 即朝鮮商業銀行은 北鮮商業銀行을 湖南銀行은東萊銀行을 또慶一銀行은鮮南銀行을合同하고 資本資格을缺如한密陽銀行은廢業케되야 朝鮮內銀行界는 그陣容을整頓하고 新銀行令아래 完全히運行케되엇다

◇

다음에 昨年一月開業한 朝鮮信託株式會社는 群山信託의買收를비롯하야 다시釜山信託及共濟信託을買收하고그使命의達成에努力하엿는데今年에도信託業合同에 繼續努力하라고할다金融組合은昨年八月에旣設各道金融組合聯合會를合倂하야새로히朝鮮金融組合聯合會가創設되고 組合近者의 形態를보면本支所를合하야 八百三十餘、組合員九十二萬四千餘名、貸出金約一億三千八百萬圓任受金一億九百餘圓이다

慶州

慶州郡入室 入室釀造場

慶州良洞 七實金鑛 主 李鍾海

慶州郡 川北面職員一同

慶州郡安康 日浦廣治

慶州郡甘浦 甘浦酒造株式會社

慶州邑 慶州煙草販賣所 岩倉政夫 白仁錫

慶州邑 李圭正慶州支店

慶州邑 金汶榮商店

慶州邑 山口醫院 田中敏信

慶州 穀物商組合

慶州電氣株式會社

慶州邑事務所 井上茂 外職員一同

慶州郡農會職員一同

慶州郡栗洞 孫秉權

慶州醸造株式會社

慶州郡金丈 金丈釀造場

慶州 商工會

慶州 土曜會

慶州郡川火 河鎭奎

慶州郡排盤 李圭寅

慶州良洞 李錫泳

慶州郡安康 江西區長 鄭鎭俊

慶州郡甘浦 達城館 李化坐

慶州郡安康 安康醸酒株式會社

慶州郡甘浦 三光旅館 崔子仲

慶州郡乾川 乾川産業組合

慶州郡魚日 門原情一

慶州藝妓組合

慶州郡甘浦 龍野三之助

慶州邑 司法代書人 金寬浩

慶州郡安康 栗本玉次郎

東中尖禮 東英治

慶州郡安康 金森述

慶州 千葉壯之助

並川

天安郡竝川 竝川醫院 宋基英

天安郡竝川 葛田公立普通學校職員兒童一同

天安竝川 葛田面事務所職員一同

天安郡木川面新溪里 木川消費組合 專務 黃大孫

天安郡東面花溪里 東面事務所職員一同

天安郡北面梧谷里 北面事務所職員一同

天安郡木川面西里 木川面事務所職員一同

天安郡修身面 修身面事務所職員一同

天安郡城南面 球南鑛業所 朴容球

天安郡竝川 竝川郵便所 職員一同

天安郡木川面西里 水上正生

天安郡東面東山里 東面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天安郡北面 北面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謹賀新年

新義州

新義州榮町
新延鐵工所
新延サービス
電話(長)七三二番
電話八四三番

新義州眞砂町七丁目二九番
國境商事株式會社
社長 金義明
電話(長)三壹壹番
振替京城五二四五

鴨綠江土地改良株式會社
社長 金基鴻

新義州眞砂町七丁目番
國境通運株式會社
取締役社長 李肯夏
專務取締役 李載奎
電話(長)六一八番 七六一番
振替京城一一二二六

新義州眞砂町 共昌商會

新義州老松町 春谷洗工場

新義州梅枝町 尙敏商店

原木製材 委託賣買 國鉉材木店 電話九五〇番

新義州楊市通 楊西生產消費組合 新義州支店 電話九六七番

新義州老松町 萬盛洋靴店 主 白龍九

新義州麵屋消費組合 役員一同 電話九三四番

新義州老松町九番地 雜貨穀物木材商 西北商會 主 安成奉 電話一二五番 振替京城三八六二

新義州眞砂町 又新洋服店

新義州眞砂町五丁目一番地 青山病院 院長 金鳳文 副院長 柳丙秀 齒科 李昌橘 電話二六七番

新義州老松町二四 朝鮮料理 甲乙兼營 喜樂 主 崔玉珠

新義州府老松町 綿糸布 貿易商 ㊂ 三共商會 電話九四八番 電略(〇三)又ハ(ミキョウ)

青山材木店 鄭載曜 電話九五四番

新義州彌勒洞 義新學院 院長 康箕俊

新義州 義信學院 敎員 崔孝善 金履國 崔龍吉

販賣 講買 靴下手袋 支那紬 綿布各種 織造機 絨緞毛絲 綿系各種 朝鮮平安北道 社團法人 新義州産業組合 電話一〇〇番 電話五一六番 電略(산)又ハ(サン) 振替京城一五二五五番

新義州雲井町 德興商會 主 桂璜集 電話一〇六〇番

新義州彌勒洞 米雜穀 貿易委託買賣 義山商會 電略キ(又ハ)(キヤマ)

利和時計店 主 白志燁 電話一四二番

益隆商會 電話二一番

新義州彌勒洞 普興商會 電話五五三番

新義州彌勒洞 光城商會 電話九六四番

日本石油株式會社滿洲代理店 合資會社高橋商會 油店平北代理店 新義州眞砂町七丁目 太白合 電話(長)六五八番 振替京城一三一二六番

平安北道各金融組合 朝鮮金融組合聯合會 平安北道支部

新義州眞砂町五丁目 金銀細工 時計眼鏡 春園公司 金東錫 電話九四五番

新義州老松町 圖書文具 網版布木 雜貨 文化堂 電話七一番 振替京城二七三五五番

新義州 濟衆醫院 院長 李熙遇

新義州眞砂町七丁目 明山醫院 院長 黃明坤 醫師 吳祥玉 電話二二三番

新義州府老松町五番地 保民醫院 院長 李泰環 產婆 張炳模 電話七三六番

新義州府 順天醫院 院長 金益銓 電話一〇三九番

東洋醫院 崔允鼎

新義州眞砂町 華山齒科醫院 院長 李根用

平安北道廳 高等官食堂員一同

金基鴻

李熙廸

李漢俊

義州郡光城面 面長 金學俊

李龍文

鄭瑞麟

金麟瑞

白基肇

新義州初音町四의四 張驥植 電話(長)一〇一番

高有崙

新義州府榮町 張晩樺

新義州府榮町 趙尙鈺

新義州麵屋消費組合 取締役 安秉瑞

新義州府外土城洞 金學鉉

新義州府老松町四 朴榮徽

新義州老松町 海陸物產 各種果物 委託貿易 三正商會

新義州老松町五 原木製材 委託賣買 義信材本店 主 李振坤 電話[illegible] 小賣 [illegible]

新義州眞砂町 建築金物 洋釘針金 家庭金物 塗料一式 東亞金物店 主 林鳳元

新義州警察署員一同

國境タクシー 主 李天柱 電話一一四番

新義州眞砂町六丁目 高級 既成 洋服卸小賣商 金井商會 電話七一四番

新義州老松町 七龍洋服店 主 朴七龍

新義州若竹町十三 活動寫眞化學研究所 東洋寫眞館 電話一〇三九番

新義州老松町五 海陸物產 委託買賣 運送部 東興商會 電話五六五番

新義州眞砂町四丁目二ノ四 司法代書人 朴道淳

新義農民共生組合 永運送店 主 金成玉 電話九六五番

新義州眞砂町 新義州洋服店 主 金承燦 電話九六一番

新義州榮町 鮮一印刷所 電話六〇八番

新義州榮町 精米業 貿易商 新興商會 電話一〇八番 電略(シ)又ハ(シン)

新義州老松町五番地 海陸物產 食鹽 果實 貿易委託 洋貨 雜貨物 取扱 永信商會 ㊅ 運送部 電話四二四番 電略エイ(又)ロ

新義州 國境勞働組合 經理部 運輸部 船舶部 作業部 電五六九番 電六〇一番

新義州常盤町三丁目 株式會社 鴨江輪船公司

新義州梅枝町 中央麵店 電話八六九番

朝鮮特產品蛤蠣貿易 ゴバー號 御ケーユヌ號 西鮮總代理店 自轉車及附屬品直輸入 商品 安日部分品 新安商會 新義州府梅枝町八番地

崔昌朝

新義州府眞砂町 卓昌河

文鳳柱

新義州眞砂町三丁目二의五番地 朝陽旅館 主 白瑢熙

新義州老松町 又新旅館 主 李鎭子

新義州驛前 朝鮮料理 鎭江軒 電話九一九番

朝鮮料理 新一館 主 方龍淵 電話一〇五九番

金善玉

張珊瑚珠

金錦香

金貞淑

李山月

金玉葉

金錦蘭

新義州 朝鮮券番 電話七四四番

田素紅

韓香花

新義州老松町 モロツコカフエー

ユニオン食堂

朝鮮日報社新義州支局 支局長 金永勳 特派員 李晃 記者 金初熟

新義州 布木部 泰昌商店 電話一〇〇七番

國境精米所 電話一一〇四番

新義州彌勒洞 太陽理髮館 主 邊漢節

新義州老松町六ノ一 三河屋洋服店 主 李錫柱

新義州彌勒洞 金卿疇

新義州老松町 東洋商店 主 崔東俊 電話九三二番

新義州眞砂町 海陸物產 委託及木材運送業 大榮商會

新義州彌勒洞 東亞精米所 電話五六七番

平壤精肉店 主 李承杰

新義州府雲井町 新光精米所

新義州雲井町 國際寫眞館 電話一〇六〇番

新義州府老松町 義山材木店

新義州老松町 海陸物產 各種果物 三種皮物 委託買賣 祐昌號 主 金仁鎬

新義州 高務商會 主 田德

新義州眞砂町四丁目 徽新洋服店 主 李昌國

新義州驛前 滿蒙天產物 各種羊毛皮 輸移出貿易 委託都散賣 金滿商行

新義州老松町 日用百貨 諸紙文具 直輸入商 一隆商店 電話五六三 振替京城二二八六番

順興商店

新義州若竹町 德賢商店

新義州眞砂町 仁泰時計店 電話八六一番

永順商店

西鮮商店 電話一〇五三番

新義州眞砂町 德山醫院 院長 金承鎭 電話三五番

新義州眞砂町 東華醫院 院長 金英哉 電話三〇五番

金宗源

朝鮮日報

新年號 其三

甲年과極東風雲 —前甲戌以來展開된變局— 【上】

文一平

戰爭을 根絶하고 平和를 賦與함은 人類의 常情이자마는 有史以來 大地上에 한번도 眞正한平和가 實現되어본적은업섯스니 적으면 사람과 사람사이에 크면 나라와 나라사이에 軋轢과 戰爭이 끈키지아니하엿다 이것이 理想과 現實의 一大矛盾이 아닐까 아마 모르면 모르거니와 今後에도 이人類와 이國家가 根本的으로 改造되지못하는以上에는 아무리 戰爭을 厭忌하고 平和를 希求하드라도 到底히 戰爭그것을 滅絶할수업슬것이다

여기 말하려는 極東風雲은

最近六十年

동안 極東에서 일어난 幾多의變亂을 槪括하야 略評을 試함이니 이期間은 十九世紀下半으로 二十世紀初期에 該當한 極東史上의 가장 重要部分으로서 한편으로 西勢東漸이 急激하여지고 또한편으로는 新興日本의 北進的步武가 顯著하야저 極東大空에는 언제든지 國際的低氣壓이 덥혀섯다

저번甲戌로

이번甲戌에 이르는동안에 무릇甲年이여섯이잇섯는데 不幸이도 이甲年마다 거의兵亂을 보지안흔적이 업섯스니 最近東方에서 일어난 幾多의波瀾과 風雲은 甲年을 떠나서는 到底히 說明하지 못할것이다 朝鮮안의 二次變亂과 日淸새의 二次葛藤과 더욱이 東洋最近의三大戰爭이 모다 이들의甲年에 爆發하게되엇슴을 보면 알것이 아닌가

어찌면 이러케도 甲年이兵亂과 깁흔因緣을 가젓슬가 이것을

偶發的現象

이라할진대 世上에 이처럼 奇異한일이또어데 잇슬것인가 或은 이에對하야 東洋固有의 陰陽說을가지고 解釋하려는이도 조차업는것이 아니나 구태여 너무나 穿鑿할것업서 여기는 다만 甲年과 兵亂의關係를 적으면 그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注意할것은 이들의 甲年에 잇서 東方風雲을 부르짓는 主動力이 半島나大陸보다도 흔이 島國에 잇섯슴으로 主動力의 趨向을따라 低氣壓이 작고 西로西로 移動하게 된것이니 前期에는 半島에 덥혓든 低氣壓이 後期에는 大陸에 퍼지게 되엇거니와

風雲變態는

매양 이氣壓關係에서생기는것이매 國際的低氣壓이 몰리는데는 곳國際的 風雲을 비저내일 危險性을 多分으로 가지고 잇는데엇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六十年만 거슬러올라가면 朝鮮이 아즉 鎖國時代에 屬하야 大陸과 겨우 從來의形式的關係를 持續하는外에 島國과는 公的交通도 열리지 아니하얏슴으로 朝鮮이 글짜대로 隱逸國이엿섯지만 半島將來의 무서운風雲을 입우칼 胚胎가 발서이때에 立太子問題와 閔升鎬의 炸彈事件으로 해서 생기게되엿스니 國命을 自締하든 大院君과 明成后의 軋轢이 裡面의 暗鬪에서 表面의 露骨化에까지 進展하게되엇도 甲戌以來의 일이다

이때 周圍情勢를 살피건대 東漸하는 西勢는 그步調를잽시놀려 亞細亞의 南北이아주 完全히

英露兩國의

占有에 도라가고 佛國의安南經營은 紅海航行의 自由權을어더 侵略에한거름을 터널더드되엇도 이甲戌이엇스며이려한世界 大變動에 먼저 눈을뜨게된 日本人은 王政復古와 아울러 琉球倂合을 斷行하고 다시 나가 臺灣 攻伐을 實現한것도 또한 이甲戌이엇스니 新興하는 日本이고개를 들기시작한것이 역시이 甲戌이라고 하야도 반드시妄發은 아닐것이다

一千圓懸賞小說 選後感

一考選者

◇

一千圓을 걸고 新聞連載小說을 募集한다하는 것은 朝鮮에서는 레코드이니만치 選者의 한사람으로 적지아니한 期待를 가지엇섯다。現在 朝鮮文各新聞에 連載되는 小說에 비기어 一頭地를 빼어난 作品—적드래도 그水準에到達한 新作家가 하나쯤은發見되리라는 希望을 가젓섯다豫選應募作品이 一百五十一篇이란 數字를 볼때에 이希望이 到達될 希望이 잇슬것갓다고 雀躍하엿다 그러나 及其也그 百五十一篇을 通讀할때에 失望을 느끼지 안흘수업섯다。웨 그러냐하면 그中에 三分之二以上이 이 懸賞募集의 趣旨를 正確히 認識치 못한것—다시말하면 新聞連載小說이란 어떤물건인지를 모르는것이거나 그러치 아니하면 甚至於는 原稿란 어떠케 쓰는것인지 文章의主格과 述語의 區分이 무엇인지를 모르는것이 엇기때문이다

◇

그中에서 골르고 또골라서 文章으로나 『스토리』로나何如間 小說로서의 要件을 具備하엿다고 생각되는것을 뽑은것이 豫選에 든七篇이다。이미 規程上에 發表되엇든것가치 豫選에는 應募作品의初頭十回分과 全篇梗槪만을 要求한것이다。이것은 勿論 許多한 應募作家의 努力을 節約하는 同時에 考選者의 努力도 節約하자는데서 나온것이다。그래서 豫選에 入選된 作品 七篇에 限하야 그 完作을 提出케한것이엇다。그中에 二篇은 棄權하엿고 五篇의作品이 完成되엇다。이 五篇을 三人의考選委員이 各其精讀하는데 一個月半의 時日이 걸렷다。

그리하야 三人과 밋 編輯當務者가 一席에 合하야 協議한 結果 別項과 가치 結定되엇다。入選作品이 업다하는 理由는 後段에 適하겟거니와 入選作品이 업는以上賞金을 어떠케 하겟는가 하는 것이 一問題가되엇다。新聞社로서는 이미 一千圓을 提供키로 公約한 以上 萬一 이번에 入選作品이 업스면 不得己 한번더 募集을하야 入選作이 생길때까지 繼續하는 것이。조켓다는 論도잇섯다。或은 一千圓을 『文藝賞金』으로 變更하야 文壇의 功勞者를 褒彰하자는 案도잇섯다。選者로서는 勿論 新聞當局者에게 그處分을 맛길수밧게업섯다。그結果로 一千圓을 選外佳作三篇에 適宜分配하기로 決定을 본모양이다。新聞社로서 公約을지키는意味로나、또는應募作者의 努力을 慰勞하는 意味로나 이以上더 圓滿한 解決方法이 업슬듯하다。

오직 크게 遺憾인것은 이만하면 朝鮮新聞小說界의 劃時期的作品이오하고 내노흘만한 作品이 업는것이다。이것은 懸賞에 依하야 훌륭한作家를發見하기 어렵다고하는 理論을 한번 더 裏書하는것 일는지 或은 朝鮮에 作家가업다하는 것인지 우리로서는 輕輕히判斷을 내리고십지아니하다

◇

이번 審査에 當하야 選者로서各其 따로이보앗지마는不期하고 大略一致하게 세운標準은 우선 習作時代를免한作品이란 標準이엇다 卽 첫재로 文章이文法的으로 適當할것 군소리가 아주업슬수는업드라도 比較的적을것、테마가 分明할것、스토리의 構造가適히 빈자리가업슬것—大略 요만한程度다。性格의 描寫라든가 獨自의 스타일이라든가、따도스、유모어、諷刺其他의 要素를 質的으로求하려는것은 처음부터 또도 아니한것이다。

그러나 不幸히우리가읽은 作品에는 이만한程度의 標準以上으로、뛰어나는것이업섯다。卽다시말하면 無數의 初學者的缺點을 차자낼수가잇섯다。地理의不合、플롯의薄弱、幼稚한 感傷主義、군더더기의 說明、不自然한場面、不自然한會話、極히幼稚한 作者의人生觀과、哲學論、無識한老婆의 有識한演說、時間觀念과季節觀念의無視와 處同사투리의 濫用、無意味한人物의出現、出現한人物의 行方不明、新派演劇式獨白、露骨的說敎、等等等—枚擧하기어려운 모든 缺點을 이作品들은 가지엇다。더구나長篇小說의 生命이라고할 性格描寫에 잇서서는 거이 全滅狀態엿다。能事를 농솜이라고 쓰기、深山의숫장사가 英語를 使用하기、소경處女가 每日물 걸레질을 치기—이런 失手도잇다。등을어서 簡單히 今後의作者志願者를위하야 말하자고하면

(一) 長篇小說에는 性格描寫가 첫재의 要素라는것(다시말하면 性格만잇스면 플롯이 업드라도 제적로 小說이 된다는것)

(二) 作者는 暗示만하면足하고 解釋은 讀者에게 一任하라는것(卽蛇足的說明、또는 說敎를 避하라는것) 以上두가지를 銘心하기를바란다

◇

이제、作品各個의 評을 簡單히 쓰고저한다。따라서 佳作三篇의 順位作定의理由는 無言中에 알게될것이다

『無花果』와『故鄕을등진사람』의二篇을 不得已割愛할수밧게 업섯다 『無花果』는 五篇中가장 떠러지는 作으로 性格이나 文章에 取할點이 업슬뿐더러 生活樣態가 朝鮮의 現實과 맛지아니하고 스토리로서의 焦點이 不明하고 背景으로서나 相對役으로서나 餘興으로서도 不必要한 人物들이 到處에 出沒한다。

『故鄕을등진사람들』도 一般的으로 文章과構想이幼稚하다。骨子가 低級한 新派演劇의水準을 버서나지못한點이만타。그리고 이作品은 其他의 點에 잇서서다잘되엇다 하드라도 今日의朝鮮의 檢閱水準에는 通過될可能性이업다。

남저지 三篇中에 『暴風雨지난뒤』가스토리의 興味로 보아 第一雜貨가된 作品이라고 보것다。人物의 處置가 比較的 完結되엇다고 보것다。『蒼穹』은 스토리로보아서 結末이 未完成品이요 悲劇으로서의 로는 너무 無味하고『카메니』로서는 大團圓이 讀者의 動者趣味的 要求를 滿足시킬수 업다『마음의太陽』은 너무도 通俗的인 스토리요 너무도 新小說式의 構想이다。좀더스토리를 自然的으로 展開시키엇드면 조흘뻔하엿다。

◇

大體로 前半보다도 後半에는 筆致가 훨신 進步된 形跡이잇다。『暴風雨지난뒤』의作者가 가장 將來性이 잇다는것은 各選者의 一致한 觀察이엇다。『蒼穹』의 作者는 才가 너무勝하니 좀더 애를써야하겟고 『마음의太陽』作者는 벌서 어떤타입에 固化되려는 傾向이잇스니 注意해야되겟다 이만큼하고 이번 募集의結果가 今後 斯界志願者에게 敎訓의 動機가 되기를빌뿐이다

千圓懸賞 長篇小說當選發表

本報革新紀念一千圓懸賞小說은 朝鮮文壇에 처음되는 壯擧이니 만큼 預選應募 一百五十一篇에 이르럿다。그中에서 考選委員이 嚴選에 嚴選을加한 結果로 七篇을選拔하야 完結作品을 지난十月末日까지 提出하게하엿섯다。七篇中 二篇은 權利를 拋棄하엿고 남저지 五篇이 完成提出되엿는데 그동안 二個月間을 考選委員이 審査한 結果 遺憾이나마 入選作品이라고할만한 作品을發見하지못하얏스므로 考選委員과 밋 編輯當務者가 協議한結果 以下의 三篇을 選外佳作으로하야 賞金一千圓을 다음가티 分配하기로하얏습니다。그리고 그作品은 本社編輯局에서 多少加筆하야 新年부터 紙上에 順次揭載키로하얏습니다。

◇入選作品 無

選外佳作

第一席 (賞金五百圓) 『暴風雨지난後』 京畿廣州郡中垈面可樂里李商鍾方 李巴村

第二席 (賞金貳百五拾圓) 『마음의太陽』 咸北明川郡下加面南山洞三八 玄卿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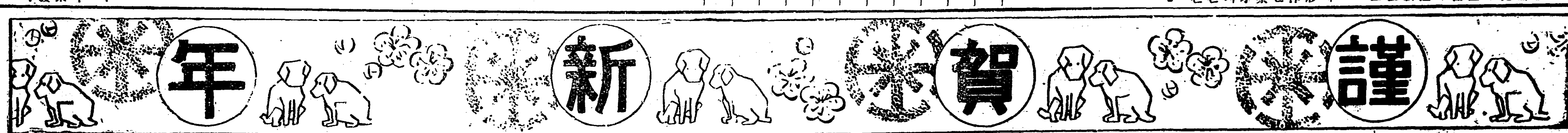
第三席 (賞金貳百五拾圓) 『蒼穹』 忠北淸州本町一丁目三二四 李高麗

割愛된二篇은如左함

一、『故鄕을등진사람』 金哲洙

二、『無花果』 李活

朝鮮日報社



朝鮮名物 三好化粧料 本舖京城昭格洞

京城府公平洞六五番地 ハイヤー タクシ 京一自動車部 電話光化門一三〇九番

京城南大門通一丁目九八番地 高級タクシ 亞細亞自動車部 電話光化門 二一七、二五一五番

京城府仁寺洞一一〇番地 朝鮮料理 天香園 電光 八五八、八五九、一、六〇九

大增築新修理裝飾調度沐浴室具備하엿습니다

營業種目
宮中式純朝鮮料理及西洋料理朝鮮一流藝妓의書畵舞踊歌曲•送別•歡迎•叙幽情•宴會婚禮壽宴高排膳(床)獨兼膳(床)園遊會•運動會•模擬店

純朝鮮名物料理 一等賞受領 食道園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電話光化門 四一五、四一七一番

京城鍾路 里門食堂本店 電光 四四〇七、四五〇、七四二番

仁川府外里 里門食堂支店 電話四五二番

朝鮮料理界元祖 明月館 京城敦義洞一四五番地 電話光化門 六四、八六二、一五〇九番

農村大衆、生途左右할 小作令內容檢討

―農業朝鮮의 劃時期的立法―

果然農村이 救濟될가

對話劇全一幕 小作令打鈴

◇◇序言◇◇ 농촌문제야 말로오늘조선의대문제입니다 사회각방면의모든사정이 급격히변천되고잇는 오늘에 어느구석에 바로잡고 고처나가야될문제가 업스리요만은 그중에서도 농촌문제는 어느문제보다도 터젹박한상태에 빠저잇서 하로밧비 기둥을바로잡어 노치안으면 안될문제가되여 잇습니다 다말하자면 농촌은집짓는데주추돌을노코 기둥을세우는터전가티 이사회란 큰집이서잇는데는 가장중한 밋바닥이되여잇스나 근년의농촌은가는곳마다살수업다는 농민의 아우성소리만 들리니이래서야되겟습닛가 이농민들의 살기어렵다는아우성소리를들어서하로밧비마음노코제농사를잘짓도록하여야 겟다는 것이오늘의 농촌문제가긴절한문제로론의되는바입니다

그런데 이농촌―궁하고가난해진이농촌을 어떠케하면네활개를 펴게할수잇겟느냐?몹시어렵고 큰문제입니다 그러나문제가크고뭐으니만치 그대책은 각방면에서 여러가지로주창되고잇고정도사를마튼그이들은 그때그때마다 여러가지로 도리를꿈여대기는하는모양입니다 물론일이란 하기에따르겟지만 그동안해온일이나그방법이대개군색하여 근본적농촌갱생의도리는 좀처럼나서지안는모양이엇습니다 그래왓든데 근자조선에 농촌살림을위하야서는 크다란새문제가 불쑥나왓습니다 즉그것은

▲△소작령▽▼

(小作令)이라는 새법(法)을 만들자는것입니다 이법령이야말로 잘만들고 잘옷만들어내는데따라 농촌의어려운백성들의허리를펴고 일어스는데 큰관계를짓는것입니다 생각해보실시요 어느나라나근대의 온갓제도를가춘나라로서 법으로 살지안는나라가 업지마는 꼼짝달삭하는데도 법이아니면안되는 이세상이라 지주와

▲△소작인▽▼

와관계를규정하는법이니 이야말로 오늘의절박한농촌으로서는이이상더큰문제가 업슬것입니다 그러고지주와소작인의관계란것이 엿대것지나온관례가 얼마나법업는습관에 매여잇든것입니까 제멋대로 지주들의 소견여하로 좌지우지 되여오든악습은 하로밧비 꼼짝달삭할수업는 법을 세워 노아야할것도 한두가지가 안이지요그런데

▲△총독부▽▼에서는소작령이란

새법을만든다니 어떠케만드는지 내용은자세히알수업스나엇젯든 래년부터실시하도록 하겟답니다 막다른이문제를압두고 우리농민살림에 밤술이오고가는법이라 우리는 될수잇는한도에서 생각할수잇는대로 다시생각 해보지안을수 업습니다 이제문제를딸아 자리를 밧구어가면서 대화(對話)의형식을 빌어소작령의 전반에관하야 이야기를버려노아보고저 합니다

그런데 총독부에서 초안한 소작령안은 방금 동경에건너가 법제국(法制局)에 넘어가 심의중인데 실시는 가을쯤될뜻하다합니다

『야이 小作人들아 메뚝이잡아오나라』

이런무턱한소리를듯음니까

地主、作人의關係에對하야

저녁을 먹고나서 사오십안팍되는 네다섯농군들이 히연을피우면서 각각한 살림사리신세타령을 하고잇슬때 바로삼십남짓한 농군이 허신문지한장을들고 달려들엇습니다

◇젊은이―아 이것좀보서요오늘장에갓다가 싸개지로어더온신문지를 뒤지니별소리가 씨워잇구만어이게먼니까

◇여러사람―먼가 패니황해서 야단인가

◇젊은이―아니 제땅을못가진탓에 남에논밧을부처먹기로니 이런일욕식히는법도잇서요?장하게 논마지기나가젓다고 작인터러야 작인놈들 메뚝이잡아오나라!」면뚝이이도무슨농사입니까?그것두반작을 젓는가요?그런데멧뚝이는 대체멧에씁니까?

◇늙은이―어허!그지주오래살고십고 또양기도치구십흔모양이로군……여보게허는수잇나 어느명이라구 말돗지안으면 또논밧을펜다구 야단칠테니어쩐단말인가……그런데 신문좀보세 아산(牙山)작인들이 어수룩한모양인가

◇젊은이―작인이야 순진하지요 지주가못돼서 번번히말성이안입니까 한심하지안어요 지주면 지주이겟지 멧독이사냥을해오라니 무엇니까 그러치안습니까 제가뒤떠드는것은 당돌한말슴갓습니다만은

◇늙은이(甲)―그래 애기해보게 지금세월은녯날과도달라서세상이 하도뒤박귀고 보니 우리가튼 늙은 이들은 암만해두 세상형편이 어떠케 돌아가는지 짐작을 할수가잇서야지 그러고 얘기두신학문한젊은이들의 얘기를들어야 속이씨원하두구먼 자 우리들 들보세자네야 학교에서 공부도햇고시속일을만히알터이니

反省해야할 地主들

작인도깨라

◇젊은이―아는게야머잇읍니까만은 이편저편으로 살림이궁한데다가 얼토당치안케 지주들이 작인을 수모하니분하지안습니까 그런데이제는 세상이달라젓으니 소작인들도 소작을 해먹을지언정 생활안정과 사람대접바들도리를 차리기위하야 눈을떠바루 떠야할것입니다 그러고지주들도녯날가치 그대로항부로작인을뜨더먹고 부려먹고또하대할생각만하지말고반성(反省)하야제인사를채리도록해야할것입니다

◇늙은이(乙)그야여부잇나하기야 농사를짓는데 지주라는 사람의땅을어더가지고 농사를지어먹는판계로 우리작인들이야 그사람지주네들의신세를지고잇는것가치 생각해왓섯네 그런데 근년에와서는 녯날과달라서농사는녯날보다도 몃곱수고롭더들려지어도 우리먹을것도 변변히 생기지안을뿐터러 지주에게는 갓다밧칠대로 바치어도 그래도부족타고 타박만하니 조끔만비위에틀리는것이안일세그려고보니큐방도말햇거니와녯날엔 지주때문에 우리작인들이 먹고사는듯십든것이 이제는 그들이 우리신세를입고 잇지안는가 하는 생각이나네

地主와小作人의 利害를分明히하라

小作人權利에對하야

◇질문이 그럿습니다 신세여부가잇습니까 자들어보십시요 첫재지주와소작인의관계를명확히 알어둘필요가잇습니다 자!우리가농사를짓지안습니까 그런데

一、지주라는 사람으로말하면 농토를가젓다는 소위소유권(所有權)만을가지고자진은농사를짓지안코 그농토에서지은 농사수확물의 일부만을 차지하는사람이고

一、소작인이라는사람은 농토가진사람에게 농사를 지으면 얼마를 바친다는 조건을지어가지고 농토를 빌어서농사짓는사람이안이겟습니까、

一、그러면 소작인은 단순히 지주의 땅을 빌어서 농사짓는 사람될뿐임으로、지주와의관계는 일년추수를 약속대로서로적당히 노눈다는희게만따젓스면 그만일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신세는무엇이고 하대바들것은무엇입니까

一、말하자면 지주는 땅을빌려주엇든 대가(代價)로 소작인에게서 적당하게 추수의몃분의 얼마를 바터가기만 햇스면그만일것입니다

一、소작료(小作料)로말해도지주가 터업시 만히내릴것도못되거니와 소작인이 터업시갓다바칠것도 안입니다 적당히 서로 따저야할것이고

一、지주가한사람이면소작인도 한사람이라는 사람된 대접을 밧도록 하야할것입니다 종래가치 소작인이라면 지주의종사리나 하는듯이 매여지날것은안입니다

世上은開明하면서 人心은薄해가고

지주들의세도만심해간다

小作農村의時代變遷相

이젊은이는 상당히 흥분햇습니다、가슴에는 올근불근하는 무엇이떠올으는 모양입니다、늙은이들도、이젊은이의말이다 올흔말가트나 사실인즉 조금도 그러치안엇다는것이 괴상스럽기도하고 또분하기도하다는듯이 모다 칭을한표정을하고잇섯습니다 그때、

◇늙은이(丙)―이사람아말인즉 그래으면 종조흘젠가 그러나 여태까지 우리가、농사를 지어먹어도、그러치못한것을 어떠케하나、내말좀들어보게、녯날、기차도 자동차도、업고 돈은 엽전이잇섯다하나 오늘씨우는 돈가치 펄펄뛰고 나는것이안이든 그때일을 생각해본다면 근년보다는 농사 지어 먹기가 얼마나 편햇든지 몰으네 지주의인품도 조와네 지주와소작인의 사이는 대개 서로의론조차 일을 처리해왓든것이라네 그러든것이 세상이밧귀어 개명에 또개명햇다는이시대를 당하고보니 녯날에는 먹을만하든사람도 어느듯가산을 탕패하는 사람이만허지고 제땅마지기나 가지고 농사짓든사람은 거개가 소작인어나갈수업서 그우에 또죽먹노릇을 하고그것만으로도 도록 품파리를 하지안나!

×

◇늙은이(甲)―그래녯날에는제집에서 만드는것이 안이면 제동리에서 나는물건을 서로 밧우어다가 오붓이살어왓는데 기차가생긴다 자동차가 다닌다。새로 돈이난다 또 무엇이생긴다 하는동안에업든세금은 연달아생기고 또 돈주고사들일물건은왜그리만허지는지 그러케되니 인심은박해지면서 녯날 인눔조혼지주들도 어떠케 딱딱해지는지 걸핏하면 논밧을내

조흔地主人品도 欲心의權化로

立毛差押等못살건作人

◇젊은이―참말 지당한말슴이올시다 그럿습니다 이세상의변해가는법이 부자는더부자가될수잇지만 빈한한축에드는사람은 더가난해저가기만매련입니다 왜그러냐구요?그것을말하자면 넘어장황하니 말하기는어렵습니다만은 우선 조선농촌사정을 보면 잘 알수잇습니다 즉 농가 호수를보면 늘어가는것은 지주와소작인이고 중간에잇는 자작농(自作農)과 자작겸소작농은 그만큼줄어만가고잇습니다 그러고보니 권세는 돈놓만히가지고적게 가지는데따라가는 이세상이라 지주들의세도야 더야단스러워가지안을수잇습니까

◇늙은이(乙)참말일세 두말잇나 근래의지주들이야 자기네만 생각하지、어데、작인들을생각하는 사람이몃사람 된다고 작인들이야 어떠케 먹고살던말던 제푼수만생각하고 생억지를 쓰네그려고대광실에 그더운날을 서늘하게 보내면서 피땀을흘리며 한녀름농사짓는 작인들의수고는 꿈에도 생각지안코 제욕심만 채우자네그래 앗가도 얘기가 낫지만 지주들의 인심이엇떠타구?안이 벌서 『인심』이안일세인심이안이야 자보게 지주들노라고호령울하니 이일을어쩌나 그러고한편에는 손바닥만한 논밧 한뙈기라도엇지못해서 허덕이는 소작인이수둑이잇스니 지주의세도가 더해질것도사실이안인가! 소작인 이래서 공연히 지주압헤 하대밧기조와하고 업는살림에 무엇이 넉넉해서닭마리를일부러 갓다밧칠리잇나 사정이딱하지안은가 생각해보게 말하자면 지주들등살에 소작인들이무려하게 억눌린다는말이지

의 욕심채우기위하야 옛날에 엇든 악착한새버릇이얼마나 생것나 례를들면

一、땅은 제땅이라고 사오년륙칠년을 농사짓든 연고깁흔 소작인이라도하로아츰에 닭의목잘으듯이 뚝뚝떼버리기도 일수이려니와

一、그땅을제땅이라고 제멋대로 마음대로팔고사고하면서도 그땅에매운소작인들은 알은체도안코 게다가세금이란세금까지 작인터러물라고하니 이런뻔뻔스러운일은또 어데잇슬까

一、안이 이건아직 약과일세 소위립모차압(立毛差押)이란것이잇지안혼가 그런변이어데잇나 달은빗쟁이한데당하는일도여북치안커니와 어떠케하는수업서서 소작료가밀렷다고 봄내여름내죽을고생다해서 농사지어 벼이삭이 누엿두엿익어서고개를푹느려친그때벼락가치립모차압이라고해서우리작인은손가락하나 못대게하는수도잇네그려우리야그영문을아나그들을지주들은 돈을주어서변호사라는사람을 대가지고재판소에어떠케 해가지고 그러케한다는데우리야그법을잘알기나하나 또무슨논이잇다구 그들가치번호사를대서딴도리를꾸밀수가잇나 동리구장이나면장또주재소에가서어굴한사정을말해도 재판소에서하는일은 하는수업다고 다모른네그려작인된놈이야할수잇더라구

一、또소작료라는것두 옛날은 도지나 타작이나가대개 추수의적반쪽에서 과히더하는것이 업섯는데 근변에는작구터가저 오라네그려 그것두또 어느명이라고 안가저갈수업서서 가저는가지만한정업는 그욕심을 다채우구야소작인무엇먹구살겟나우리들의이사정을어데다고하겟나

舍音의惡德

地主以上못살게굴어

설은事情은가지가지

◇젊은이―하시는 말슴들을들으자오니 이젊은놈의 가슴이 미어질듯이 답답합니다、

◇늙은이(甲)―지주란 그사람들도 그러커니와 한수더뜨는그사음(舍音)녀석들의그해거야 어떠케 밧는단말인가 늙은이를 알어보나 남의예편네를 알어보나 제땅이라고는 돈닙 만큼도못가지고도 지주이상으로 욕심을부리니 살수가 잇서야지 조상을어데다모셧던지세상에못할협잡은 혼자 도마터가지고 하는것이 사음인가봐、그러치안은가?지주한테가는 추수는、지주한테갈대로 떼여노코 사음을 저먹을것은 저먹을대로 또떼먹자니이노릇을 어쩌나 타작을 다하는데도 온갓 논간을 다부려고 두량(斗量)을 하는데도、법에 업는 말을되라고하고 또시중은 시중대로식이고……그러구두 무엇이던 자주갓다바치지 안으면 온갓든집을 부처가지고는 논밧을내노라지 그래서는 땅사람한데 돈놀밧던가 소작료를 더 처매기로하고 옴겨주지 안나…… 그러니 소작권을떼우는 사람도살수업시되려니와 새로소작을맛는사람인덜 뼈가녹도록농사를지어서 지주에게 바치고 또 사음에게뜻기올뿐아지 못살게되기는 소작권때운사람이나 다를것이 조금도업지 남조선에는 가는곳마다사음때문에못살고、고향을떠나게되는사람이 부지기수일것이네

◇늙은이(丙)―그럼 그사음의 심술구즌행사라구야 그러구두아들딸나코 배불리먹고사니 아마 그러구야사는세상일까 사음、농막직이또무슨 농장관리인 그런것들만한숫업서저도 얼마나소작인은나흘것이건만……

터저나는爭議

農村問題核心

地主들도反省할이때

小作爭議에對하야

대강대강한것이나마 이러한 소작인농들의 딱한사정을듯은네들의 입에서 분에터저 나오는것을 들은젊은이의가슴은 실로미어지는듯 울분으에찻습니다 그러나 울분으로만 이애기할것이안이라잡간진정하야 마음을가다듬어 가지고 다시이애기를 꺼냇습니다

三面에繼續

東洲 沈周卿氏 試筆

碧山 鄭大基氏 試筆

謹賀新年

沙里院

沙里院 黃海道會議員 印廷洙 電話二〇四番

沙里院 小兒科內科專門 濟衆醫院 院長 朴先伊 電話一四四番

沙里院 至誠醫院 院長 李熙鼎 電話一〇八番

沙里院 鳳山釀酒場 鄭斗鍾 電話二二六番

京義線興水驛前 新豐釀造場 朴鳳學

鳳山郡萬泉面極亭里 李忠健

鳳山郡萬泉面極亭里 朝陽農士學園

鳳山郡萬泉面極亭里 哲學博士 崔允鎬

鳳山郡萬泉面極亭里 李胤永

沙里院 五成商會 電話一〇一番

沙里院 唐麵製造業 廣興工廠 電話一〇〇番

沙里院貨物自動車部

沙里院 雜貨貿易商 鄭在洙 電話六六番

沙里院 黃海醫院 院長 康昌梧 電話二二五番

沙里院 布木商 吳得龍

沙里院 高命欽

沙里院 穀物商組合 電話二七番

沙里院 金融業 沙里院商會

沙里院 鮮一製藥本社

沙里院 北里郵便所長 李東植

沙里院 布木商 崔昌灝 電話一五番

沙里院 布木商 宋鉉三

沙里院 고무靴商 金應淳 電話二一〇番

沙里院 金芝健

沙里院 萬花菓子店 金斗星 電話一三九番

沙里院 製油業 玉炳道 電話二五八番

沙里院 雜貨部 印刷部 鮮文堂 電話二一三番

沙里院 有隣藥房 李孔澤 電話二二一番

沙里院 鏡山醫院 院長 郭柄奎 電話一一六番

京義線興水驛前 鄭昌熙

鳳山郡萬泉面極亭里 金斗源

沙里院驛前 大同運送店 電話一一七番

沙里院 荷主運送店 電話一二九番

沙里院無盡株式會社 電話一五一番

沙里院 東洋紙物舖

沙里院 印刷業 黃海印刷所 電話一二一番

沙里院 裁縫機會社分店 朴弘求

沙里院 藥品問屋 天山藥舖 電話六四番

沙里院 一般農具特約販賣店 亨農商會

沙里院 藥品問屋 白十字藥局 電話一六三番

沙里院 司法代書業 晏熹一

沙里院 穀物貿易業 永昌商會 電話一三八番

沙里院 漢藥局 德濟局

沙里院 延在鉉精米所

沙里院 大亨精米所

沙里院 承信精米所 電話二六〇番

沙里院 大和精米所 主 金承仁 電話一四二番

沙里院 穀物貿易 牛皮賣買業 協同商會 電話一六八番

沙里院 邑會議員 張龍鎭 電話三〇番

沙里院 穀物海産物委託販賣 合資會社 海陸物產社 電話一七五番

沙里院 姜允輔

沙里院 穀物貿易業 普成商會 電話一七六番

沙里院 精米業 德榮商會 電話二三六番

沙里院 藥品問屋 泰和堂藥房 電話一三五番

沙里院 沙里院洋服店

沙里院 工藝製造 雙和盛鑄造所

沙里院 穀物貿易鐵物賣買 合資會社 西鮮貿易社 電話一七三番

沙里院 古物商 東洋商會

沙里院 家具製造業 崔泰峯 電話二一一番

沙里院 李德基 電話六九番

沙里院 德盛普通學校 職員一同

鳳山郡舍人面岐山里 岐陽學校 職員一同

沙里院 飮食店組合

沙里院 料理各種 英會館 電話一〇三番

鳳山郡文井面事務所 邊俊玉 李義相 金炳昌 金昌濟 邊龍錫 李燦文

沙里院 鳳山荷主運送店 電話二三七番

鳳山郡西鍾面 黃海道議員 梁熙哲

平壤專賣支局 沙里院出張所 電話一四九番

朝鮮總督府農事試驗場 西鮮支場 電話一三〇番

鳳山郡廳 電話四番

沙里院 第一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電話五番

小作令打鈴續

爭議의考察

◇젊은이—조흔이얘기를마히 들엇습니다그러니소작인은인은 어떠케살것입니까 이러케하면 소작인도 남가치홀홀히는못산다 해도 우선생활을 마음노코 할만큼 딴근심업시 농사를지을수잇겟습니까

◇이것이 오늘궁진한우리농촌에서도 소작인들의문제중의 큰문제입니다 보십시요우리 농촌은피폐하엿습니다 오죽벼천마해도 정든고향산천을 버리고 멀리남북만주로 또일본 농토를차저떠나는사람 또일본으로로동을해먹겟다떠나는사람그얼마나만엇습니까지금도 일본으로가는사람은 아직잇는모양이나 만주로가는사람만은적어젓습니다 그것은그곳도가야 별도리가업다는것을안까닭이겟지요 이모양으로제고향땅에몸을 부치기어려울만큼우리 농촌의백성들이살기어려운진것은 더설영할것도업시 누구나잘아는사실인데 이처럼농사를짓되사는동마는동뿌리가 들주이고보니 아무리무력하야 하대밧는사람들이라해도 언제까지나 그대로수모를 바드며살수는 업게될것입니다 소작인도 일가족이 먹고살어야할사람이고、사람으로 타고난 이상에는 남가튼 사람 대접을 밧겟다는 산기운이 잇는터이다、그대로 가만잇게는 안될것입니다、

◇늙은이들—그러니 어떠케단 말인가、

爭議란무엇

◇젊은이—안이요 당장에 소작인들이 어떠케해야한다던가、어떠케하라라던가 하는것이안이고 이왕 지난일을 봅시다、작년이나、금년에도 또그전에도 이따금 보아온 일이잇지 안습니까、

一、가물이 들던가、장수가들어서 추수라고는 몰벼밧게 된것이 업는데、추수는 가저오라고 성화가치 재촉한다고、수십명 혹은 수백명의소작인들이 볏난을들고、지주집에 몰려간다던가、또 농장으로몰려가 며츨식굶머가면서 농장주와싸워서 소작료를 감햇다던가 하는일이 잇지안엇읍닛가

一、이것이 소작쟁의라는것인데 이것이야말로 궁줄에들어서어떠케해서던지 살도리는채려보겟다는 마즈막 몸부림입니다 이거이 오늘농촌소작인문제로 은갓숨어던사정의폭발이라고 볼것입니다

一、보십시요 이소작쟁의는점점그건수와인원이해마다늘어만가고잇고또 소작쟁의방법과형세가 딸아서 격심해갑니다 그것은 달음이안이라시달리고 시달린 소작농민의인심이 점점거츨어가고잇다는것을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爭議의影響

一、이가티하야 전농민의 륙칠할이나되는 소작농민들이생활이 불안정하야、먹을것을배불리못먹고、인심이거츨어간다면 당연히 농사도잘지어지지안을것은 정해노흔리치이니、이가리되고보면、그나는 민심이 쇠침해가고국가적으로 가난해저 한나라의 뀌도는가장 근심스러운 상태에 빠지게될것입니다.

一、이에、궁해진 소작농민은 소작농민대로 살길을찾고저 다수가 뭉치어 소작쟁의를 이르키게되는 반면에 그나라의 주권자는 국가와 백성이라는것을 생각하는급장에서복잡한농촌문제를해결하려고합니다

一、또동시에 소작인들을수모하고또더먹기를 일삼든지주들이나 지주들과거래가깁흔큰자본가들도 소작농들을말업시만들어농촌을 폿온하게하야 농사잘짓도록햇으면하는생각을하기는합니다·그중에야 소작인들을말업시만들어노코 더뜨더먹어보자는양큼한배장을가진것이 또만흘것이지만요

◇이러한사정밋해서 농촌문제 특히소작문제라는것이 근본문제의성질을 가지게된다 다그러하야현제 일본에서 상하의정치가 론재 신문 잡지에서 빨리 근본적농촌 구제책을 세우라고 야단이나서 대신들의자리가 흔지훔짓하고 잇답니다 그러고물론조선도 궁하기는 매입반이어서 하로밧비어떤방법을꾸며서 궁해진농촌에압날의후환이적도록하자는것은총독부에서도 만히생각하는터입니다

作權安定必要

◇늙은이들—그러면 우리들이어제배꼽호지나안케먹고살고또작인놈들이라는 하대를 면하게 되겟단말인가

◇젊은이—밋돌이동하면기둥이나 집웅이너푤것업시 모다위태하게 될터이니옷집을바로 잡기위해서는 수고스러운대로 밋돌거정을 안할수업시된 형편입니다

◇늙은이(乙)—글세、자네가금방말한중에도、소작쟁의이에 기둘하데만、소작권이라고、마음노코、땅을부처먹을수잇서야 할것안인가、별도법도업시지주나사음이란사람들은제마음대로 아무때나소작을떼이니 이게야 살수잇나、법이업는것이 오히려큰법이되여잇스니、무엇보다도 소작인이마음노코 소작을해먹도록 소작권을 떼서못하는법만 만들엇스면 아주살기가 날것이네

◇젊은이—올습니다 참말문제는거기에 큰뜻이잇습니다 그래서 총독부에서는 이번에 소작령이라는 새법을만들어가지고 소작인의『소작권』을자리잡어보고저 하는중인데 잘하면 그법이새해가을에는 발포될뜻하다고합니다

◇늙은이들 허허 소작령?그런법이생겨?

立法의主要骨子는 小作權確立이眼目

그러나權利附與限界가問題

立法의基礎條項의吟味(一三)

신문이라도 읽을수잇는사람들이라면 소작령이생기리라는소식도들을수잇고 그내용이대개 어떤것이라는것을다소 짐작도할수잇슬것이나 원래선문가튼것을 사볼만한여유가업는소작인들이라이제소작령이야기를듯기로하엿다

◇늙은이(甲)—여보게、소작령이란 어떤것인가 좀이야기해주게、궁금할세、이제껏이야기를듯고보니 사실말이지 농촌의형세가 이대로가다가는 농촌은 지주와주작인이서로패가어울리어싸우는마당이될것밧게 업스리라는것은짐작이가네! 지주는지주대로욕심만부리것다소작인들도사람이니욕심도부려보려고하게될것이고、내종에는 맛대들고 싸우자고해볼것도 잇슬법한일이겟지、그것도 먹고살자니까말이지……그러고보니 사、인의마음은 농로를 귀히 녁이지 안케되고농사를 성십으로 짓지안케될터이니 서로살수잇게되겟나 참말무슨법을 세워 지주들의 해패를조막도록 해야될것이네 밤이깁혓지만 대강좀 이야기해보게

◇늙은이들—어서좀 들어보세

◇젊은이—그럿습니다 거츨어가는 농촌을 근본적으로평온하게하자면 그야또 어렵고어려운비상한 방법이잇서야겟지만 우선은 무법하게 욕심을 부리는지주네들의버릇을 고처고 딸아서 소작인들도 농사에성실해지도록 할만한법을 세워야할것인데 그법이란것이 소작령이란것이될것입니다

◇

一、그런데、법을 세우는데는 그시대 그나라의제도와 사정과 그나라를다스리는 사람에 딸아서여러가지로 달려지는것임으로 한입에가추어말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선대충소작령이란법이어떤 골자를가지고 생기려는것인가하는것을 이얘기해보겟습니다

所有權의萬能

먼저 이얘기를하기전에알어두실것은 현대국가에서는백성 즉개인의소유권(所有權)이란것을 절대적으로옹호하는나라입니다 그때문에모든 법률이란것은 특별한례외를 제하고는 개인소유권즉재산에대한권리를 옹호하는데괴초를두엇고 딸아서토지를가진사람은 그땅을어떤방법으로던지 사용(使用)하는데나 거기에서나는수입에나 또처분에나 모다마음대로할수잇게되여잇습니다 그때문에특별한게약이나업스면 언제던지 지주는제땅이라고 제마음대로 할수잇는것이오 늘의법률입니다 그러나이것은오늘의농촌실정에 비치워보면 그것만으로는 결국적룰바리의법이되고말엇습니다

一、왜그러냐 하면 법의목적하는바는 그사회의 평화한질서를유지하고、발전을도모하는데잇는것인데、그대로만두면 지주가넘어횡폭하여저서 앗가말한것과가치 농촌권반이뒤끌른문제가 생기게안됩니까 그래서그적룰리법에바칠롤가튼것을 괴이겟다는것이소작령이라고볼수잇읍니다 그러나소유권을 옹호하는일본현행법의 근본정신만은 어데까지던지추호도 변함이업스리라는것은더말할것도업습니다

香塘 白潤文 氏 試筆

小作權과耕作權

社會的關聯과法律上解釋

◇젊은이—그러면、또여얘기를 계속하게하겟읍니다 앗가말숨드린 소작문제의 근본적 말섬이되는 소작쟁의란것을 다시참고해보면 일본가튼곳은 소작료를내리느니 올리느니 하는것이흔히원인이되여잇지만은 조선에서는 태반이소작권을 떼인다는데원인이되여엇읍니다이것을보면

小作權의意義

一、소작권이라는것은권리(權利)라는권(權)자는 부처잇지만은지주의소유권이라는권리에비하면 아무힘도업는권리라는것을잘알수잇습니다 이것은 일본의법률이아직소작권을법률상 권리로일반적규정을지은땀문이 업기때문입니다(영소작권이잇지마는)

一、그럼으로 일본이나조선에서소작법을만든다면 이소작권이라는것을 법률상권리로인정케하여야할것이 가장중대한법의 끝자가될문제인데 소작인의소작권을 법률상권리로 인정케한다면얼마나권리잇는(힘잇는)권리로만들겟느냐하는것이 동시에일어날 문제일것입니다

一、다시말하면 지주의토지소유권에대항하야 소작이그땅에농사짓는경작권(耕作權)을 어느정도까지 유력한권리로하겟느냐하는것입니다 물론지주의소유권과맛먹게되기야 일본의 현행법률미테서는바랄수업겟지요만은 만일지주와 소작인간에 권리다툼이 생기는날에는 어느편에나과히 편벽되지안는판단(재판)을내릴만큼 만들어노아야할것입니다

耕作權의意義

一。그러나소작인의 립장으로본다면 소작권을지주의소유권에매운것으로할것이안이라 농사짓는사람으로서의 경작권이란것을 영구또저대한것으로 인정해주어야올흘것입니다

一、다시말하면 소작권이라면 소작인이 농사지은수확에서 그일부를따빌엇는갑으로 지주에게바치고 그대신그땅을소작해먹을수잇다는데지나지 못한다고볼것인데 그러다면 소작권이라는것은 지주와소작인과의두관계에서만말하는 것이되고만다고볼것입니다

一、그러나 경작권이라면 지주에게서 땅을빌어서 농사지어가지고 수확의 일부를 지주에게바치기는 마찬가지라고해도 소작인이농사를잘지음으로 인하야 권사회가유무상농 유형무형의 리익되다는점에서 소작인이농사짓는다는 그생업(生產活動)을 지주와의관계로만 볼것이안이라 사회적으로도 김흔관계잇는점을 인정하고 농사를짓는 그생업에대하야 지주의소유권과는 따로떼어서 지주의토지소유권에 억매여좌우되지안는권리로 하자는것이 즉 경작권입니다

一、그럼으로 경작권이라하면 지주의소유권과맛먹는 대등한권리의 성질을가지게될것합니다

一、그러치안습니까 소작인이 제땅은 못가젓슬망정 피땀을흘리고 농사짓는갑스로 한번 농사지을땅을부잡게된다면 영구히 대대손손이라도 농사만은 마음노코 지어먹을수잇다는것이 국가적으로보장되어야지 그러치안코야 이밧한세상에 소작인들이마음노코 아들딸다아서 김으면서 살아볼수잇겟습니까

◇늙은이(丙)—참말그러워그러키만햇으면 마음노코 농사짓고、굶을걱정업시살것이네 누가하로에 밤내그릇먹갯네나、누가비단옷닙고 기생첩하겟다나……의식이나 푸어매가고、자식들을 보통학교인망정 졸업식힐만큼이라도 되엿으면 걱정이 업울것이네、

◇늙은이들—말해 무엇하우네、

極히不徹底한 小作權의規定

小作令草案의要領

◇젊은이—그런데 소작령이란 이것은결국은、우에설명한소위소작권이란것을 법률상권리로 결정하는것、그것이원제주가되여잇고、그여는그것에 딸아가는 조문들로될것입니다、소작료를얼마만큼정하는것도 소작권의권리를힘잇게정하고 약하게저하는데 딸아서 소위공평하다는정도가표시될것입니다。

◇늙은이(乙)—그런데 총독부에서 만든다는소작령은 대체어면속살을 가진것인가、그것을 좀알세

◇젊은이—그내용에 대해서는 총독부에서 절대로 비밀히하고잇음으로、잘알수가 업습니다、그러나 대체의 내용에 대하여전하는말을 듯건대 십여년전에 일본정부에서 시행하려고 『소작제도조사회』에서 초안하엿든 초안과 대동소이한것인것만은 대략틀림업는듯합니다、그내용을본다면 두가지로 볼수잇습니다 즉

小作權의規定

一、그하나는 소작권에관한 규정인데

(가) 소작권은지주에게서땅을 빌어쓰는권리로하야 그권리는 함부로누구나건들이지못하게하자는것 (지주가땅을팔엇대도 새로그땅을사는사람이 함부로소작권빼앗지못한다는것) 그대신소작인은 지주의 승낙업시 마음대로 소작권을 달은사람에넘겨팔지못할것

(나) 지주는소작지또는영소작권(永小作權)(이것은이십년이상 오십년이내라고법률에작정되여 잇스나 이런것은 아주적은것이다)을팔어넘기려할때에는 미리기간을작저하고 소작인에게 그땅을 먼저살수잇는 권리를줄것

(다) 소작권의 존속 기한정기(定期)소작기한은 원측으로 적어야오개년으로한되▲단지그기한이 오기전 륙개월내지 일년이내에 그기한을 고치자던가 또 고치지안캣다던가 하는말이업섯슬때에는 종전대로 다시오개년간 개속하야 소작을해먹을수잇는것으로 인정하는것으로 볼수잇고▲소작기간의작정이업는때라해도 만일지주가 소작인을떼이려고할때에는역시 일년전에말해두어야할것

(라) 소작료를 바치는데 소작인이 부득이한사정이 업시일년이상 안바칠때는 소작권은 자연소멸되여 소작권을 떼일수잇고

(마) 소작계약을해제(解除)하야 땅을지주에게 돌려보내게될경우에는 ▲추수권이면 소작인은지주에게대하야 나락을시가(時價)로사게하고▲또지주에게승낙을밧고토지개량(방울논으로고치는것등)이나그밧게 유익한비용을 들인것이잇섯스면 그비용을 청구할수잇스며 도지주가계약해제를하자고 할때에는 지주는 소작인에게 일년간의소작료나 내지그십이분지일의 범위안에서 작리료(作離料)라는것을 주어야하고 ▲또영소작권을 매매하는관습이잇는 지방에서면 지주는상당한갑을 내이여야할것 등의규정이잇고

爭議緩和方策

二、소작쟁의를 완화하려는방면으로본다면

(가) 소작인이 배신행위가업는이상 지주는 함부로소작계약을해제하거나 계약을고치지못하고 도계약을고처가는청구를 리유업시거절도못할것、

(나) 소작조건을 고치려면서로협의하야 소작위원회에청구할것

(다)흉작때문에 추수가적어서 소작료를감하든가 면제하여야겟다는 요구는추수시작하기십오일전에말할것、

(라) 우에말한바와가치소작인이리유업시 일연분이상 소작료를 바치지안흘때는 지주는계약을 해제할수잇고、

(마) 소작료의 일부분이라도 지주는 먼저바더야하되 그일부분만 먼저바덧다고 해서 남어지는 면제해준것으로 인정해서는안되고、

(바) 소작료의 지불청구 또는소작하든 땅을드리라는청구소송이잇슬때 소작인은、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공닥(供托)하고、립도(立稻)기타의차압 기타의처분을면할수잇고 또이공닥은 소작쟁의가 일어나기전에 하여도 효력이잇다는것등이고、이밧게 사음에대하여서도 각별한규정을지어 엄중한취체를하기로한것이라는것입니다。

石丁 安鍾元 氏 試筆

小作期間의五個年은 小作權의無力을暴露

◇늙은이(丙)—그만만해두업마름 소작인이살을속해보이는데

◇늙은이(甲)—글세그래도보이네만은 제일중요한소작기한을 단오개년으로 해서야 말이되겟나 그게야 새로조흔법을냇다뿐이지 그게면가 하다못해 십년이나십오년으로는해야지 단오년이니농사를짓기시작해서 농사가제법될뜻해갈때면 오년기한이다되지안캣나……그건들렷네를렷서……

◇젊은이—지당한말씀입니다 오개년이무엇입니까 그런데 소작인을 위하는제하고빗이나겨우뵈이는이것인망정 그것이라두 되기를기다려햇터니 그섬술구존지주들이지요 저조선에서 대지주들의 모임이라는 농업자대회에서는 소작령제정을 반대하는 결의를햇더랍니다

◇늙은이(乙)—게다가지주들이 제편에서 또방맹이를들어?인심이고약하군……그런데 이왕이면앗가자네말하든 『경작권』이란놈이 인정되여가지고 소작을해먹어도 영구한 생업을삼구농사를 짓도록만들어 노아주지안으면 안될것이네

團體協議必要

◇젊은이—그러다뿐입니까 그러고 이런일도생각해보아야합니다 큰농장에서무슨일이 생기어 지주와 거기에달린 다수의소작인사이에 다투는일—즉소작쟁의가일어낫다면 소작인들은리해가 가튼니만큼 함세하게될것안입니까 그래서소작인이한통치되면 그단체를인저하고 그대표자도인정해주야 할것인데 이런것은 소작령에는아주꿈에도생각안는모양입니다 일이라니 리해를가티하는사람이합해서한 조직잇혜일하는것이서로도읍는데는 가장유리합니다 그래서소작인은소작인조합가튼것도만들어서서로리익을가티 도모하여야합니다

◇늙은이들—그럴세、자네 올흔말이네、이러케이얘기해줘 고마워! 아!닭서 밝아오지안나、

◇

새벽닭의소리가 요란합니다 동천은희멀거니 밝아옵니다 붉은햇발이보이기 시작합니다 대화극『소작령타령』도이에끗막게되엿습니다、필자는 분주히이글을 쓰노라고 똑가른설명을다못한것을 유감으로생각하며 우선이에 붓을놋습니다

끗

大田 忠淸南道第一食堂員

忠淸南道警察部無聲會

大田土曜會

大田木曜會

大田本町 外科 婦人科 産科 ×光線科 東光醫院 柳東鉉 電話七四一番

大田本町 金政炫醫院

大田大興町 內科 小兒科 任泰熙醫院 電話六一一番

大田本町 鮮南倉庫株式會社

大田君子亭 射員一同

大田本町二丁目 金大英

大田本町二丁目 鐵物商 朴學瑞商店

大田本町二丁目 (二)大田荷主運送店

大田郡儒城 尹碩淳

大田春日町二丁目 明月舘

大田本町二丁目 鷄龍舘

大田 金東洙

大田 儒城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大田 鎭岑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衡平社大田支部

大田本町二丁目 梁萬枝商店 電話三二三番

大田 公州廣昌堂支店 金洛鉉

大田 材木店組合

大田本町二丁目 南昌堂大藥房 金添斗 電話四七〇番

大田本町二丁目 任齒科醫院 任胄爀

大田本町二丁目 忠大自轉車店 趙佛功

大田儒城 儒城金融組合 小林小三郎

大田郡炭洞面 水雲教

大田榮町 三聖釀造場 主 邊聖浩

大田 北面事務所 職員一同

大田 儒城面事務所 職員一同

大田春日町二丁目 兪晩植

大田市場 尹章鎬

大田 高英俊

大田 崔在根

大田市場 宋寧在

大田市場 鄭仁澤

大田市場 普化商店

大田 閔慶植

大田 世烈洋服店 柳世烈

大田市場 大成고무商會

大田市場 裵東錫

大田郡新灘津 新灘津水利組合

大田本町二丁目 寶文釀造場 金贊斗

大田 鎭岑面事務所 職員一同

大田 山內面事務所 職員一同

大田 柳川面事務所 職員一同

大田 懷德面事務所 職員一同

大田 炭洞面事務所 職員一同

大田本町二丁目 大興釀造場

大田春日町二丁目 公州屋 崔順根

大田 外南面事務所 職員一同

大田 東面事務所 職員一同

大田大東町 崔東植

大田大東町 金潤基

大田本町二丁目 裵明守

北栗

載寧郡 北栗面事務所職員一同

載寧郡 北栗面東拓會社指導員 金根洙 崔宗璣 崔東植 崔秉爀 朴孝均 羅錫龜 朴尙奎 金仁植

北栗面內宗公普校 訓導 朴鍾浩 訓導 林弘奎 訓導 李鼎基 訓導 朴尙琬 訓導 李淑模

穀物檢査所北栗出張所 職員一同

載寧郡北栗面內宗里 肥料商 李鍾煥

載寧郡北栗面石浦里 魯興淳

載寧郡北栗面內宗市 布木商 楊壬壽

載寧郡北栗面東新興里 韓弼較

載寧郡北栗面 李卿範

載寧郡北栗面 魯權淳

北栗分局長 朴基永

北栗面內宗市 崔昌鉁

北栗面內宗市 都光舍時計店 朴俊文

北栗面內宗市 崇義學校教員 崔理俊 林在鎬 韓景璇

北栗面內宗市 寫眞業 尹文鉉

北栗面 安鍾夏

載寧郡北栗面大洪里 西洞學校訓導 韓國瑞 金善興

載寧郡東新興里 東明學校長 魯東信 同 理事 魯東默 同 訓導 金聖植

北栗公立普通學校 學務委員 崔濟弘 魯東善 李蒙濟 金鎰鍰

北栗面 共明學校長 金龍翼

載寧郡北栗面東新興里 聖潔教會傳道師 崔獻

載寧郡北栗面芝峴教會 牧師 李鍾根

載寧郡北栗面內宗教會 牧師 梁錫鎭

載寧郡北栗面 同仁醫院長 林元鳳